Contents

2009
SUMMER + Vol.07

04 **칼럼** _ 찬란한 기록문화의 전통을 되살리자 / 이영학

06 **화보** _ 제3회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10 **기획특집** _ 기록관리 표준 포럼
호주의 전자기록관리(EDRMS) 표준화 현황 / 바바라 리드
뉴질랜드의 기록관리(RMS) 표준화 현황 / 그렉 골딩
기록관리 표준화의 재구축 방향 / 설문원

36 **전문가로부터 듣는다**
바바라 리드(호주) ㅣ 그렉 골딩(뉴질랜드)

40 **休** _ 재미있는 조선왕조실록 - 두번째 이야기 / 김정운

44 **이슈와 현장**
대한민국 희망기록전을 가다 / 박이준
대통령기록포털 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기능 / 서영준
나라기록관,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거듭나다 / 조윤경
세계속의 육군_ 파병기록전시회를 통해본 활약상 / 최영일
21세기 지능형 디지털 국토의 초석, 수치지도 / 한상호

64 **기술동향**
전자 시청각 기록물 포맷과 기술 동향 / 심재균
전자기록 보존매체 측면에서의 DVD+R과 DVD-R의 비교 / 김상국

74 **소개합니다**
녹색혁명의 보고, 농촌진흥청 기록관 / 이숙희

78 **역사속 문서탐구**
조선초기 공문서 체계의 성립 과정 〈2〉 / 박준호

82 **기록의 발견**
기록을 통해서 본 70년대 '문예중흥 5개년 계획' / 이영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록과 기억으로 만나다 / 위영

98 **기록인 단상**
병무청 기록연구사로 살아가기 / 이정희

100 **국제활동**
미국의 기록관리학 과정 소개 / 권혁천
TNA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소개 / 손용배
호주, 베트남과의 국제협력 / 조이형

114 **休** _ 영화속 기록읽기 / 김은경

118 **제3회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수상작**

122 **정보광장**
국가기록원 소식
국내기록관리 소식
해외기록관리 소식
새로 나온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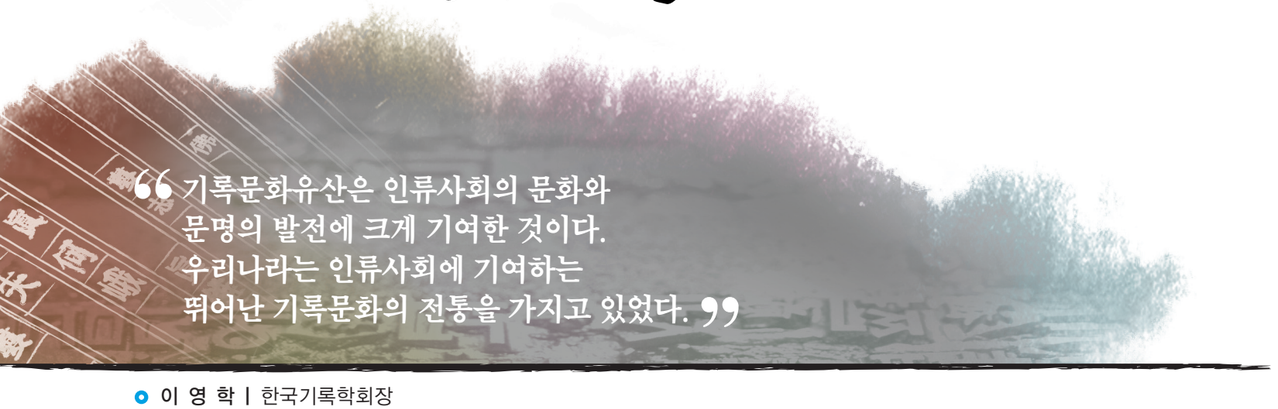


기록인 IN

l 발행인 : 박상덕 **l 발행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l 발행일** : 2009년 6월 30일 **l 기획** : 기록편찬문화과 (042-481-6382)
l 디자인·인쇄 : 디디컴 (042-635-2010)

*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기록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서도 원문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기록문화의 전통을 되살리자



"기록문화유산은 인류사회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뛰어난 기록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영 학 | 한국기록학회장

세계 역사에서 대국으로 등장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세한 나라이지만, 기록을 바탕으로 축적된 경험의 전수와 정보력도 뛰어나다. 자기 나라를 경영해가면서 생산한 공기록들을 잘 정리하여 후대의 국가 경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록을 획득함으로써 그 나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다른 나라의 기록 수집과 정보 획득 노력은 평화 시 보다도 전쟁 시에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패망하는 독일의 국가기록들을 대거 수집 · 취득하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국이 북한의 기록을 대거 획득하여 현재 미국의 국립기록청에 보존하여 연구 자료로 삼았다.

전통시대의 한국은 기록의 나라로서, 그 자체가 국력을 지탱하는 요인이었다. 고대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은 각기 자국사를 편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신집』·『유기』,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등 이다. 고대국가들은 당대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중요 사항(역사)을 정리하여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체계화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전통은 계승되어 삼국은 역사 편찬 이외에도 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삼국을 계승한 고려 또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는데, 삼국의 역사적 상황을 요약 · 정리하면서, '고려국가의 건설은 역사적으로 정당하고 정통적이라는 사실' 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다. 또 『팔만대장경』은 2백년에 걸친 불경 편찬 노력의 결정체였다. 고려 전기 이래 축적된 불경 편찬의 경험과 전통을 계승하면서, 몽고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 물리쳐 주십사' 하는 기원에서 만들어진 세계문화유산이다. 그 외에도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등 다수의 값진 기록들도 전승하였다.

이처럼 기록의 정리 관행은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14세기에 금속활자에 의한 『직지심체요절』의 발간은 한국사뿐 아니라 인류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까지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구텐베르그가 발명하였다고 믿어왔으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심체요절』이 발견됨으로써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우리가 만들었음이 인정되었다. 인쇄술의 발달은 세계 역사에서 지식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이전에는 지식을 전하고자 하면 필사(베껴 쓰는 방식)하였는데 반해, 인쇄술은 그것을 원하는 부수만큼 찍어냄으로서 지식 전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조선시기에 들어와 공기록 편찬과 전승은 더욱 빛을 발하였다. 세종대 독자적 문자인 한글을 창제하여 인류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문화의 독창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 『고려사』 뿐 아니라 공공기록을 잘 정리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각종 '의궤' 등의 기록을 풍부히 남겼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정리 요약한 책이며, 『승정원일기』는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매일의 근황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시기 관찬기록 중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비변사등록』은 조선후기 최고의 권력기구인 비변사의 기록이며, 『일성록』은 18세기말 정조 이후부터 조선말기까지 왕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의궤' 란 국가의 주요 행사나 의식을 준비부터 마무리할 때까지의 전말을 기록한 책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의 사회상을 풍부하게 전해줄 뿐 아니라, 사회운영 경험을 후대에 전수해주고, 나아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시의 문화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유네스코에서는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 『훈민정음언해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 의궤 등 6가지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기록문화유산으로 말미암아 한국인의 문화수준은 높았으며, 아울러 한국인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음으로써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중국문명에 흡수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55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55개 소수 민족에는 청나라를 세워 300년 동안이나 중국을 다스렸던 만주족, 10세기에 동북지방을 호령하였던 거란족, 라마불교와 티벳문자를 사용하였던 티벳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주변에서 한족이 지칭한 오랑캐족(동이, 서융, 남만, 북적)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 베트남, 몽고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총체적 문화수준으로 정체성을 유지한 결과이다.

한국의 찬란한 기록문화 전통은 1910년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단절되었다. 자기 민족이 국가경영을 스스로 해가지 못함으로써 이전의 역사적 전통은 끊어졌던 것이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기록문화의 전통을 다시 되살리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공공기록관리의 정비' 를 통하여 정부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에 공공기록관리의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참여정부는 전자기록시스템의 정비,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와 기록연구사의 배치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갔다.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한국기록관리제도가 중앙정부기관에서 지방정부기관으로 확대되고, 다시 민간분야(기업, 대학, 종교단체 등)로 확산되어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함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투명화, 선진화를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 후손들에게 훌륭한 기록문화 유산을 남겨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국사회가 인류사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 **필자 소개**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이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다.

'기록으로 여는 희망세상'

제3회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2009. 5. 23 (토) 14:00~18:00 | 정부대전청사























제3회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시상식

2009. 6.17(수) / 국가기록원







제3회 '기록으로 여는 희망세상'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글쓰기 부문

	구 분	소 속	성 명
초등부	금 상	용전초 2	오한솔
	은 상	둔산초 5	김민정
	은 상	와동초 5	염지현
	은 상	글꽃초 1	반민정
	동 상	지족초 4	허건희
	동 상	둔산초 6	전소미
	동 상	외삼초 5	황지현
	동 상	한밭초 6	황지우
	동 상	문정초 5	최민서
	특별상(대전시장상)	샘머리초 6	박소현
	특별상(대전시교육감상)	한밭초 5	김효주
중등부	금 상	삼천중 3	윤준영
	은 상	대전맹학교 3	박준범
	은 상	삼천중 3	이지민
	은 상	회덕중 2	홍수진
	동 상	만년중 2	황지민
	동 상	두리중1	김수진
	동 상	회덕중 2	최희주
	동 상	문화여중 3	박혜연
	동 상	송촌중 3	김경은
	특별상(대전시장상)	송촌중 3	조민경
	특별상(대전시교육감상)	삼천중 1	조윤하
고등부	대 상	호수돈여고 2	최지연
	금 상	호수돈여고 3	이경희
	은 상	충남여고 2	강성민
	은 상	보문고 1	이창주
	은 상	중앙고 1	이승재
	동 상	전민고1	옥현진
	동 상	대전외고 2	한수지
	동 상	동대전고 1	임선경
	동 상	청란여고 3	백수경
	동 상	전민고 1	신진영
	특별상(대전시장상)	둔산여고 2	김정민
	특별상(대전시교육감상)	둔산여고 2	장수지
일반부	대 상	대전청사관리소	박은규
	금 상	와동초 교사	이윤재
	은 상	숭실대 불문과	김준형
	은 상	일 반	박미혜
	동 상	일 반	신아영
	동 상	일 반	김은이
	동 상	일 반	박경선
	동 상	일 반	한재박
	동 상	한국방통대	전향숙
	동 상	일 반	김봉경

●● 그리기 부문

	구 분	소 속	성 명
초등부	대 상	샘머리초 4	강수진
	금 상	가장초 2	윤예빈
	은 상	삼성초 5	송은아
	은 상	둔산초 6	조유나
	은 상	동대전초 2	이아형
	동 상	백운초 2	유예찬
	동 상	원평초 6	김나연
	동 상	유성초 1	김수빈
	동 상	법동초 4	구동의
	동 상	샘머리초 6	전성우
	특별상(대전시장상)	한밭초 3	최정인
	특별상(대전시교육감상)	내동초 3	이효희
중등부	금 상	가평청심국제중 2	강창우
	은 상	두리중 3	김예지
	은 상	보문중 3	윤미르
	은 상	동신중 2	금소현
	동 상	삼천중 2	김유진
	동 상	보문중 2	서재원
	동 상	만년중 3	김소연
	동 상	남선중 1	최주희
	동 상	괴정중 1	김다해
	특별상(대전시장상)	느리울중 1	김지연
	특별상(대전시교육감상)	호수돈여중 3	박유리
고등부	금 상	둔원고 1	이지연
	은 상	동대전고 1	이슬기
	은 상	동방고 2	안신영
	은 상	대전국제통상고 3	최보람
	동 상	동방고 3	문현주
	동 상	동신고 1	이지용
	동 상	대전국제통상고 3	한지희
	특별상(대전시장상)	대전맹학교 1	정주미
	특별상(대전시교육감상)	대전국제통상고 3	정래숙
일반부	은 상	공주영상대	김희웅
	은 상	서울예술대	최영순
	은 상	청주대	정예원
	동 상	대전 가수원동	이화진
	동 상	대전 만년동	박미라

기록관리 표준 포럼

▶ 일 시 : 2009년 6월 3일(수) 10시~16시
▶ 장 소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대강당

●● **호주의 전자기록관리(EDRMS) 표준화 현황** >> 바바라 리드| 호주 레코드키핑 이노베이션 대표

●● **뉴질랜드의 기록관리(RMS) 표준화 현황** >> 그렉 골딩 | 뉴질랜드 국가기록원 정부레코드키핑부 그룹매니저

●● **기록관리 표준화의 재구축 방향** >> 설문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호주의 전자기록관리(EDRMS) 표준화 현황

메타데이터 생산 ·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바바라 리드 | 호주 레코드키핑 이노베이션 대표



호주의 경험 및 접근 방향

레코드키핑(Recordkeeping)은 수많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레코드키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및 공간, 인적 · 물적 자원이 소요된다. 또 어떻게 레코드키핑을 수행할지는 문화적 풍토에 달려 있다. 호주가 지닌 식민 유산은 먼 과거의 것이지만, 정부체제, 업무 수행방식(그리고 레코드키핑 방식) 및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호주 공공영역의 레코드키핑은 매우 큰 편차를 지닌다. 어떤 기관은 수행 업무와 통합된 전자레코드키핑시스템을 가동하지만, 어떤 기관은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을 동시에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환경 하에 있다.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는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존재치 않아, 여전히 전자기록을 종이에 출력 관리하는 실정이다. 호주의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및 수행능력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호주의 과거와 현재는 기록 및 업무 처리행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기록은 업무의 일부로 보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이다. 업무 처리행위 및 그로 인해 생성된 기록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며, 전자적 환경에서는 이 양자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과 처리행위 간의 관계가 핵심 사안이다. 기록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행해진 업무와 분리되거나 더해질 수 없다. 문서(Documents)와 기록(Records)은 서로 다른 절차에 있지만 결국은 동일하다.

또한 기록은 다양한 목적, 즉 업무의 시작 단계에서 필요하고, 수행된 업무에 대한 설명책임의 도구로, 처리행위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보호수단으로, 그리고 사회 및 문화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필요성은 기록의 생산단계 이전부터 기록을 관리할 시스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영구보존(업무 처리행위와 상관없는 외부인들이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을 위한 기록의 지속성(Sustainaility) 및 확고성(Robustness)의 확보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기록

디지털 기록은 종이기록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면서도,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닌다. 동일한 성격이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확고한 기록(처리행위에 대한 증거)을 생성시켜야 한다는 면에서이고, 다른 점은 기록을 관리하는 포맷, 기술, 방법들이 종이세계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록은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로 구성된 구조물이다. 먼저 기록물의 내용은 행해진 처리행위에 관한 데이터이다. 일련의 데이터를 기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것의 성격 일부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기록의 데이터 행위가 수행되었을 때와 동일하며, 변경 되지 않으며, 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공간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래의 업무 처리행위에 참여하고 기록으로 획득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현재 우리는 이것을 '기록 객체'(Record Object)라 부른다.

하지만 본래의 내용 말고도 기록이 지녀야 할 보다 많은 것들이 있다. 기록 객체를 누가 언제 어떠한 행위의 과정 속에서 생산했는지를 알려주는 업무 맥락 가운데에서 획득할 필요가 있다. 본래의 기록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는 기록 객체와 연동하여 파악해 관리해야 할 데이터 집합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획득 시점 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어떤 시스템에서는 이를 '문서 프로파일'(Document Profile) 메타데이터라고 함)라고 칭한다.

신뢰성 및 진본성을 지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타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기록이 본래 의도한 취지와 맞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것이 적절하게 관리되어 왔는지, 레코드키핑 프로세스가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이 시간을 지속하며 관리되어 왔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레코드키핑 프로세스 메타데이터'라고 부른다. 레코드키핑 프로세스 메타데이터는 기록 객체가 존속하는 한 기록관리의 일부로 축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메타데이터는 훨씬 복잡한 측면을 지닌다. 기록 메타데이터를 일련의 관계(Relationship)로 표현하면, 이것은 기록 객체 및 기록 객체를 가지고 상호 작용한 사람(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한) 간에 설정된다.

일단 기록 객체 및 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기록을 획득 · 관리할 개연성이 창출되고, 그동안 종이세계에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인, 레코드키핑에 관해 계승되어 왔던 지식의 대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록을 정의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것은 현재(또는 앞으로)의 핵심 업무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생산토록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이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적절히 생산 · 관리하는지 어떻게 검증해야 할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필요성들을 정의해 왔을까? 등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인 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는 기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동일한 속성을 지닌 세트 내지 데이터의 패키지끼리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는 생산이나 검색에 초점을 맞춘 메타데이터와는 다르다. 물론 이들 메타데이터 요소들과 중첩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들의 초점은 레코드키핑이다.

레코드키핑(Recordkeeping)

일반적으로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라는 용어는 기록의 생명주기 이론에 의하여 기록생산 단계(Recordmaking System)와 기록관리(보존) 단계(Recordkeeping System)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레코드키핑(Recordkeeping)을 '기록관리' 또는 '기록보존'으로 번역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기록보존이라는 개념보다 기록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하여, 원문에서는 Records Management와 Recordkeeping의 개념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오역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는 '기록관리'로, 후자는 '레코드키핑'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다.(편집 주)



무엇을 해왔는가?

호주에서도 이러한 메타데이터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매우 활동적으로 임해왔다. 호주는 상위 레벨에서 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를 설명해주는 ISO 23081의 개발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최근 '호주 표준 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요소'(Australian Standard Recordkeeping Metadata Element)를 지정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국제표준 요건과 함께 호주의 레코드키핑 전통을 따라 메타데이터가 각 조직의 기록시스템 · 업무시스템 · 기록관리 전담 시스템 · 영구보존시스템 등 현 기록 시스템 하의 어떠한 레코드키핑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기록을 생산 ·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 환경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필요할 때 시스템 간에 기록이 이동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에 표준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시스템 설계 및 구축자들에게 어떠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며 왜 이것을 획득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야만 오랜 시간에 걸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생산해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며, 어디서 수행되는가?

우리는 1990년대 초부터 종이 세계에서 수행해 온 우리의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인식했다. 레코드키핑 표준 개발 과업은 우리가 추진해 온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와 맞물려 호주의 공공기록 관련 법령들 역시 개정작업을 추진했다. 레코드키핑 표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호주의 조직들이 레코드키핑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 규정 및 업무방식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주로 생산 시점부터 기록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으로 획득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일단 기록을 획득한 다음, 오랜 시간동안 기록을 유지할 시스템 수행 능력을 확보한다는 발상에 기초한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환경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것은 기록관리 및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 영역이다.

소프트웨어 1세대(1985년경~1994년)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1세대 시스템은 종이기록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전자 메타데이터 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종이기록 관리의 자동화라 할 수 있다. 기록 대부분은 상위의 시리즈로 통합될, 종이 기록철 형태로 존재하였다. 전자 메타데이터 시스템은 종이기록의 등록 · 분류 · 처분 및 위치 확인과 같은 관리조치들을 도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호주 자체 내의 기록관리 업무 토양에서 개발된 것이다. 호주에서 개발된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TRIM과 RecFind가 있고, 캐나다에서 개발된 것으로는 Provenance를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 2세대(1994년경~2008년)

아마 1994년 전후로 등장하기 시작한 2세대 소프트웨어는 이전 세대의 소프트웨어에 비해 보다 많은 기능 수행을 의도하였다. 2세대 시스템은 기록이 전자적 형태로 생성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우리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스라든지 스프레드시트 등으로 문서를 만들었다. 이메일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실질적 문제가 되었다.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통제 시스템을 자동화시킴으로써, 또한 전자기록 자체를 위한 저장 능력을 제공함을 통해 1세대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을 강화시켰으나 통제 메커니즘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종이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등록 · 분류 · 처분의 자동화가 여전히 레코드키핑상의 핵심적인 기능이었다. 이 외 추가적으로 전자기록은 소프트웨어의 통제 하에 개별적인 기록 저장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문적인 기록관리자를 위한 도구는 아니었으며, 개인용 PC에 탑재되어 업무자에게 기록관리의 초기 작업(등록 및 분류 등)을 일임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전문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기록관리전문직에게는 익숙하지만 최종이용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서식을 사용하며, 최종이용자인 업무자에게 이전시켰다는 점이다.

우리는 최종이용자인 업무자에게 메타데이터를 생산하고 기록에 대한 상세 템플릿을 채우며, 기록 간의 논리적 연계관계를 생성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이용자는 이것들을 싫어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업무와는 별도의 부담이고 시스템은 어려우며, 아울러 짜증나는 서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업무를 중단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불평한다.



소프트웨어 3세대 (2008년~)

최근 호주에서는 3세대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2008년 무렵부터 등장한 이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닌 콘텐츠 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이라 불린다. 호주에서 개발된 것이 아닌 기록관리 전통이 다른 미국의 회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Documentum, Vignette, Open Text 등의 제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제품들에서 레코드키핑은 부차적인 기능으로 간주되며, 보통 처분절차의 관리나

컴플라이언스 이슈 정도만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기록관리 표준이 간행된 이후였으며, 따라서 시스템 설계자들은 기록관리 표준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시스템의 우선적 주안점은 시스템 이용 상의 이용자 고통을 최소화시키는데 있다.

바로 이 3세대 소프트웨어가 현재 호주에서 이용되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조달할 수 있지만 구매해 도입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며, 조직 전체에 걸쳐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행상의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 이들 시스템의 특징은 전자기록관리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지각색의 소위 구조화되지 않은 기록(외부처리행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과 함께 이메일 · 블로그 · 웹페이지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을 획득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여전히 바람직한 기록시스템이 아니다. 이는 진정한 디지털 기록관리를 위한 시작 단계에 있는 것으로, 업무상의 당면 목표나 이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정보의 공유 및 교환, 연계 및 재사용 기능을 제공해 주고, 또한 기록관리의 일부 측면인 검색 및 탐색 기능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을 뿐이다.

이 시스템들은 문서 작성 및 공유, 간행 등과 같은 업무적 필요 충족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들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기록의 관리는 시스템 설정에 따라 좌우되는 상당 정도의 유연성에 달려 있다. 하지만 시스템은 민간기업의 제품으로, 기록은 해당 기업 소프트웨어의 통제 하에 있는 저장환경에서 생산 · 저장되게 된다. 기록 객체는 여전히 사적 시스템 내에 갇혀 있고, 기록의 속성 역시 사적 소프트웨어에 의해 좌우된다. 기록은 마이그레이션이나 기타 조치를 위해 시스템 밖으로 쉽게 이전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기록관리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 설계 시 시스템 설계자들이 참조하는 것은 레코드키핑 관련 표준이 아닌, 각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능 요건들이다. 이에 우리는 시스템 설계자들에게 유럽연합의 MoReq이나 미국의 DoD 5015.2 표준, 영국 TNA의 기능규격 활용을 권고한다.

2세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3세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기술상의 수준 가늠을 넘어 우리 레코드키핑 전문가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기록의 활용기간은 보통 장기간으로, 기록을 생산한 시스템의 수명보다 길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기록의 장기간에 걸친 유지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기록은 다른 환경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종이 시대에 기록관리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이관했던 것처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 시스템은 디지털 기록의 생산 및 초기단계의 관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록의 유지성(Sustainability) 상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현재 무엇이 가능한가?

시스템에서의 메타데이터 역할은 전문직 세계에서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레코드키핑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표준이 수립된 것에서도 실제 수행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시스템 설계자들은 메타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시키지 않는다. 메타데이터 적용은 시스템 설계상의 옵션 사항이라고 생각들 하기 때문이다. 메타데이터 표준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은 시스템 내에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일종의 체크리스트로서 활용하는 것이었다. 가장 최근의 메타데이터 표준에서는, 시스템 구축 시점에서의 시스템 설정을 통해 표준을 수행하는 방식을 안내한다. 하지만 시스템 업체들은 여전히 표준의 적용에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그룹은 메타데이터 수행의 필요성을 더욱 진전시켜 왔다.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는 디지털 레코드키핑 모색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였다. 여기에는 기록의 개념과 함께, 어떻게 디지털 세계에서는 레코드키핑 산출물을 이전과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재검토가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모나쉬대학교의 'Clever Recordkeeping Metadata' 프로젝트는 상호 운용성 기술로서 다양한 메타데이터 요소의 번역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와 웹서비스를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이용 방법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론은 현재의 메타데이터 표준은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였고, 그 프로세스 역시 충분히 구조화되지 못했으며, 우리들의 통제 도구는 인간 해독을 위해 만들어졌지 자동적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현재 레코드키핑 수행 골격으로서의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를 위한 기술적 환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엄격하게 한정된 메타데이터는 있으면 좋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키텍처 작업 수행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레코드키핑 도구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예비적인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 레벨에 대한 고려

종이기록의 경우 통제 단위는 기록철 및 시리즈와 같은 집합체였다. 왜냐하면 기록철 및 시리즈는 수기 방식으로 실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레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자동화된 디지털 세계에서는 보다 하위의 레벨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장위치 보다는 통제가 중요

저장위치의 개념은 아무 상관없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록에 대한 접근 및 권한 통제가 핵심적 사안이다. 저장환경이 인증되고 필요 시 언제라도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기록의 속성이 확보되는 한, 기록은 생산시점부터 생산조직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저장될 수 있다. 이것은 특정 시점에 기록이 이관되어야 하는 종래의 개념을 급격히 와해시키고 있다.

자동화가 핵심

디지털 세계에서는 모든 기록관리 행위들이 자동화됨과 아울러 자동적으로 기록관리 조치들이 개시되어야 한다(승인 절차를 기반으로). 따라서 우리는 개시 일자, 규칙 및 충족될 필요가 있는 조건을 명시한, 컴퓨터 기반 규칙을 통해 적용되는, 모든 트리거 시점(Trigger Point)을 파악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록의 규모 및 양을 감안할 때,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평가 또한 명확하게 정의된 수행 가능한 규칙을 기반으로 컴퓨터를 통해 행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프로세스의 필요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더욱 명확한 접근 및 보안 승인뿐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및 진본성 보증과 같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신설되어야 한다. 어떠한 수기 방식의 관여도 디지털 기록의 관리에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다.

디지털 아카이브란?

우리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을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생각할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신뢰성 있는 저장소의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물리적일 필요가 없으며 이관에 기반을 두지도 않는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서로 다른 시점에 수많은 시스템이 연계되어 접근승인 계층들을 통해 구현되는 가상의 구조화된 공간이다. 디지털 기록은 외부의 이용자가 해당 기록을 활용하기 위해 3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보공개법과 같은 장치를 기반으로 열람이 승인된다면, 바로 그 시점에서 공공접근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레코드키핑에 대한 사고 전환

우리는 레코드키핑을 단순한 일련의 연속적인 프로세스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모든 업무 절차의 기반을 이루고 업무절차와 상호작용하는 근본적인 조직적 및 사회적 기반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디지털 기록을 예전의 종이기록처럼 기록철 내지 시리즈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기록은 아이템 단위 내지 보다 낮은 집합체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

통제도구에 대한 재검토

우리들의 통제도구는 보다 낮은 수준의 디지털 기록 집합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들의 분류체계는 너무 높은 레벨을 다루고 있고, 처분 및 보유지침 역시 효율적으로 자동화시키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범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는 메타데이터와 기록 객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도 또는 분리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수행 상의 선택 문제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기록객체에 레코드키핑 절차를 적용시킨다면, 메타데이터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시킬 수 있다.

마치며

우리는 최근의 디지털 세계에 부합하는 일련의 레코드키핑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의 근본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나는 우리들의 레코드키핑 실무가 핵심적이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구성요소라는 점에 대한 강력한 개념적 이해이다.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록이 필요로 되는 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예전과는 다른 기술적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는 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이다. 현재 호주에서 디지털 레코드키핑에 대한 전망은, 길의 입구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먼 여행의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 필자 소개
호주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교육관련 회사인 레코드키핑 이노베이션의 대표로 기록, 정보, 영구기록물 관리분야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뉴질랜드의 기록관리(RMS) 표준화 현황

전자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그렉 골딩 | 뉴질랜드 국가기록원 정부레코드키핑부 그룹매니저



들어가며

뉴질랜드의 정부 구조는 상당한 유연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각 기관은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아울러, 각 기관의 필요에 부응하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은 소속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며 상당한 자치권을 지니는 관계로 인해, 통일화된 정부행정시스템이나 업무분류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기록이 적절히 생산, 관리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선도(Influence), 요건 수립(Set Requirements), 지원(Support), 감시(Monitor) 및 피드백(Feedback)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Influence)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근저를 형성하는 전략은 각 기관 스스로 레코드키핑 수행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어떠한 단일 기관도 모든 정부 영역의 기록물들을 관리할 책임을 지니지 않는다. 모든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떠한 단일 기관도 통일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책임을 지니지 않는다. 기록물은 각기 상이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의 책무는 현용기록관리에 대한 지도 및 안내를 제공함과 더불어, 영구보존 대상을 보존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요건 수립

1. 법률적 골격

뉴질랜드 공공기록법은 1957년에 제정된 기록관리법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핵심적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정부의 행위 내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생성시키고 필요시 언제라도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정부의 설명 책임을 제공
- 위와 동일한 원리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기관의 설명 책임을 제공
- 정부의 정보인프라에 대한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
- 역사 및 문화유산을 창출

디지털기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저장매체의 급속한 사양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디지털기록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기록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 부족은 새로운 법령 제정의 이유 중 하나이다.

뉴질랜드 공공기록법은 정부 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요건들을 명시하였는데,

- 기관은 완전하면서도 정확한 기록물을 생산 · 유지함과 아울러, 필요하다면 이러한 기록물들을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함
-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장의 승인 후에만 처분(폐기 내지 기록보존소 이관)될 수 있음

위와 같이 두 가지의 요건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의 요건 충족을 돕기 위해, 공공기록법은 국가기록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 레코드키핑 관련 의무표준 내지 선택표준 등을 수립
- 레코드키핑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
- 기록물 처분지침을 승인
- 각 기관의 레코드키핑을 보고토록 지시
- 각 기관의 레코드키핑시스템을 감시
- 정부 내 모든 기관의 레코드키핑 감사를 매 5년마다 실시
- 의회에 정부의 레코드키핑 현황을 매년 보고(특히 각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2. 표 준

공공기록법이 통과된 이래,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는 세 가지 의무표준과 두 개의 선택표준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의무표준은 모든 정부 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 S2(물리적 기록물의 저장을 위한)저장 표준(Storage Standard[For Storage of Physical Records])
- S7 레코드키핑 생산 및 유지 표준(Create and Maintain Recordkeeping Standard)
- S8 전자레코드키핑 메타데이터 표준(Electronic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

'생산 및 유지 레코드키핑 표준'은 여타 표준들의 기본이다. 이는 최선의 레코드키핑을 위한 고차원의 요건을 제시하며, ISO 15489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기타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 개발된 모든 표준들은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며, 세부 영역에 맞추어 더욱 상세한 요건을 제시해 준다.

의무표준을 발간하기 전,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은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할 모든 기관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였다. 이 과정은 해당 표준이 얼마나 유용하며, 또 얼마나 쉽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의무표준은 '최선의 실무방식'(Best Practice)보다는 '양호한 실무방식'(Good Practice) 수준으로 수립하였다. 만일 최선의 실무방식 수준으로 표준을 수립하게 되면 비현실적이기 쉽고, 또 전체 표준 프로그램의 신뢰도 역시 저하시킬 수 있다.

모든 표준이 의무표준은 아니다.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는 의무표준보다 훨씬 최선의 실무방식 수준을 반영한 선택표준 역시 간행하고 있다. 의무표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준들은 각 기관

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데 2006년 발간되어 현재 점검 중인 '전자레코드키핑시스템 표준'(Electronic Record keeping Systems Standard)이 그러한 경우이다.

지 원

1. 정보, 조언, 교육 및 네트워크

법령 및 표준을 통한 요건 수립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레코드키핑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실제 레코드키핑을 수행하는 주체는 각 기관이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레코드키핑 수행 능력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진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각 기관의 레코드키핑 업무를 돕기 위해,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는 지침서를 간행한다든가 또는 소규모의 자문팀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 공공기록법 소개
- 메타데이터 표준 수행 방법
- 평가 및 기록보존소 이관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는 각 기관의 기록관리 실무자들이 서로 만나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레코드키핑 네트워크의 출범을 돕고 있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현재의 이슈를 발표하는 레코드키핑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특정 관심 그룹에 대한 지원 역시 수행한다.

2. 평가 및 처분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은 '일반처분지침'(General Disposal Authorities)을 제정하여, 인사기록, 재무기록, 서무기록 등과 같은 모든 기관에 공통적인 기록물의 처분을 돕고 있다. 각 기관은 국가기록원장의 사후 승인 없이 일반처분지침을 자체 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처분지침이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이나 기타 기록을 생산하는 업무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 및 보고

공공기록법은 모든 기관이 매 5년마다 레코드키핑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감사는 2010년 7월에 시작되어, 향후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이에 각 기관은 얼마나 스스로의 레코드키핑 의무사항들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감사 결과는 의회에 보고될 것이다.

PRA Audit Approach

공공기록법 / 의무표준	기능적 업무영역	속 성	증 거
■ 공공기록법은 기본적 수준의 준수 요건들을 수립함 ■ 표준은 보다 상세한 기능요건을 수립함	**8개 영역** ■ 계획 ■ 자원조달 ■ 교육 ■ 보고 ■ 생산/획득 ■ 접근/보안 ■ 유지/저장 ■ 처분/이관	**3개 수준** 레코드키핑 능력 개발 수준을 용인 ■ 시작 ■ 수립 ■ 능력향상	■ 재현적(Representative) 또는 직접적(indicative) ■ 전체(정책) 또는 일부 표본(프로세스)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감사

하지만 감사는 각 기관을 '통과' 내지 '부적격'으로 평가하는 업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감사는 종국적으로 기록관리자들이 각 기관의 레코드키핑을 개선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레코드키핑 상의 8개 기능 영역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 계획(Planning) ■ 자원조달(Resourcing) ■ 교육훈련(Training) ■ 보고(Reporting)
■ 생산(Create) · 획득(Capture) ■ 접근(Access) · 보안(Security)
■ 유지(Maintain) · 저장(Storage) ■ 처분(Disposal) · 이관(Transfer)

이러한 기능 영역의 각각에 대해 각 기관은 스스로의 달성 정도를 세 개의 기준('시작'(Initiation), '수립'(Establishment), '능력향상'(Improving Capability))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는 각 기관이 도달한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감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감사는 각 기관의 레코드키핑 수행 내역 및 준수 절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각 기관의 레코드키핑 문화 구축과 더불어 정부 전 영역에 걸친 레코드키핑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게 된다.

전자기록관리의 일부 현황 지표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은 2005년 이래 정부 영역의 레코드키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공공기록법에 명시된 대로 이를 의회에 보고해 왔다. 2008년에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정부 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전자기록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응답 기관의 53%는 더 이상 접근 불가능한 디지털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대개 문서가 적절한 제목이나 메타데이터 없이 저장되었거나, 기록을 생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데에서 연유한 결과이다. 또한 기록물이 사양화된 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연유 중 하나이다.
- 응답 기관의 49%만이 전자문서의 생산 및 파일링을 위한 절차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사항은 뉴질랜드에서 전자기록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영역에 걸친 기록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않는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뉴질랜드 국가기록원과 다수의 기관이 현재 의미 있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록관리시스템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는 특정 관심그룹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 출범된 '전자문서기록관리 관심그룹'(Electronic Document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Interest Group)도 그 중 하나이다. 이 그룹은 정부 기관에서 디지털기록 관리의 책임을 담당하는 100명 이상의 기록전문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이 그룹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내의 디지털 레코드키핑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일정 형식의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일화된 시스템이 없이, 각 기관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구매·설치해 사용함으로서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수많은 시스템이 사용되게 된 원인을 진단하였다. 2007년에 실시된 상기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서는 최소 38개 이상의 전자레코드키핑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에 48개의 정부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21개의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이 현재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7개 시스템이 특정 회사들이 만든 특화된 시스템으로 전자적 객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 이상의 직원을 지닌 어느 한 기관의 사례를 보면, 7개의 전자문서기록관리 시스템이 조직 내에서 동시에 가동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 표본인 72개의 공공 기관에서 20개의 특화된 전자문서기록관리 시스템이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다.

조사 참가자들은 이들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기록물이 관리하는지 응답하였다.

아울러 조사 참가자들은 소속 기관의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선정 및 수행에 각종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준은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 제정한 전자레코드키핑시스템 표준으로, 72개 기관 중 42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또 41개 기관은 이 표준이 '매우 유용' 내지 '그럭저럭 유용'하다 설문하였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해외 표준으로는 유럽연합에서 간행한 MoReq 표준을 들었다.

아래의 조사 결과로부터 얻게 된 결론 중 하나는, 42개 기관에서 21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시스템 선정 상의 협력 체제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별 기관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시스템 선택을 했던 초기의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경쟁은 항시 사회의 건강성을 가져다주지만, 한편으로 각기 다른 시스템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산된다는 단점도 준다. 이는 정부 기관들 간 시스템 활용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앗아가 버리며, 아울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기회를 제약시켜 종국적으로 그 안에서 생산, 관리되는 기록물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에서 어떠한 정보/기록이 관리되고 있습니까?(해당 란에 모두 표시)

Email	15%	62
Paper Records	12.1%	50
Ministerial Records	7.5%	31
Implementation of Organisations retention and disposal policies	12.1%	50
Electronic Word Processing Documets	15.8%	65
Electronic Spreadsheets	14.1%	58
Electronic Presentations	14.8%	61
Data or Records from another System	7.8%	32

2008 eDRMS Interest Group Survey of Member Agencies

영구보존 대상 전자기록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에서는 임시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개발해 왔다. 이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인 페도라(Fedora)에 기반을 둔, 완벽한 기능성을 지닌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하지만 향후 이관될 방대한 양의 디지털 기록 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기능 요건 및 관련 비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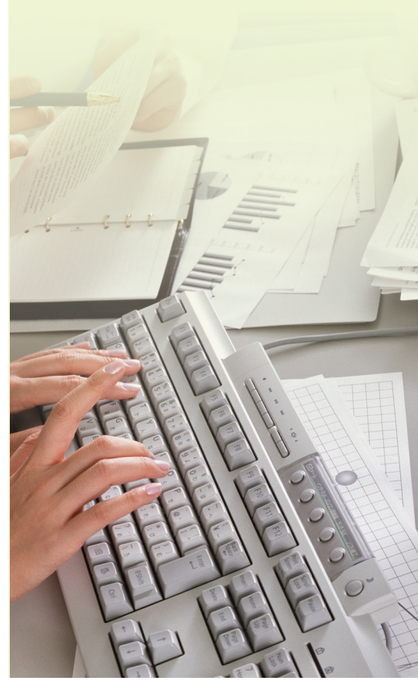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의 또 다른 고려사항은 어떠한 시점에서 이관을 받을 지와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영구보존 기록물만을 이관 받을지 아니면 준·현용 단계 기록물의 중앙 저장소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할지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은 대답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연속성 실천계획(안)

뉴질랜드 국가기록원 및 정부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들은 디지털 레코드키핑 상의 보다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 전 정부 영역에 걸친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준 수립 및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달성될 것 외에,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보급하기 위해 기관들 간의 협력 작업 역시 요구되는 것이다.

디지털 연속성 실천계획(안)(Draft Digital Continuity Action Plan: 이하 DCAP로 약칭)은 이에 대한 응답이다. DCAP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각 기관의 레코드키핑 문제를 기관 독자적으로만 다루어 타 기관의 동일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잃게 되며, 더불어 경비 지출을 중복적으로 하거나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매해 별로 활용치 않게 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DCAP는 합의된 산출물 생성을 목표로 기존의 프로젝트와 계획 예정인 프로젝트의 조화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DCAP는 **"공공 영역의 디지털 정보는 현재 및 미래에 필요할 때 믿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간명한 목표(Purpose Statement) 아래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 **필요한 기록물이 존재토록 한다** : 공공 영역의 디지털 정보는 필요로 할 때 접근 가능하도록 유지될 필요가 있다. 어떤 정보는 단지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만 필요하다. 전체 디지털 정보 중 일부만이 미래의 활용을 위해 수 십 년 내지 영구적으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
- **진본성과 신뢰성** : 공공 영역의 디지털 정보는 고의적인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능해야 하고, 디지털 기술 재산권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디지털 정보는 진본성과 신뢰성을 지녀야 한다.
- **믿을 수 있는 접근** : 뉴질랜드 국민들은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 영역의 디지털 정보를 검색해 활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감한 정보는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보호됨을 확신한다.
-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 만일 어떠한 행위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공공 영역의 디지털 정보는 유실될 것이다. 공공 영역은 미래를 위한 디지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DCAP 실천과제(Actions)

DCAP에서는 취해질 필요가 있는 다양한 행위를 제시해준다. 이러한 행위 중 표준의 개발과 같은 일정 행위는 이미 수행되었다. 기타 DCAP에서 제시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적절한 업무정보시스템 설계 및 조달을 지원한다

이는 업무정보시스템, 특히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의 설계, 선정, 수행 및 폐기 시, 지원 메커니즘, 표준, 자문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DCAP 자체는 가안 상태이지만, 이러한 활동은 각 부처 장관의 우선 정책 중 하나로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이 책정하여 2009년과 2010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각 기관의 시스템 선정 및 수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시스템이 잘 활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기록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업무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 없이 값비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만일 기관에서 시스템 운영으로부터 업무적 이익을 얻게 되지 못한다면, 종국적으로 기록관리는 업무적 이익을 제공치 못하는 영역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2. 장기간 유지 필요와 가치 높은 디지털 정보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공공 영역의 기능 및 활동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이어 가장 높은 가치의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들을 적절히 관리할 재원 및 능력을 지니지 못한 기관을 파악하는, 우선순위 책정(Prioritisation)이 수행된다.

3. 공공영역 디지털 정보의 '위험 영역'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각 기관에서 사용된 데이터 포맷, 플랫폼 및 저장매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유실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공공영역 전체의 디지털 연속성에 대한 단계적 접근 기반을 제공해줌과 아울러, 부족한 재원 및 전문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나오며

지금까지 뉴질랜드 정부의 기록관리 체제 전반에 대해 말하였다. 이러한 기록관리 체제는 2005년 제정된 공공기록법 및 법을 근간으로 수립된 표준 골격 내 기록을 관리할 자원의 선택권한을 지닌 각 기관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표준의 수립과 함께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이 담당하는 역할은 각 기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의 기록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돕는 지원 및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기록은 특별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전자적 정보가 현재 및 미래에 필요할 때 진실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있어야 한다는 DCA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많다. 그 중에는 각 기관에서 서로 다른 광범위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엄청나게 이관될 디지털 기록을 관리할 디지털 아카이빙 기능을 보다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IN



● **필자 소개**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부서 책임자이며, 기록관리 국제표준 전문위원회(ISO TC46 SC11)에서 기록물의 디지타이제이션의 표준화를 다루는 WG10의 의장이기도 하다.

기록관리 표준화의 재구축 방향

설문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2005년 이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혁신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이러한 '위로부터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해방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던 주먹구구식의 관리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이행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표준화의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12월에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관리혁신의 일환으로 기록관리 표준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짧은 기간 동안 기록관리 전 과정과 관련한 50여 개의 표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기록관리의 수준과 환경은 많이 달라졌으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2005년 기본계획에 대한 의거한 표준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토대로 전략을 새로 구축할 때가 왔다. 2005년 수립된 계획은 시행되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수요자 집단의 피드백에 근거한 평가 ·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지금보다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표준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표준화 사업을 평가하고 표준화 전략을 새롭게 재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준현용기록관리 표준화의 현황과 평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공공기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표준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이 비로소 마련되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시행 의무, 표준화 분야, 제 · 개정 절차 등이 규정되었다.

2005년 12월에 국가기록원에서 수립한 기록관리 표준화 기본계획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50개의 표준과 규격이 제정되었다. 현재 기록관리와 관련된 표준으로는, 국가표준 5개, 공공표준 29개, 원내표준 21개 등 총 50개의 표준과 규격이 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표준화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은 2007년에 기록관리 표준화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며, 2009년에는 2005년 이후 추진되어온 표준화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선안은 표준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장기 표준화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표준화 정책과 사업을 옆의 표와 같은 영역을 고려하되 표준화 대상 선정의 적절성, 전자기록환경에의 대응성, 표준문서의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의 적절성, 표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절차와 조직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1. 표준화 대상의 체계적 선정

표준화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측면은 무엇을 표준화 하였는지의 문제이다. 어떤 분야의 표준화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위한 체계적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을 비롯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여러 기술 분야에서는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해당 분야의 기술들을 분류하고, 표준화 맵을 개발하여 대상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 기록관리 표준의 영역 구분은 애매하여 앞으로 필요한 표준들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표준이 더 필요한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영역이 애매하여 표준들 간의 내용 중복이 많다는 점이다. 가령 '기록관리기관'이라는 영역은 '기록관리업무'와 경계가 모호하며, 실제 양 영역에 속하는 표준들의 내용들 중에는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

2. 전자기록관리 환경의 대응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 환경에서, 다양한 전자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이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관리 ·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표준과 지침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2007년도 말부터 2008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올해는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도립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들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 평가에 고려한 측면

평가영역	평가 측면
내용영역	■ 표준화 대상의 체계적 선정 ■ 전자 환경에의 대응력 확보 ■ 개발 우순순위 고려 ■ 표준의 내용 수준 제고 ■ 표준 간 연계 확보
절차영역	■ 표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절차 ■ 이해관계자 요구반영과 참여 절차
정책/제도 영역	■ 표준문서 유형별 관리 체계 ■ 표준의 사후 평가와 현행화 ■ 표준담당부서의 역량 ■ 국가표준화 정책

둘째, 전자문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 등 기록물 생산시스템과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연계되며, 생산시스템의 기록물이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이관된다.

셋째, 각 행정부처의 기록관리시스템에서 30년 이상 보존가치가 있는 전자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이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중앙행정부처의 기록관리시스템들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통합검색시스템과 웹서비스 방식으로 연계되어 모든 행정부처의 준현용, 비현용 기록물들에 대한 원스톱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준현용단계의 기록관리단계에서도 장기적 접근성과 보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생산시스템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은 문서보존포맷과 장기보존포맷으로 전환하여 보존하도록 보장하는 모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환경에서 전자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된 표준들이 다음과 같이 개발되었다.

-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 (NAK-P-2007-06)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현용 · 준현용 기록물용 (NAK-P-2007-11)
-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NAK-P-2008-01)
-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NAK-P-2008-05)
-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NAK-P-2008-02)
-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NAK-P-2008-06)
- 기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간 연계데이터 규격 (NAK-P-2007-07)
-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규격 (NAK-P-2008-14)

이들 표준들을 살펴볼 때 문서 중심의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보급 · 유지하기 위한 표준들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기록관리 관련 표준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지침이 없어서 표준 제정의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둘째, 다수 기관에 보급될 표준 시스템이 먼저 설계되고 표준이 제정된 경우가 많아, 표준이 특정 시스템에 귀속되는 특성을 띠는 등 표준 개발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이다.
셋째, 단기간 내에 많은 표준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조정 및 연계가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표준들의 경우, 시스템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표준 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3. 표준의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

현재 기록관리 표준을 국가표준, 공공표준, 원내표준으로 구분된다. 국가표준은 "민간 · 기업 · 금융기관 · 교육기관 · 연구소 · 정부 부처 등 국가 전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을, 공공표준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하는 표준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원내표준"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국가기록원장이 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이 세 가지의 표준의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표준이 적절한지는 우선 적용범위 즉 독자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표준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기관들까지 그 적용대상을 삼는다면, 개발 방식과 의견수렴 절차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선방안에서는 원내 표준들을 대폭 지침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많은 원내표준들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표준과 지침, 그리고 원내표준은 그 내용과 관리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갖는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9년의 개선방안에서는 "표준과 지침(규격, 매뉴얼 포함)으로 구분하되, 표준 및 지침의 작성 범위를 정해 법령-표준-지침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표준은 법령 준수를 위한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지침은 표준 준수를 위한 구체적 절차라는 일종의 위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표준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공공기록물법보다 넓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준 전체를 공공기록물법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공표준이나 지침의 경우로 좁히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록관리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기록관리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가기록원이나 기술표준원 등이 민간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협력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표준의 질적수준 유지 조직과 관리 절차

표준 내용의 질적 수준은 표준의 개발 절차, 작성 주체, 심의 과정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표준 개발 절차는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비교적 잘 정비되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자체평가에서도 밝혔듯이 표준의 작성자에 따라 질적 수준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작성과정과 심의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개발' 과정이다. 표준화 대상을 발굴하고, 표준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표준별로 전문 지식과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표준을 개발해왔지만,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표준이 정해지고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의 검토와 표준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해도 사전적인 '연구개발 과정'과 전문적인 심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한 이러한 한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록원의 개선안 역시 "일부 표준의 경우 작성자의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검토로 불명확한 조문, 단순 법령 나열 등 표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표준 초안은 표준협력과에서 주관하여 작성하고, 관련 전문가 검토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표준의 수준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협력과의 인력 보강 없이 이러한 방식

으로 표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2005년은 기록관리 표준화의 전기가 마련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해 5월에 기록관리혁신단에 표준화를 전담하는 표준설계팀을 설치하였고, 2006년 1월에는 3개 영역에 걸쳐 18명의 전문가로 기록관리표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에 표준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2006년 12월 국가기록원에는 기록표준화팀이 상시 조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2007년 11월에는 표준평가팀으로 표준화업무가 축소되고, 2008년 5월에는 표준협력과로 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적어졌다. 이런 구조에서 표준협력과가 단독으로 수준 높은 표준을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표준은 표준협력과가, 규격이나 지침은 소관 부서에서 개발한다는 역할 분담 체계도 문제가 있다. 표준과의 연계 관계없이 규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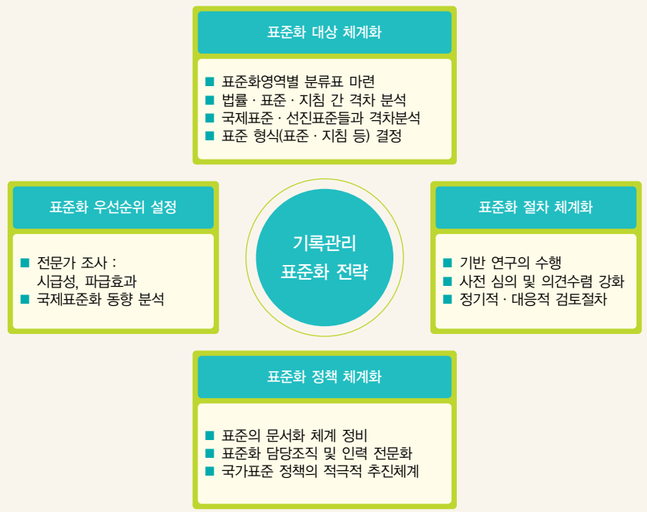
기록관리 표준화 전략의 재구축

1. 표준화 전략의 재구축 모형

공공표준의 주요 이용자는 주로 공공기관, 국가기록원, 산업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표준은 여기에 기업이나 민간기관까지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산업계, 기업을 포함한 민간기관들의 입장을 반영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준화 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준화 대상 선정과 개발 우선순위 선정을 주요 전략요소로 잡고, 절차 체계화, 정책 체계화로 구성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2. 표준화 대상 체계화

표준화전략의 핵심은 무엇을, 또 무엇부터 표준화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표준화 전략 재구축 모형

전략 1) 체계적인 표준 분류를 통한 개발 표준을 확인 및 표준 범위 설정

이러한 분류체계를 토대로 부족한 표준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표준간의 중복이 없도록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전략 2) 법률, 표준 지침(Guidelines) 간 격차 분석을 통한 이행 지침

공공기록물법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법률에 정한 바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표준 역시 지침이 함께 개발되어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략 3) 기술발전 동향을 반영한 국제표준 및 외국 표준의 격차분석 실시

특히 전자기록관리 영역에서는 새로운 형태와 유형의 기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표준들이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 기록을 포함하여 웹 기록, 동영상 기록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공공기관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을 매체나 형식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문서보존포맷 표준으로 정해진 PDF/A의 경우 시청각기록물 등의 기록을 포함하지는 못하므로 보다 확장된 보존포맷표준이 필요하다.
"웹 사이트 보존 및 이관 지침"도 필요하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시 사라지는 부처의 웹사이트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때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디지털화된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표준"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는 물론 많은 공공기관들이 대량의 종이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기록관리 측면을 고려한 표준은 부재하다. 아울러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기능과 관련된 표준 외에 '전자기록관리' 전반의 원칙을 다루는 표준이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전략 4) 공공기관 전반에 실행될 형식(표준, 기술규격, 지침) 선정

쟁점 중 하나는 표준의 구체성 정도이다. 전자기록관리 표준의 경우, 특정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구체성 정도는 예민한 문제이다. 가령, 메타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은 국제표준 및 영국, 호주의 표준을 분석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적용되었고 이는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표준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높여 전문가 논의를 거친후 2007년 메타데이터 표준이 개정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표준정비안에 의하면, 연구를 거쳐 메타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정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메타데이터 규격이 마련된다 해도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다양한 기록관리시스템이 동일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준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기록물통합검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였다. 현재 구현된 것은 국가기록원의 4개 메타데이터 스키마 등록, 조회, 스키마 비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구는 다수의 메타데이터 표준이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표준들은 시스템 설계로 이어지며, 한번 개발된 시스템을 다시 고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들은 상호운용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원칙적 수준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우선순위 설정

전략 5) 조사 및 동향 반영한 표준개발 우선순위 설정

우선개발 표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조사방법은 시급성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이후 개발 일정 및 전략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일정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개발 및 정비일정을 수립할 때에는 현장 및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시급성'과 함께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도 고려하도록 한다. 파급효과가 큰 표준들은 특히 전자기록관리 영역의 표준들일 것이다.

가령 아래 그림과 같은 분석틀에 따라 조사해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먼저 개발할 표준영역은 A이다. 영역 B에 속하는 표준들은 시급성은 높지만 시스템 개발 등으로 효과가 지속되고 변경 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이므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거쳐 제정되어야할 표준들이다. 영역 C는 시급성은 낮지만 파급효과가 큰 표준들로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할 표준들이다.

둘째, 국제표준의 개발동향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ISO TC46 SC11에서는 다양한 기록관리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다. 필요한 분야의 국제표준이 개발 중인 경우 표준 개발을 유보하고, 국제표준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틀

4. 표준화 절차 체계화

전략 6) 표준화 진행 및 사전 심의 강화

표준개발 절차는 표준 내용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표준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표준화 과제별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준의 대상과 범위가 적절한지 △다른 표준과 중복은 없는지 △연계되거나 상호참조해야 하는 표준은 무엇인지 △표준의 유형(공공표준, 국가표준 등) 및 표준문서의 유형(표준, 지침, 기술규격)은 적절한지 △관련 표준과 법령은 무엇인지 △관련된 국제표준의 내용과 개발 일정 △외국의 유관 표준 △표준제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관련 기술동향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표준화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 7) 표준문서 유형에 맞는 검토 절차 설정

국가기록원은 표준이 고시된 이후 3년 이내에 유효성확인 · 해당표준의 유지 ·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의 유형에 따라 검토주기를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법률 개정이나 기술발전, 연관 표준의 개정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표준의 제 · 개정 절차를 관리하고, 개정 이력을 확인할 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좋다.

5. 표준화 정책의 문서화와 및 조직 체계화

전략 8) 표준의 문서화 체계를 정비한다.

표준의 관리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준, 지침, 기술규격, 원내 표준 등으로 표준문서의 유형을 나누어 각 문서의 특징, 역할, 개발 및 심의 절차, 점검 방식과 주기 등의 내용이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업무 매뉴얼을 표준 문서의 하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여기에 업무담당자의 업무지식과 절차지식이 담기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매뉴얼을 나중에 표준 업무절차(SOP)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략 9) 연구기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보강

기반 연구 없이 제대로 된 표준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조직 및 인력의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현재의 '표준협력과'는 '표준 · 연구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선진국의 기록관리를 모방하고 따라가는 국면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고, 이른바 '탈(脫) 추격형(Post-Catchup)' 기록관리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구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전략 10) 국가표준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

국가표준화 정책도 점검이 필요하다. ISO 15489와 ISO 23081-1의 원칙이 개정 공공기록물법에 대폭 반영되고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설계에 반영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본다. 특히 국가표준은 그 적용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포함되므로 민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ISO 15489와 같은 표준을 민간에 확산시키고, 기업이 이를 준용토록 하려면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표준은 기록관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보여주는 안내도가 될 수 있다. 중앙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록관리 행정에서 자율적인 기록관리 행정과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표준과 지침이 많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필자 소개**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내 SC11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표준 간담회



바바라 리드(호주)



그렉 골딩(뉴질랜드)

▶ 일 시 : 2009년 6월 4일(목) 10시~12시
▶ 장 소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중회의실
▶ 사 회 : 김형국(표준협력과)
▶ 기록 및 정리 : 이지영(표준협력과)

▶▶ 장기보존 관련 질문으로, 일반적으로 기록물은 WORM에 수록하고 ISO 18492에서 제시하는 Refresh 및 Migration의 장기보존전략을 채택합니다. 한국의 국가기록원은 하드디스크(HDD) 기반의 WORM(Write once Read many times) 스토리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어떤 WORM을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렉 골딩(이하 그렉) ▶▶ 디지털 아카이브는 온라인(Online), 니어라인(Nearline), LMS(Live Management System)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욱 효과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입니다. HDD 방식은 단기 혹은 중기적인 보존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합니다.

▶▶ 현재 한국은 전자기록물 이관시 진본과 장기보존 포맷을 함께 저장 · 관리합니다. 보존을 위한 진본사본이 하나일 때, 재난 등의 이유로 다른 사본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이런 필요성들에 의해 늘어나는 사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바바라 리드(이하 바바라) ▶▶ 제 사견입니다만, 전자기록물은 뜻밖의 사고 및 백업을 위해 사본(Copy)을 생성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본을 저장할지는 모릅니다. 이는 IT 시스템을 위해서는 좋지만, 기록관리(Recordkeeping)를 어렵게 하는 점입니다. 비상시 중복(Redundancy), 복제(Mirror)와 같은 백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본을 시스템에 저장하는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는 사본을 지정(Disignation)하여, 배포(Distribution)를 위한 사본, 재생산(Reproduction) 해내기 위한 사본 등과 같은 규칙(Rule)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렉 ▶▶ 종이 세계에서는 하나의 원본만이 있어 별 문제가 없었고 보존도 용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 기록의 경우 비상시 필요에 의해 사본을 생성하는 것은 좋지만, 해당 사본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한국의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과 관련 호주의 VERS(Victorian Electronic Records Strategy)와 ISO 14721을 준용한 장기보존포맷 'NEO(NAK Encapsulated Object)'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NEO는 'VEO (Victorian Encapsulated Object)'와 거의 동일 구조를 가진 XML 기반으로, 전자기록물의 변환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모든 전자기록물을 NEO로 변환해야 하는지?, NEO로 변환하였다면 워드프로세싱 문서(Doc), 스프레드쉬트 파일, PDF 등과 같은 원본기록물을 파기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주의 VERS 이후의 적용 사례를 들어 설명 바랍니다.

그렉 ▶▶ 뉴질랜드에서는 VER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 Word95와 같은 전자기록물을 캡쳐한 후 Open office(Open standard)로 변환하고 변환된 파일은 원본 기록물과 링크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바바라 ▶▶ VERS에 대해서는 제가 호주 빅토리아주 기록관 직원이 아니므로 미리 사견임을 밝힙니다. VERS은 대개 반출(Export)과 입수(Import) 전략이고 VEO는 보존 포맷입니다. VEO의 XML은 포맷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빅토리아 및 그 밖의 지역에서는 RMS 시스템으로부터 기록물을 Export하고 이를 Archival System으로 Import하기 위해 VEO를 구현하였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포맷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VEO를 생성하여 원본을 VEO에 유지하거나 포맷이 변환된 시점에 해당 원본 기록물을 파기하는 것은 모두 정해진 규칙(Rule)에 따르는 것입니다. 실제 빅토리아주 기록관의 규칙은 정확히 모르지만 단지 포맷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규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주 기록관과 데이터의 캡슐화(Encapsulation)로 인한 메타데이터의 중복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는 문서(Document) 중심의 솔루션입니다. 계층(Layer) 마다 캡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방식으로 상위-하위 연계(Link) 혹은 메타데이터의 상속(Inheritance)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전자기록물이 NEO의 변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빅토리아주 기록관의 전략은 관리 포맷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VEO에서는 PDF/A와 같은 포맷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포맷이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호주에서는 VEO를 변경불가능한(Lock) 포맷으로 열람제공(Export)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바바라 ▶▶ VEO는 기록시스템(Record System)에서 Export 포맷을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몇몇 다른 보존기록시스템(Archival System)으로 이관하기 쉬우므로 이 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 한국의 국가기록원은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과 열람활용 등의 목적으로 비전자기록(종이, 시청각 등)을 디지털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이 파일들의 보존전략으로 XML 패키지로 패킹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최근에는 5만 개 파일을 대상으로 시범변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종이기록, 시청각기록 등 디지털 전환 파일에 대한 보존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 파일은 종이기록과 별도로 보존되어야 하며, 진본성(Authentic), 정확성(Accurate), 완전성(Complete), 접근가능성(Accessible)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런 추상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조언이 있는지요?

그렉 ▶▶ 뉴질랜드에서는 디지털화된 종이기록과 생래적 전자기록(Born Digital)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화(Digitized)된 기록물도 같은 장기보존 전략이라는 말인지요?

그렉 ▶▶ 디지털화된 사본도 동일 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 일단 파일이 생성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됩니다. 그렇지만 마이그레이션 이후, 디지털화된 원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바바라 ▶▶ 호주나 뉴질랜드의 초창기 디지털화 작업은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1세대 디지털화한 결과물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접근(Access)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디지털화 방안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의 보존 현황과 향후 보존계획 소개 및 ISO TC46/SC11 작업반(WG10) Digitization 의장으로서 국제표준의 방향이나 현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렉 ▶▶ 뉴질랜드에서 원본의 디지털화는 원본 대체용이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성을 위한 진행이므로, 현재 디지털화 기록물의 장기보존 전략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WG10에서 제정 중인 표준(Digitisation)은 정부기관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기관은 편지 등의 문서를 디지털화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지털화된 파일(File)의 관리 업무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디지털화된 버전을 신뢰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존전략으로 기관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바바라 ▶▶ 최근 ISO TC46 SC11의 케냐(나이로비) 미팅에서 그렉씨 대신 WG10 의장대행을 했으므로 최근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표준의 제정 과정은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기존 문서 중 심사숙고할 의견들이 남아 있어 11월 미팅에서 좀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11월 미팅이 제대로 진행되면 공식 성격이 덜한 TR(Technical Report)로 발간예정 중입니다.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는 분류체계와 함께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을 통제하는 중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업무 흐름(Work Flow)을 지원하는 ERMS의 경우,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업무지원 메타데이터의 범위가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과 ISO 23081의 관계도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기록은 비상시 필요에 의해 사본을 생성하는것은 좋지만, 해당 사본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바바라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업무지원 메타데이터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메타데이터는 업무처리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가 개발 중인 메타데이터 표준은 인코딩 스킴, 기록의 기능 등을 유연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를 프레임워크가 되는 5단계(생산, 획득, 변경, 등록 등)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업무 이벤트 혹은 업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행됩니다. 그래서 기록관리(Recordkeeping)는 업무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특정 업무 이벤트를 분리할 수는 있겠지만 기록관리와 업무지원을 위한 메타데이터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메타데이터가 서로 협력적이라 매우 유사합니다. ISO 23081도 호주 표준을 기초로 하여 국제표준화한 것이라 거의 유사합니다.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MoReq2에서는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업무흐름(Work Flow)이 선택적인데, 이 업무흐름과 기록관리를 보존기록시스템(Archives System)에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듯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바바라 ▶▶ 기록관리 종사자 중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MoReq2 명세서(Specification)의 경우에도 제 생각엔 일부 끔찍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데이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MoReq2의 뒷부분에 메타데이터 매핑을 추가하였으므로 참조는 가능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기록관리 종사자의 대부분은 단지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입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구성 시 메타데이터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업무흐름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분리하게 된다면, 기록관리의 목적이 상실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Link나 상속(Heritage) 등의 유연성을 확보하면 일부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 대부분 국가들은 국제표준을 그대로 국가 표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나 뉴질랜드의 국가표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렉 ▶▶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정부기관에 해당되지, 타 기관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정하는 표준은 정부의 의무표준이지 기관이 자의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표준을 항상 주시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항상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바라 ▶▶ 호주도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호주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한 경우가 많았지만 저희도 국제 표준화할 경우 국가표준에서 제시했던 일부는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므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조선왕조실록 – 두 번째 이야기 –

무엇을 기록했나, 史草에서 史論까지

김 정 운 | 경북대학교 강사

하나 사초(史草) – 실록을 만드는 자료

사초(史草)는 실록을 편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사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좁은 의미는 전임사관이 작성한 비공개 기록을 말한다. 넓은 의미는 시정기(時政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같은 공문서와 야사(野史), 개인 문집(일기도 포함됨) 등 실록 편찬에 이용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조선 왕조는 실록 편찬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도록 사관(史官)을 두어 매일매일 기록했다. 사관은 업무 성격상 전임사관과 겸임사관으로 구분된다. 전임사관은 예문관의 관원 가운데 봉교(奉敎, 정7품) 2명, 대교(待敎, 정8품) 2명, 검열(檢閱, 정9품) 4명 등 8명이 해당한다. 이들을 한림(翰林)이라고 했다. 후에는 승정원의 주서(注書, 7품) 1명도 사관에 포함시켰다. 전임사관은 평상시에 항상 왕의 옆을 지키고 앉아서 국정에 관한 모든 일을 기록했다. 앞서 말한 좁은 의미에서의 '사초'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역사기록을 담당하는 기관인 춘추관에 많은 겸임사관을 두었다. 즉 의정부(議政府), 홍문관(弘文館), 시강원(侍講院),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육조(六曹) 등 정부 주요관서의 관원들이 춘추관 관원을 겸임했다. 이들은 평소에 각자의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의 기록을 춘추관으로 보냈다. 그리고 지방 수령 가운데 외사(外史)를 임명하여 지방의 일을 기록하여 춘추관에 보내도록 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사초'에 포함된다.

전임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입시(入侍) 사초'와 '가장(家藏) 사초'로 구분된다. 입시사초는 당직 사관이 국왕의 정무처리를 현장에서 기록하여 춘추관에 보낸 것이고, 가장사초는 사관이 귀가한 후 기억을 더듬어 기록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이다.

입시사초는 각 기관에 배치된 겸임사관이 기록하여 보관하던 각종의 공문서와 함께 한달에 한번씩 정리해서 시정기를 만들었다. 시정기는 3년마다 인쇄하여 해당 관청과 의정부, 사고(史庫)에 보관했으며, 연말에 그 책수를 왕에게 보고했다. 시정기는 해마다 정리했으나 때로는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도 했다. 시정기는 전임 · 겸임 사관으로부터 쏟아지는 방대한 사초를 일차적으로 정리한 자료였다.

가장사초는 글자 그대로 사관이 집에다 보관한 사초이다. 실록이 편찬되기 전에 사관이 죽으면 가족이 보관했다가 실록 편찬 작업이 시작되면 실록청에 제출했다. 사초를 실록청에 제출하지 않는 사관은 그 자손이 관직에 나가지 못했고 은 20냥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또 가장사초를 소실하거나 유실한 경우에도 같은 형벌이 적용되었다. 조선시대에 관직에 나갈 자격을 잃는 것은 양반 신분의 박탈을 의미했다. 게다가 자손의 관직 진출까지 막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단종 때는 당사자만 관직에 등용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가장사초는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수록되었고, 당시 정치를 주도하는 대신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누설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되었다. 연산군 대에 만들어진 실록편찬 지침에 의하면, 사초는 "연월일순에 따라 전문(全文)을 바로 써서 그 사이에 부입(附入)하므로 편언척자(片言隻字)라도 가감(加減)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연산군일기』 4년 7월 21일) 즉 가장사초는 전문이 그대로 실록에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사초의 내용이 누설되거나 공개되면 난리가 났다. 7품 이하의 말단 관리가 작성한 것에 불과한 기록이었으나 그대로 실록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국왕과 대신들은 사관이 자신의 언행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만 했다. 사관의 존재는 왕을 제약했고, 대신들의 전횡을 제약하는 이중적인 견제 역할을 했다.

조선의 사관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엄정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춘추필법의 역사의식을 견지했다. 젊은 사관들은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사필(史筆)은 굽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사초는 작성하는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사관은 자신이 쓴 사초로 인해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었다.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실록청이 개설되면 그동안 집에서 보관해 오던 가장사초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실록청에 납부하게 되었다. 사초를 점검하는 실록청의 최고 책임자는 대개 당대 고위 관료가 임명되었다. 그는 수합된 가장사초를 모두 점검했다. 이때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사관이 불공정하게 기록했다면서 처벌하려 했다.

예컨대 단종 원년(1453) 5월에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책임자인 김종서는 안숭선(安崇善)의 사초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발견했다. 명나라 황제가 송골매를 요구해서 일곱 마리를 잡았는데, 당시 좌승지였던 김종서가 세종에게 두 마리를 남겨서 심심풀이로 삼으라(以資破寂)고 말했다는 대목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왕에게 아첨하는 소인배의 행위였다. 김종서는 기사관을 시켜서 이 구절을 삭제하게 했다가, 드센 비판이 일자, 결국 사초를 복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반면에 사초를 둘러싼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예종 때의 민수의 옥사와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예종 원년(1469) 『세조실록』을 편찬할 때, 민수(閔粹)도 자신이 써서 보관하던 사초를 제출했다. 그런데 민수는 자신이 사초에서 비판했던 양성지(梁誠之)가 실록청의 책임자가 된 것을 알고 입장이 난처해졌다. 고민하던 민수는 실록청 기사관 강치성(康致誠)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사초를 남몰래 빼돌려서 고친 후에 돌려보냈다. 이 일로 예종은 범인들을 친히 국문하고 엄벌에 처했다. 강치성은 사형에 처했고, 민수는 왕이 세자일 때 스승이었기 때문에 감형하여 곤장 1백대를 때리고 제주도의 관노로 삼았다.



실록 편찬이 완료되면 사초와 시정기는

세초(洗草)했다. 세초는 종이를 흐르는 물에 빠는 것으로 세초한 종이는 재생하여 다시 사용했다. 실록 편찬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세초하는 것은 종이를 재활용 하는 의미도 있으나, 이 자료들이 뒤에 공개되어 큰 사단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초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권벌(權橃, 1478~1548년)은 사관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작성한 「하원일기」와 승정원 주서(注書)로 있던 시기에 작성한 「당후일기」, 승지를 지내던 시기에 작성한 「승선일기」를 남겼다. 권벌의 일기는 대부분 『중종실록』에 기사화되었다. 권예(權輗, 1495~1549년)가 예문관 검열과 봉교에 재직할 때 작성한 사초도 남아있다. 그밖에 중종 때 겸임사관을 지낸 노수신(盧守愼, 1515~1590년)의 「춘추관일기」와 인조 때 전임사관을 지낸 정태제(鄭泰齊, 1612~1669년)가 남긴 사초, 인조 때 겸임사관들이 작성한 「겸춘추일기」가 현재 남아 있다.

사론(史論) – 실록에 담긴 역사의식

사론(史論)은 일종의 역사 비평이다. 사론은 사관이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실록을 편찬할 때 편찬관이 작성하기도 했다. 사론은 사관이나 편찬관이 특정한 사실이나 인물, 제도, 정책 등에 대해서 당시의 사조와 도덕적이고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근거로 칭송하거나 비판한 것이다. 사관은 사론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역사서에도 사관의 논평이 있었다. 『삼국사기』에서는 '논왈(論曰)', 『삼국유사』에서는 '찬왈(贊曰)', 『제왕운기』에서는 '사신왈(史臣曰)'로 썼으며, 고려시대에는 '논(論)', '찬(贊)', '모왈(某曰)' 등으로 표현했다.

조선왕조실록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론이 실린 실록이다. 청실록 · 명실록 · 일본실록 · 월남실록 등 어떤 실록에도 사론은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만 사론이 실렸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실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론을 통해 춘추필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본문(本文)과 세주(細註), 사론(史論)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문은 역사 사실을 연월일의 순서로 서술했고, 여기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세주로 처리했다. 세주는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썼다. 사론은 행을 바꾸고 한 칸 낮추어서 '사신왈(史臣曰)'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찾아보기가 쉽다. 사론의 형태는 『태조실록』 부터 『인종실록』까지는 특정 사실에 연이어서 서술되었고, 『명종실록』 이후부터는 본문과 구분하면서 한 칸을 낮추어 작성했다. 그만큼 사론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론을 작성하는데 있어 주된 자료는 가장사초였다. 가장사초는 제출할 때까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작성자가 소신있게 논평했기 때문이다. 시정기도 사론을 작성하는 자료였으나, 시정기는 이미 노출되어 있어서 사관이 논평한 포폄의 기사가 적을 수 밖에 없었다.

사론의 성격은 사실고증적인 것과 포폄(褒貶)으로 구분된다. 사실고증적인 것은 역사 서술의 원칙을 제시하거나, 사실의 진위 여부 · 인과 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에 비해 포폄은 도덕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을 위해 작성한 것이다. 실록의 경우 역사학적인 것보다 도덕적 교훈을 바탕으로 한 포폄의 사론이 주로 작성되었다.

사론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인물 1명과 사실 · 제도 · 관청 · 재이(災異) 등 하나의 사안에 대해 1건의 사론으로 포폄하였다. 일부의 경우 3명, 4명, 5명을 한꺼번에 논평한 것이 있으며, 특정 사실의 끝에 논평하지 않고 문장 중간에 삽입한 것과, 인사 기사 중에 특정인의 관직제수를 논평한 것도 있다. 또, 하나의 인물을 3건의 사론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어떤 것은 본문의 기사와 전혀 다른 내용을 논평한 것도 있고, 세주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도 있다. 사론은 형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사론의 작성 시기는 사건 당시 작성된 '당대사론(當代史論)'과 실록을 편찬할 때 작성된 '후대사론(後代史論)'으로 구분된다. 당대사론은 전임 및 겸임사관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기사 작성 당시에 논평한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실록을 편찬할 때 편찬관으로 편성된 중견 관료 이상의 인사들이 현재의 의식에 따라 과거 사실을 논평한 것이다. 또 당시 관료들이 남긴 기록 가운데 발췌하여 사론으로 작성된 것도 있다.

『중종실록』에서 사록(史錄) 조인규(趙仁奎)에 대해 논한 사론에는 "…뒤에 관찰사가 되어서는…"(『중종실록』 15년 5월 17일)이라고 해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또 충청도 관찰사였던 손중돈(孫中敦)에 대해 논평하면서 "…뒤에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는데…"(『중종실록』 15년 10월 14일)라고 했다. 뒤에 일어난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작성된 사론임을 알 수 있다. 실록을 통해서 사관들의 당대사 의식뿐만 아니라 실록 편찬관들의 과거사 의식도 볼 수 있다.

실록에서 사론이 처음 작성된 것은 『정종실록』이다. 태조 · 태종 · 세종 · 문종 · 단종의 실록에도 내용상으로 볼 때 사관의 논평인 것으로 추측되는 기록이 있으나 이러한 기록을 실록의 본문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정종실록』에 있는 사론 1건을 제외하고 『단종실록』까지 더 이상 사론은 없다. 이후 『세조실록』에 5건의 사론이 있으며, 사론이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성종실록』부터이다.

사론의 내용은 국왕, 인물,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 제도, 재이, 불교, 의례, 외교관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물에 대한 논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왕에 대한 사론은 『성종실록』에 처음 나타나며 후대로 갈수록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인물에 대한 사론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경우나 관직에 임명되거나 승진한 경우, 탄핵을 받아 파직되거나 사직하는 경우, 죽었을 때의 졸기(卒記) 등이 있다. 사론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독주나 관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역사의식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론의 성격상 인물 비평은 당연한 것이며, 매우 엄격하게 작성되었다.

민생과 관련된 사론은 적은 편이다. 민생과 관련된 사론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명종실록』에 실린 임꺽정에 관한 것이다. 사관은 논평에서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혹한 수탈 때문인데, 지금 곤궁에 처한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 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적이 될 수 밖에 없다(『명종실록』 14년 3월 27일)고 했다. 임꺽정 무리가 일으킨 난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정치의 잘못이라는 사관의 논평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사론은 실록에서 역사의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사론은 단순한 역사비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론은 사실 기술을 넘어서 분명한 입장으로 사건과 인물을 칭송하거나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사론은 대간의 탄핵과 같은 역할을 했다. 물론 사론은 당대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간처럼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후대에 영원히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간의 탄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실록 편찬의 목적은 임금의 말과 행동, 각종의 정치적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귀감이 될 만한 것을 전하는데 있었음을 고려할 때 실록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론이었다.

● **필자 소개** _ 경북대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경북대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다.

ISSUE & TREND

대한민국 희망기록전을 가다

박 이 준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가까운 옛날의 기억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지난 60여 년 동안 경험했던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발생한 6 · 25 전쟁은 삶의 터전을 뿌리 채 흔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고 삶의 터전을 닦으며 희망을 키웠지만 가난의 굴레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가난했던 시절 해마다 봄이 되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1957년 초등학교 어린이 가운데 절반이 영양실조였고 30%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사실은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 보릿고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눈물겨웠다. 머리카락에서 뱀, 메뚜기까지 닥치는 대로 수출하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이 시기 우리는 한 톨의 쌀도 아끼기 위해 절미운동과 혼분식운동을 전개하며 희망을 키워 나갔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자원빈국에서 오일쇼크는 절망에 가까웠다. 하지만 다시 새로운 투지로 기름을 찾아 중동으로 태평양으로 나아갔고, 위기의 진원지를 기회의 터로 만들었다.
1980년 초반 또 한 번 오일쇼크의 파고를 넘었지만, 1997년 닥친 외환위기는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외환위기에 대한 충격을 뒤로 한 채 어린 아이의 돌반지에서 장롱 속 한 조각의 금까지 모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세계는 감동했다. 그 결과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4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세계의 눈과 귀가 우리를 주목하였고, 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되었다.

2007년 태안 앞바다를 뒤 덮은 검은 기름은 환경재앙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태안으로 태안으로 향했다. 사고 한 달 만에 자원봉사자 130만 돌파 ! 그리고 유출된 기름의 70%를 우리의 손으로 닦았다. 전 국민이 자원봉사자요, 환경지킴이었다. '태안의 기적' 은 우리가 만든 또 하나의 감동의 드라마였다.

지난 60여 년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희망기록전은 지난 60여 년 동안의 대표적 위기극복 사례를 국가기록과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되돌아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희망기록전, 기록 돋보기

전시장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키운 희망 → 보릿고개를 넘어 → 오일쇼크의 파고를 건너 → 한조각의 금, 하나된 감동 → 검은 재앙에서 일군 기적 → 대한민국 ! 희망기록 찾기 → 체험존 등 총 7개 코너로 구성되었다.

지 역	기 간	장 소
서 울	3. 16 (월) ~ 3. 22 (일)	청계광장
대 전	4. 6 (월) ~ 4. 12 (일)	대전역
광 주	4. 27 (월) ~ 5. 3 (일)	금호버스터미널
부 산	5. 25 (월) ~ 5. 31 (일)	부산역

대한민국 희망기록전은 서울 청계광장 전시를 시작으로 대전, 광주, 부산 지역 순회전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희망기록전은 서울을 기점으로 약 1,000㎞가 넘는 거리를 약 70여 일 동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관람인원만 20만 명에 육박했다.

전시기록물은 지난 60여 년 동안의 대표적 위기극복 관련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 250여점이다.
전시기록물 가운데 '한국경제부흥계획서(1953)',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서(1962)' 등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로 꼽힌다.

'혼분식 이행실태(1975)' 는 식량부족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기록물이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30% 혼분식을 장려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일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보리쌀 1~5%를 형식적으로 혼합하고 … 일부 식당에서는 단골손님에게 별실로 안내하여 백반을 판매하고 … ○○군청은 100% 백반을 팔고 있음에도 기관장이 이를 방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 상단에는 "내무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지시하여 단속케 하고 해당 군수는 문책"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친필로 쓰여 있다.

'절미운동과 식생활 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고(1968)' 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노력이 배어 있다. 보고서는 "모든 음식점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11시에서 17시까지 쌀을 원료로 하는 반식(7i) 판매를 금지하고 …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 구내에서는 분식만 판매해야 한다 … 학생들의 도시락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희망기록 찾기' 코너는 국가기록원에서 개최한 위기극복 관련 기록 공모전 작품 가운데 유의미한 자료를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전시 작품 중 돋보이는 것은 40여 년 동안 4만여 장의 생활기록사진을 찍은 양해광씨의 출품작이다. 양해광씨가 출품한 '식량 증산과 대관식', '시골버스 차장아가씨' 등은 1960~70년대 사회상과 생활상을 앨범을 펼치듯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으로 특히 돋보인다. 그 외에도 외환위기 당시 초등학생이 외할머니에게 보낸 편지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짓게 한다.

70일의 대장정 스케치

대한민국 희망기록전은 서울(3.16~)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부산(~5.31)까지 약 70여 일에 걸쳐 28일간 개최되었다.



개막식 모습



관람자들의 모습

ISSUE & TREND

3월 16일 개최된 서울 청계광장에서의 본 전시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개막식은 전시컨셉에 맞춰 간소하고 알차게 진행되었다. 관람객과 함께한 개막식장에 잔잔히 울려 퍼지는 김광석의 '일어나' 노래는 청계광장 빌딩 숲을 가로지른다.

외국인들은 신기한 듯 전시장을 둘러본다. '대한민국 1번지' 광화문에서 세계 최빈국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이들의 표정이 이채롭다. 그리고 이내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전 과정을 관람한 이들 눈동자의 동공은 이미 커져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맞아, 그 때는 그랬어, 좋은 세상이야' 를 연발한다. 청춘남녀들은 전시구조물을 배경으로 한껏 폼을 잡고 셀프카메라를 연신 누르기에 바쁘다. 밤에는 어둠에서 희망의 등불을 밝히듯 전시구조물에 불이 환하게 밝혀진다. 그렇게 서울에 점하나를 찍고 대전을 향한다.

대전역은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넘는 이들이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오가는 대전의 관문이다. 대전역 광장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대전부르스' 노래비는 과거 대전역의 영광을 대신하고 있다. 1959년 가수 최치수가 대전역 플랫폼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한 대전부르스는 1963년 '대전발 0시 50분' 영화 주제곡으로 선곡되어 일반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대전역 광장 전시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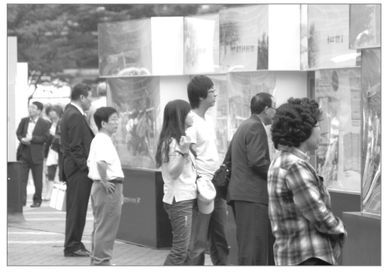
현재, 대전발 0시 50분 완행열차는 과거가 되었지만, 대전역 광장 풍경은 어느 역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다정한 연인들의 한가로운 발걸음, 휴가 나온 군인들의 활기찬 모습, 벤츠에 시선 없이 앉아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그렇다. 서울과 부산에서 달려온 기차는 거친 호흡을 토해 내며 대전역 플랫폼에 승객들을 토해낸다. 대전역 광장에 들어선 이들의 발길이 전시장에 멈춰 선다. 삼삼오오 모여 전시장을 관람하는 이들의 눈가에서 시대의 기억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여행을 온 듯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는 청춘남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듯 '희망기록달기' 에 여념이 없다. 서울, 대전 찍고 광주를 향한다.

광주 금호터미널 광장 전시장 모습

문화중심 도시 광주는 정겹다. 진한 전라도 사투리와 손님에게 덤을 주고 넉넉히 웃음 짓는 행상아주머니의 모습에서 진한 정을 느낀다. 광주 금호버스터미널은 광주의 관문이자, 여행객들의 쉼터이다. 둥근 마천루를 휘어 감고 있는 광장에 '뫼비우스 띠' 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전시장과 어울린다. 안성맞춤이다. 전시물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촌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서 머한다요?' 라고 물어 본 촌부에게 지난 60년을 설명해 본다. 연신 끄덕이는 촌부의 몸짓에서 결코 녹녹치 않았던 지난 60년의 무게와 감회를 느껴 본다.

이제 마지막 부산으로 향한다.
부산역 플랫폼에 내리면 짠 바다 내음이 코를 자극한다. 부산역 광장은 '부산 갈매기' 대신 비둘기들이 자리하고 있다. 먹거리를 찾는 비둘기의 분주한 날개 짓이 낯설지 않다. '부산 아지매' 의 억센 사투리가 부산임을 알린다.
부산역 광장 전시장은 주변 나무들과 어울려 또 다른 심미감을 자아낸다. 자전거 타고 나온 초량동 동내 아저씨는 '이게 뭐꼬?' 라며 호기심을 보인다. 하나 둘 모인 이들은 어느새 군중이 되었다. 전시장 주변에 모인 이들의 모습과 그 옆에 먹이를 찾기 위해 모인 비둘기의 무리가 섞인 전시장 풍경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전시장을 둘러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에서 국제도시 부산을 본다. 전시장은 어느새 부산역의 한 부분이 되어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잡는다. 자원봉사를 나온듯한 중 · 고등학생들의 재잘거림도 전시장 앞에서는 잠시 멈춘다.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다. 희망기록 달기에 자신들의 꿈도 적어보고,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범생이' (모범생)도 보인다.



부산역 광장 전시장 전경

부산 전시회는 한편으로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때문이다. 분향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부산에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기록! 내일이면 늦으리

대한민국 희망기록전의 70일 대장정이 무사히 끝났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지난 60여 년의 위기극복 과정의 기록을 보며 새삼 놀랐다. 위기를 극복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기록에서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보릿고개 시절 어린아이가 땅바닥에서 국수 먹는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다. 당대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기안문서 한 켠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그마한 글씨로 사인한 기록물에서 시대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록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다. 위기극복 사례를 잘 보여 줄 수 있는 핵심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은 갈증을 느끼게 한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기록 등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금모으기운동' 특성상 국가기록 생산이 제한적이었음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아쉬움을 채우지는 못하였다.
인류는 기록을 만들고 기록은 역사를 만든다. 기록이 없는 국가는 역사가 없다.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기억' 이 기록이 아닌 단지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면 그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는가. 2009년 경제위기를 극복한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어떤 기록을 얼마나 많이 남겨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를 만든다. 기록을 남기는 것, 내일이면 늦으리…. IN

● 필자 소개 _ 전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기록편찬문화과에서 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SSUE & TREND

대통령기록포털 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기능

서 영 준 | 국가기록원 공업연구사

들어가며

최근 대통령기록물이 종이기록 중심에서 전자기록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 패러다임도 보존 중심에서 활용 위주로, 비공개 관행에서 적극적 공개 · 열람 등 서비스 지향의 고객 만족 기록관리로 변화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추진되었으며, 미국의 대통령 도서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 대통령 도서관에서는 역대 대통령별로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대통령기록정보를 온 · 오프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 2007년 7월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 보존 뿐만 아니라 공개 ·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에 설립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는 860여만 건의 역대 대통령 기록물들을 이관 받아 보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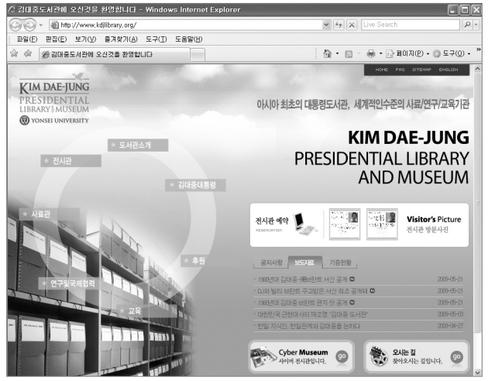
또한 2008년 말 개발 완료된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인수, 정리 · 기술, 보존 등 대통령기록물의 영구 보존 관리를 위한 기능 개발을 수행함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통령기록물이 충분히 공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현재 대통령기록포털 시스템으로 명명된 웹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콘텐츠로 체계화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서비스 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여기에서는 대통령기록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온라인 콘텐츠 및 검색, 신청 등과 같은 대통령기록포털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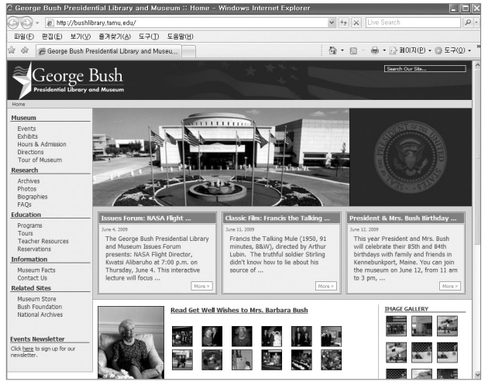
국내외 현황

국내에서 역대 대통령 기록에 관한 정보는 대통령기록포털 시스템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나라기록포털 및 나라기록검색 그리고 민간에서 일부 역대 대통령별로 운영중인 웹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는 '역대 대통령관련 기록물 보유현황' 과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을 통해 일부 역대 대통령 재임 당시 생산된 문서와 시청각에 관한 목록들을 제공하며, 나라기록포털에서는 기록정보 컬렉션 중 '대통령 컬렉션' 을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관련 문서, 사진, 동영상, 육성 등의 자료를 일부 선별하여 역대 대통령별로 구성하고, 키워드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그림 2〉 조지부시 대통령 도서관

민간 운영 웹사이트들은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사와 치적 그리고 일부 관련된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웹사이트에 따라 제공 기록물양이 매우 적거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사이트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유형별 검색, 수집처별 검색과 종합 검색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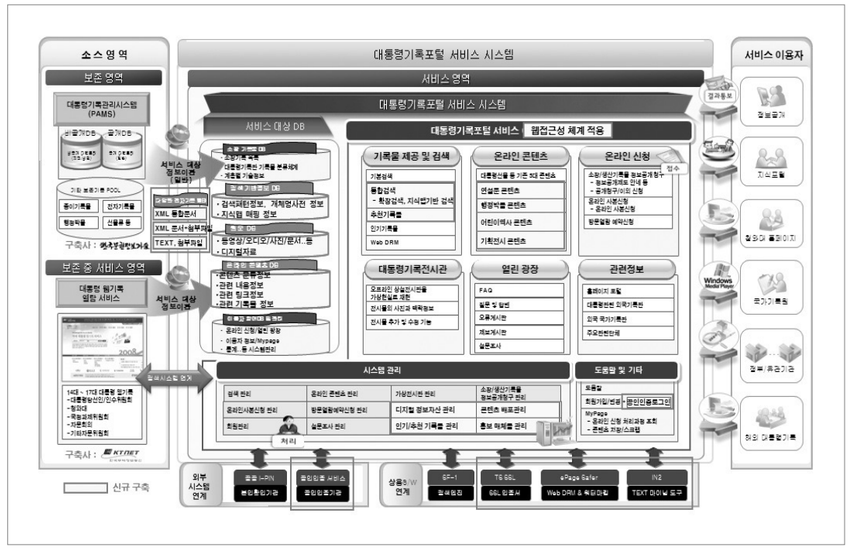
국외에서 자국의 역대 대통령 기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미국의 대통령 도서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곳곳에 12개의 대통령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장기록 관련 정보와 검색, 교육 및 전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서관에서는 주제별, 매체별, 형태별로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어 웹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문서, 사진, 서신, 연설문, 회고록, 뉴스기사, 구술기록, 도서, 박물류 등이 적절히 활용되어 다양한 메뉴와 콘텐츠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시대별로 구분하여 수집된 기록물의 기록군과 폴더, 건별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연방정부 관련기록물은 출처와 원질서에 따라 계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대통령 도서관 웹사이트에서는 목록과 다양한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소장 자료의 소재 정보를 알려주고, 선정 컬렉션의 경우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웹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그 외에 어린이,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게임, 퍼즐 뿐만 아니라 만화, 사진, 문서자료, 음성파일 등 매체별 컬렉션을 활용하여 다채롭게 구성하였으며,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들 지도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트루먼,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등의 일부 대통령 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상으로 기념품점을 운영하면서,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 주문까지 가능하다.

대통령기록포털 시스템의 주요 기능

대통령기록포털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온라인 콘텐츠, 검색 및 온라인 신청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대통령기록관 소장 주요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획, 전문가 집필, 디자인 및 개발 등의 과정을

ISSUE & TREND



〈그림 3〉 대통령기록포털 시스템 구성도

통해 이용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소장 기록물 검색 서비스에서는 기본 및 상세 검색과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에 기반한 계층 검색 등의 다양한 검색 방법을 통해 기록물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서는 검색 서비스를 통해 찾은 기록물을 온라인상으로 공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 외에 오프라인 상설전시관을 가상현실로 재현한 대통령기록 사이버전시관 서비스와 자유게시판, 묻고 답하기 등의 열린 광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통령기록포털은 〈그림 4〉와 같이 3단 세로 형태의 안정감 있는 화면 구성과 서비스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 맵을 배치하였다. 5개 주제의 온라인 콘텐츠와 검색 영역을 부각하여 기관의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디자인은 국가기록원 로고의 구성 색감 중 블루 계열의 신뢰감을 주는 컬러 적용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컨셉을 유지하였다.



〈그림 4〉 대통령기록포털 메인 화면

1.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이용자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 설명과 함께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통령기록포털에서는 현재 「역대 대통령 온라인기록관」, 「역대 대통령 취임식」, 「역대 대통령 선물갤러리」, 「헌법개정사」, 「정책간행물」 등의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대통령 기록정보가 제공된다.

「역대 대통령 온라인기록관」에서는 역대 대통령에 관한 기본정보, 재임 당시의 주요 사건과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특히 역대 대통령기록물 중 사진, 동영상, 녹음기록 등은 당시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기록물들이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이 영부인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한 사진 등을 소개하는 사진 갤러리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기본정보 및 관련 기록물을 수록하였으며, 역대 대통령 취임식의 행사 장면 및 규모 등을 통해 변화된 모습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의 중요한 기록물 중 하나는 당연히 취임사가 될 것이다. 취임사에는 대통령 한 개인의 메시지 차원을 넘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취임사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다. 예컨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광복의 기쁨과 정부 수립의 감격이 넘실대던 1948년의 기운이 취임사 곳곳에 스며있다. 그러나 1952년 거행된 제2대 대통령 취임식의 취임사에서는 전운이 어른거리는 비장함으로 바뀌게 된다.



〈역대 대통령 온라인기록관〉



〈대통령 취임식〉



〈역대 대통령 선물갤러리〉

「역대 대통령 선물갤러리」에서는 역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국 수반 및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 중 500여 건의 선물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국빈 선물 등은 각국의 문화를 대표하거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선물갤러리 콘텐츠에서는 선물을 대륙별로 분류하고 세계지도와 함께 배치하여 받은 나라와 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한 '선물지도 보기'와 각 대통령별로 선물을 분류하여 구성한 '대통령별 선물 보기' 등의 다양한 보기 기능을 제공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선물들은 많은 사연과 의미가 담겨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선물을

ISSUE & TREND

받았던 김영삼 대통령은 총 707건의 선물을 받았으며, 자기류를 비롯한 공예품이 눈에 많이 띈다. 1993년의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방한시 받은 도자기 선물의 경우 받침이 있는 접시 모양의 대형 그릇 형태인데, 바탕은 청색이고, 기하학적 무늬가 금색으로 장식되어 예술적 가치가 높다. 활발한 대외 외교를 펼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아시아권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선물을 받았으며, 그림 선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특히 눈에 띄는 선물로는 1998년의 중국 방문시 홍콩특구 행정 수반으로부터 홍콩 반환을 기념하여 받은 '홍콩반환기념 대형 서화첩'이 눈에 띈다.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선물에는 전통 의상과 같은 옷 선물들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의 독일 방문 기간 중 차두리 선수로부터 받은 축구 유니폼 상의가 색다르다.



〈헌법개정사〉



〈정책간행물〉

「헌법개정사」에서는 차수별 헌법 개정의 배경, 과정 및 주요 내용, 관련 기록물을 제공하여 헌법개정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개정사 콘텐츠에서는 국가에서의 헌법의 중요성과 헌법의 개정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헌법이 제정된 후 9차에 이르는 각 헌법 개정의 내용과 배경, 역사적 의의를 소개하였다.

「정책간행물」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정책간행물 총 2,200여 권의 원문을 스캐닝하여 수록, 정책연구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간행물 콘텐츠에서는 생산기관별로 간단한 기관 소개와 발간 간행물의 목차와 원문을 살펴볼 수 있는 '생산기관별 보기'와 간행물 제목이나 키워드, 저자 등을 통한 '키워드 검색'을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2. 대통령기록 검색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대통령기록포털에서는 역대대통령 기록물 목록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웹기록물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전문검색 기능과 온라인 정보공개신청 기능을 구현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록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웹기록물 검색 결과 화면

검색 기능은 세부적으로 기본, 상세, 계층 검색으로 나뉘어진다. 기본 검색은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기록물 목록,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웹기록, 온라인 콘텐츠 수록 기록물을 통합 검색하여 결과를 제공한다. 상세 검색은 검색 대상 및 조건 지정을 통해 기록물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층 검색은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역대 대통령별 기록물 생산기관(보좌, 자문, 경호, 인수위, 기타)에서 이관된 기록물 또는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이다.



〈그림 5〉 대통령기록포털 메인 화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찾은 목록 또는 기록물은 사용자마다 스크랩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기록공개 신청 서비스를 통해 우편 또는 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본을 수령할 수 있다. 기록공개 신청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 및 처리 과정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대국민 열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나오며

국민들의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소장 대통령기록의 활용을 통한 가치 극대화를 위해 구축된 대통령기록포털 시스템의 주요 구성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대통령기록이 더 이상 보존만이 아닌, 활용을 위한 서비스 체계로 적극 전환됨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대통령기록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용자를 좀더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대통령기록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필자 소개** _ 경희대에서 소프트웨어공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대통령기록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SSUE & TREND

나라기록관,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거듭나다

조 윤 경 | 국가기록원 행정서기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정보와 새로운 기록보존처리 장비 · 기술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록물들이 열악한 보존환경 속에 방치되어 훼손되거나, 활용 가능한 기록물 조차 열람 시 발생할 수 있는 훼손의 우려로 인해 서고 한편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보존에서 기록정보를 공유 · 활용하며 비공개 관행에서 적극적 공개 ·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생산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매체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보존 및 연구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원문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록정보의 공유 및 활용과 새로운 가치의 정보를 창출할 기반을 구축하고 기록정보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공개 · 열람서비스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가기록원도 국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스스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가기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 중의 하나가 바로 나라기록관의 적극적인 개방과 홍보이다.

나라기록관의 활동 성과

나라기록관은 방문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별 시설견학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방문자의 유형별 홍보기념품을 제작 · 배부하여 나라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라기록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리적 접근성이 미흡한 관계로 야기되는 방문객의 불편 해소와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표지판 및 정류장을 신설하고,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을 조정하였으며, 단체 견학시 차량을 지원하는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국제협력교류단지 내의 입주기관(세종연구소, 한국국제협력단 등)와의 연대도 추진해 왔다.

나라기록관은 개관 초기의 환경적 · 제도적 정비, 기록관리의 단순 홍보에서 기록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는 기록문화로 끌어올리기 위해 「성남시민과 함께 나라기록관 둘러보기」, 「기록문화 체험교실」, 「탄천 페스티벌과 연계한 중요기록물 전시회」 등을 실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1. 「성남시민과 함께 나라기록관 둘러보기」 행사 (2008. 8월)
지역주민들부터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화함으로써 기록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 행사로 성남시 46개 동의 주민, 550여 명이 방문하여 과학적인 기록관리과정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기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홍보동영상 시청



시청각실 관람

2. 「기록문화 체험교실」 운영 (2008. 8월과 2009. 1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드라마와 접목하여 「위대한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란 제목으로 친숙하고 재미있게 설명하였고, 능화판을 이용하여 표지에 문양 새기고 오침안정법으로 책을 묶어 보는 「옛 책 만들기」를 직접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나라기록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나라기록관 3D 모형 만들기」 체험도 하였다.

일반적인 박물관과 달리 아이들에게 기록원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알리고, 자신의 일상 생활을 기록해보고 싶도록 만든 계기가 된 강좌이다.



참여 학생들



능화판으로 문양 새기기

3. 「탄천 페스티벌」과 연계한 「중요기록물 전시회」 (2008. 10월)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국민 속에서 피어나는 적극적 기록문화를 만들기 위해 「중요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서양고지도 16점 전시), 동영상 기록물 "그때를 아십니까"(영상물 10편 상영) 등이 진행되었다. 수도권 시민 약 1,300명이 참석하여 색다른 전시회에 관심을 보였으며,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 있는 우리나라를 보며 나라사랑을 느끼고 동영상 기록물을 시청하며 세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시청각 기록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양고지도 전시 관람



"그때를 아십니까" 코너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재탄생하다

기록은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블로그나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도 기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일상의 기록들은 문화 콘텐츠로만 생각하고 훗날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ISSUE & TREND

이에 2008년 12월, 어린이 기록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성남지역 초·중등 교감선생님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나라기록관 시설 견학, 나라사랑 기록탐방, 어린이 체험학습 등에 대해 교육적 시각에서 바라본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2009년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나라기록관에서는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기록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하던 중 과거-현재-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게 되었다.

1단계로 체험 위주의 아이템으로 구성한 특별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초등학교 체험학습(소풍) 시즌에 맞춰 개장하였다. 5개 코너, 9개 체험대의 특별체험학습장은 선조들의 기록문화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심어 주도록 구성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멋진 그림을 포루타주 기법으로 체험하며 당시 고구려인들의 웅대한 기상을 느껴보고, 1400년 전 신라 화랑들이 돌에 새겨 놓은 맹세를 탁본해 보며 천년이 지난 약속의 의미를 새겨보고, 팔만대장경을 인쇄하며 조상의 지혜와 숨결을 느껴보도록 하였다.



인쇄 체험



옛 사람과 사진찍기

특별 체험학습장은 1달여간 운영하는 동안 어린이 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방문객에게도 좋은 반응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이었다.

특별 체험학습장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한 것이 「기록문화 체험학습장」이다. 기록문화 체험학습장은 특별 체험학습장에서 운영하던 체험도구와 장비들을 이전·재배치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효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주요 고객층을 체험학습 기회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미취학 아동까지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체험장으로 구성하였다.

생생한 체험을 통해 기록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기록의 작성에서 관리·보존까지를 형상화 하여 보여줌으로써 나라기록관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기록과 관련된 체험 코너를 보강하여 대통령기록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록문화 체험학습장은 크게 3개의 체험 코너로 나뉜다. 일반적인 "기록관리 과정"을 체험해 보는 기록관리 체험 코너, "역사 속의 기록여행"을 떠나보는 역사기록 체험 코너, "대통령을 만나다"라는 대통령기록 체험 코너이다.

각각의 체험 코너를 들여다 보면, 기록관리 체험 코너는 자신이 녹음한 음성과 촬영한 사진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거나 기록을 보관하는 사고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기록물 보존 방식의 변천 과정을 배울 수 있고, 역사기록 체험 코너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을 느끼고, 팔만대장경을 인쇄해 보며 조상들의 기록에 대한 숨결 및 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 체험 코너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방문기념증을 출력하여 국새와 역대 대통령의 수결(手決)을 찍어보고 청와대를 배경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또한 기록문화 체험학습장에는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을 도와줄 전문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다. 전문 자원봉사자는 어린이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체험 방법을 안내하여 올바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체험학습장내 비치된 어린이 도서를 찾아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체험학습을 통해 생긴 기록에 대한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하여 학습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기록문화 체험학습장은 기록이 왜 중요하고, 기록관리가 왜 필요한지, 옛 기록이 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문자로 대화하기



기록물 음성복원



고구려 벽화 자석스티커



나라기록관 3D 모형만들기

나오며

나라기록관에서는 범국민적인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기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자녀들을 특별 초청하여 기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록문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록문화가 특정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닌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 생활 속의 기록문화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나라기록관은 소외계층 자녀들의 초청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록문화 격차 해소에 힘쓰고, 유적지에 숨어있는 기록을 찾아보는 '나라사랑 기록탐방'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기록을 찾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친숙한 기록영화를 상영하여 어린 세대와 청·장년층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기록사랑 영화제' 등도 기획하고 있다.

또한 보존하고 있는 각종 기록정보 및 학술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서 가족·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공간인 동시에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필자 소개 _** 나라기록관 견학 및 전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ISSUE & TREND

세계속의 육군
– 파병기록전시회를 통해본 활약상

최 영 일 | 육군 중령

들어가며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파병은 1619년(광해군 11년) 명나라 요청에 의해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 중국 요녕성 지역에 포수 500명을 강홍립 장군의 지휘 하에 파병한 것이 최초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은 1964년 9월부터 1975년 3월까지 파병한 베트남전이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연인원 325,517명이 파병되었으며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호부대 등 7개 부대가 파병하여 대한민국의 용맹성을 세계 속에 떨쳤다. 그 이후 99년부터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등 여러 지역에 파병하여 유엔평화유지 활동 및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선활동 및 의료/건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눈부신 파병활동상을 소개하고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육군에서 최초로 해외파병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지역 및 삼군대학에서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월남파병 국회동의서에서부터 각종 전투기록 및 파월 부대기, 행정박물, 파병동영상 등 90여 점이 전시되었다.


육해공군대학 전시회


육해공군본부 전시회

기록을 통해본 파병활동상

1. 베트남 파병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8,000만 명으로 주요 산업은 쌀, 고무이다. 베트남 파병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 명이 투입되었으며 청룡부태, 백호부대, 십자성부대, 비둘기부대 등 7개부대가 참전하였다.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신의를 드높이고 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었으며 획득한 외화를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파병관련 국회동의서


주요파병일지/부대기

2. 동티모르 파병

동티모르는 1974년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침략을 받아 76년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합병되었다. 그 후 1999년 UN 평화유지군의 통치아래 2002년 4월 민선 대통령을 선출 후 독립하였다.
육군은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연인원 3,200여 명이 파병되어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전개하여 건설 및 의료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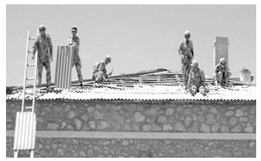


부대 입구전경


주민 교육

3. 아프가니스탄 파병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 중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2,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79년 소련침공 이후 20여년의 내전과 가뭄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2001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의료지원 및 건설공병부대 연 2천여 명이 투입되어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택 정비 · 보수


주민 진료활동

4. 이라크 파병

이라크는 서아시아에 있는 이슬람주의 국가로 인구 2,400만 명으로 1932년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68년 군주제가 무너지고 이슬람사회주의 정당에 의해 통치되다가 2003년 현재 미국의 통치아래 관리되고 있다.


주택 정비 · 보수


주민 진료활동

2003년 4월부터 08년 12월까지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의료지원단, 건설공병단, 자이툰부대 등 연인원 2만여 명이 파병되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구호품 지원 및 현지 초등학교 및 보건소등 공공시설을 건설 지원하였다.

5. 레바논 파병

레바논은 지중해 동안에 있는 나라로서 과거 십자군 전쟁의 쟁탈장이었으며 인구 372만 명으로 1975년 이래 내전과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인해 전란 상태가 계속되어 국가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국가이다.
2007년 1월부터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레바논 지역에 파병되어 의료지원 및 각종 평화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 의료지원


태권도 시범

나오며

그동안 기록관리는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에 집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각종 전시회 및 콘텐츠를 개발 · 홍보하고 교육하는 쪽으로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해외파병 기록전시회는 세계속의 육군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장병들에게 해외파병 활동을 소개하고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체험케 함으로서 사용자 중심의 기록관리문화 정착의 새 장을 여는 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 필자 소개 _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석사)하였다. 현재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계획운영과장이다.

ISSUE & TREND

21세기 지능형 디지털 국토의 초석, 수치지도(數値地圖)

한 상 호 | 국토지리정보원 학예연구사

일반적으로 지도(地圖)라고 하면 A1(594mm×841mm) 크기의 종이에 검은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노란색 등의 색을 사용하여 선(線)으로 그려진 것을 연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산, 강, 도로, 건물 등 지면상의 자연 및 인공적인 지물 등이 일정한 축척과 도식을 통해 표현되어 있고, 하단에는 범례를 실어 지도를 보는 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를 지형도(地形圖; Topographic map, 이하 '지도')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도 또는 종이지도라고 말한다.

이 지도는 그동안 종이라는 매체에 가장 많이 그려졌고,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관 또는 보존이 쉽지 않고 한번 제작되면 다시 편집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도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제작 전문가들에 의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축척별로 전국을 그려 놓은 원도(原圖)[1]만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

우리나라는 1966년 네덜란드와 항공사진측량협정을 체결하여 지도제작에 관한 기술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지도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해 왔으니 양적인 것은 물론 지도제작기술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1/25,000 지형도(수원)



1/1,000 수치지도(수원)



지도 제작 과정

지도 제작 과정 지도 및 수치지도 제작 현황

연도	내 용
1961	측량법 제정(법률 제938호)
1966	한 · 화(韓 · 蘭)협동 항공사진측량협정 체결, 1/25,000 지형도 제작 착수
1974	남한 전역 1/25,000 지형도 768도엽 완성, 축소편집 1/50,000 지형도 239도엽 동시 완성
1974.11	건설부 국립지리원 창설
1975	1/5,000 대축척 지형도 착수, 측지기준점 정비사업 시행
1980	유엔지명전문가회의 가입, 유엔지도제작회의 가입
1988	지도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1/25,000, 1/5,000)
1990	1/10,000 지형도 제작 착수
1992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건설부령 제500호) 제정
1993	1/5,000 수치지도 제작 착수
1995~1998	NGIS구축 기본계획에 의거 본격적 수치지도 제작 추진
1998	수치지도 민간공급 시작
1995~2000	공통주제도 전산화 사업 추진
1995~2002	지하시설물도 등 수치지도 제작사업 확대

이러한 지도제작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2]에서 수행해 왔는데 1974년 창설이래 국가기본도(地圖) 제작, 측량기준점 관리, 지명(地名) 정비,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지리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아래는 지도제작 과정과 그간 우리나라 지도 및 수치지도 제작 현황이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1992년 기존의 지도를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지도 제작에 착수하게 되는데 바로 '수치지도(數値地圖; Digital map)'라는 신개념 지도였다. 기존의 지도가 갖는 정보의 내용과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도를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 및 적용시킬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선진국의 기술 및 S/W를 기반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1992년부터 수치지도를 제작하였던 것이다.

'수치지도'는 지표면 · 지하 · 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 · 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3]. 즉 수치지도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지도로서, 지도에 관한 모든 정보가 X · Y 좌표의 수치(Digital) 형태로 이루어진 지도이다. 일반지도가 종이를

1) 지도를 오프셋(Offset) 인쇄하기 위해 특수판에 만들어 놓은 음화필름(陰畵; Nega Fi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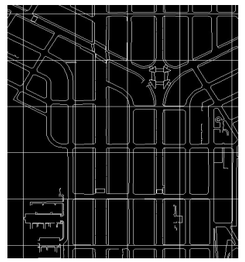
2) 1974년 창설된 건설부 국립지리원은 2003년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개명(대통령령 제18067호)하고 21세기 지능형 디지털국토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측량 및 지도제작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 · 운영하면서 국가측량기준점, 국토기본지형도 등 각종 국토지리정보를 생산 · 관리 · 보급하고 있으며, 기본측량 · 항공사진측량 · 위성영상측량 등 국가측량 업무를 관장함은 물론 국토의 위치와 높이 등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 수준점 등 측량기준점을 유지 ·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이다.

3)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 제2조 1호(개정 2004. 12. 22. 건설교통부령 제4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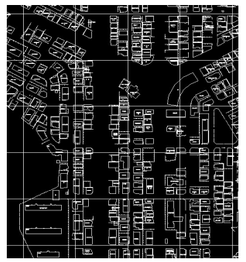
ISSUE &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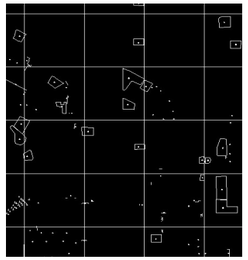
수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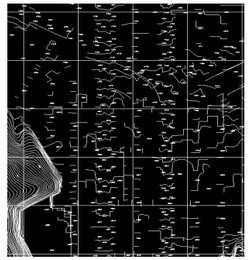
도로 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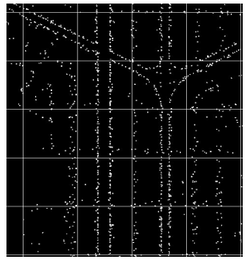
건물 레이어



지류 레이어



지형(등고선) 레이어



시설물 레이어

매체로 국토와 관련된 정보를 선과 도형 형태로 표시한 것인데 반하여 수치지도는 컴퓨터를 매체로 하여 이들 정보들을 수치화하여 파일(File)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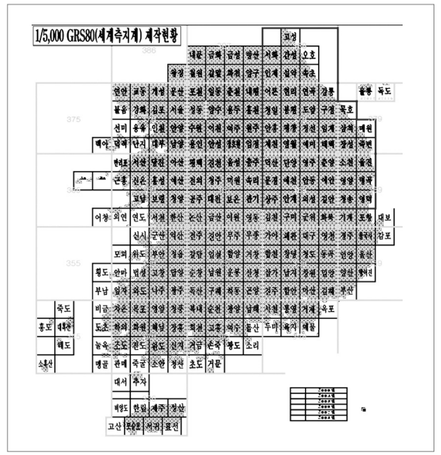
특히 수치지도는 한 장의 지도에 9개의 레이어(철도 · 하천 · 도로 · 건물 · 지류 · 시설물 · 지형 · 행정 및 지역경계 · 주기 등)가 중첩되어 있어 사용자가 필요한 레이어만 추출하여 원하는 분야에서 응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수치지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데이터의 선택적 이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종이지도는 지도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전부 도면에 표현되어 있어 특정 항목만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수치지도는 항목마다 코드화 되어있어 지도데이터의 선택적 이용이 용이한 것이다. 둘째, 지도의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면적, 길이 등의 산출이 간단하고 그 결과를 원하는 포맷으로 변형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용이하다. 셋째, 지리정보시스템과 호환이 된다는 점이다. 수치지도에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기 용이하다. 즉 GIS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넷째,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도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종이지도와 달리 필요한 부분만 편집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지도데이터의 갱신이 용이하다. 다섯째, 다양한 투영법에 의한 출력이 가능하여 투영 변환이 용이하며 다양한 도법으로 지도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8년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1/5,000 수치지도 제작현황과 각 축척별 수치지도 도엽(圖葉) 수 및 판매금액은 왼쪽 하단표와 같다[4].

이밖에도 수치지도는 1/5,000 수치지도 25도엽으로 1/25,000 1도엽을 제작할 수도 있고, 3차원 입체정보를 제공하여 지형 지물의 사실적 표현이 가능하며, 새주소 시스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각종 주제도(도로망, 토지이용현황도 등)로 편집 및 제작이 가능하며, 상수도 관리 · 하수도 관리는 물론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처럼 수치지도는 21세기 지능형 디지털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 · 관리 및 보급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1/5,000 수치지도 제작현황

수치지도 도엽수 및 판매금액

(2008년 현재)

축 척 별		도 엽 수	판매 금액
Ver1.0	1/1,000	16,278매	18,000원
	1/5,000	16,812매	23,000원
	1/25,000	786매	27,000원
	1/250,000	22매	24,000원
Ver2.0	1/1,000	4,205매	20,500원
	1/5,000	8,026매	26,000원
토지 특성도	1/1,000	9,709매	16,000원
	1/5,000	7,065매	18,000원
토지이용현황도		414매	27,000원
기본 지리 정보		15,000매	3(원/Kbyte)

4) 현재 수치지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 http:www.ngic.go.kr / 오프라인 : 지도판매대행자(중앙지도문화사, 한진지도)

● **필자 소개** _ 전북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전주역사박물관 · 순창장류박물관을 거쳐 현재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자 시청각 기록물 포맷과 기술 동향

심 재 균 | 네이버시스템(주) 상무



기록물 관련 패러다임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기록물로 이동되어 왔고, 그 중 전자 시청각 기록물들의 관련 생산 기기 및 미디어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시청각 기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자료가 처음부터 디지털 자료로 얻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 시청각 기록물들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상용화 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포맷들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기술 동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시청각 기록물의 종류

먼저,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시청각 기록물들에 대하여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디지털 전자 기록물들은 CD, DVD, Hard Disk 등 광디스크 및 하드 디스크 기록 매체 상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 분	종 류		기 록 매 체
사진, 필름류	아날로그	인화사진 등	35mm, 120mm, 4×5원판필름 등
	디 지 털	JPEG, TIFF, PNG, BMP, GIF, RAS 등	CD, DVD, HDD, 기타 전자매체 등
오디오류	아날로그	아날로그 형태의 음성정보 등	카세트테이프, 릴테이프, 카트리지, DAT 등
	디 지 털	WAV, MP3, AAC, RA, WMA, DTS 등	CD, DVD, HDD, 기타 전자매체 등
동영상류	아날로그	아날로그 형태의 영상정보 등	35mm, 120mm, 4×5원판필름 등
	디 지 털	AVI, WMV, ASF, QUICKTIME, MPEG-2, PEG-4 등	CD, DVD, HDD, 기타 전자매체 등

시청각 기록물의 종류

시청각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저장 포맷

위의 여러 형태의 시청각 기록물들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저장 포맷은 아래 표와 같다. 이 포맷은 표준 여부, 보급 정도, 효율성, 손실성, 개방성 등을 고려하여 보존단계와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보존 단계에서는 무손실 또는 무압축의 파일 포맷을 권장하고 있고, 활용 단계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손실 압축 포맷도 권장하고 있다.

구 분		사 진	오디오	동영상
촬영단계		• JPEG DCT BL in JFIF • TIFF UNC • JP2 J2K C LL in JPX FF	• WAVE-LPCM	• MXF • MPEG-2(고품질 profile) • MPEG-4 AVC (고품질 profile)
편집등록단계		• JPEG DCT BL in JFIF • TIFF UNC • JP2 J2K C LL in JPX FF	• WAVE-LPCM	• MXF • MPEG-2(고품질 profile) • MPEG-4 AVC (고품질 profile)
보존매체 수록단계	활용	• JPEG DCT BL in JFIF • JP2 J2K C LSY in JPX FF	• MP3, AAC	• AVI • WMV 7/8/9
	보존	• JPEG DCT BL in JFIF • TIFF UNC • JP2 J2K C LL in JPX FF	• WAVE-LPCM	• MXF • MPEG-2(고품질 profile) • MPEG-4 AVC (고품질 profile)

기록물 저장 포맷 :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무 매뉴얼』, 2007

상용 파일 포맷 : 사진 필름류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국가기록원에서 수집된 시청각 기록물의 저장 포맷으로 권장하고 있는 국제 표준 포맷으로서 일반적인 사진 데이터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포맷이다. 무손실 압축을 지원하지만 대부분 손실 압축 모드로 사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포맷으로 사용되고, 촬영 정보도 담을 수 있는 포맷으로 확장 사용됨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진본 자체가 디지털 데이터화 되고 있다.

***BMP (BitMap Picture)**

주로 무압축 비트맵 이미지를 저장하는 포맷으로서, 큰 이미지를 위해서는 많은 기억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Windows OS 및 인터넷에서 작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PICT**

주로 매킨토시 기종의 표준 그래픽 파일 포맷으로서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상호 호환 가능하며, 24Bit 이상 32Bit의 풍부한 컬러 데이터 표현이 가능하다. 비트맵 및 벡터 데이터 모두 저장 가능하다.

***PNG (Portable Network Graphics)**

Web에서 아이콘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었던 GIF 포맷의 압축 알고리듬이 유료 라이센스화 되자 W3C 위원회에서 새로이 공인한 무손실 압축 기반의 트루컬러 이미지 포맷이다. 탄생 배경상 주로 Web 상의 이미지 데이터로 많이 사용하지만, GIF 포맷과 비교하여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GIF 포맷은 다시 무료 라이센스화 되었다.)

***TIFF (Tagged Image File Format)**

마이크로소프트사 및 앨더스사 등이 H/W 및 OS에 비의존적인 이미지 데이터 표현으로 만들었으며, 매킨토시 및 Windows S/W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캐너용 S/W 및 그래픽용 S/W의 대부분이 TIFF 형식을 지원하며, 흑백 또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파일을 저장 및 전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어도비사의 Acrobat 에서 사용되는 문서 작성용 파일 포맷으로 파일 포맷 리더를 무료로 배포하는 전략으로 크게 보급된 포맷으로서 벡터와 비트맵 데이터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특히 이 포맷에 기반한 아카이브용 확장 포맷인 PDF/A 포맷이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도 이미지 아카이브 저장용으로서 채택 사용하고 있다.

상용 파일 포맷 : 오디오류

***MP3 (MPEG 1 Audio Layer 3)**

영상 압축 기술의 국제 표준 규격인 MPEG에서 규정한 고음질 오디오 압축 기술로서, 음질은 보통 CD 스테레오 음질 수준이면서 데이터 크기는 약 1/10 수준으로 압축할 수 있는 포맷이다. 근래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CD나 테이프 없이 내장된 메모리를 사용하여 MP3 음악 파일을 들을 수 있어 많이 보급된 포맷이다.

***AAC (Advanced Audio Coding)**

MPEG2 Part 7 및 MPEG4 Part 3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MPEG1 내에서 정의된 MP3 포맷보다 음질이 향상되고, 스테레오 2 채널 이상 다채널을 지원하는 오디오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무료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 있어 MP3 플레이어 및 스트리밍 방식의 오디오 플레이어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WAV (Waveform Audio Format)**

압축되지 않은 PCM(Pulse Code Modulation) 방식의 원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포맷으로서, 주로 PC Windows OS에서 사용하는 무압축 무손실 오디오 저장 포맷이다.

***AIFF (Audio Interchangeable File Format)**

매플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무손실 무압축 저장용 파일 포맷이다. WAV 포맷과 마찬가지로 PCM 방식의 포맷 형태로 저장된다.

***WMA (Windows Media Audio)**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스트리밍 오디오 포맷 및 파일 저장용 포맷으로서, MP3와 동등한 수준의 WMA 포맷, AAC 수준으로서 7.1채널을 지원하는 WMA Pro, 무손실 압축을 지원하는 WMA Lossless, 음성과 같은 낮은 비트율의 오디오를 지원하는 WMA Voice 등의 포맷이 있으며, PC Windows 상의 미디어 플레이어로 스트리밍 오디오 또는 오디오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다.

***Dolby Digital, AC3 (Audio Coding 3)**

5.1 채널(Left Front, Right Front, Left Rear, Right Rear, Center, Woofer 스피커용) 을 지원하는 돌비랩사의 서라운드 사운드 포맷이다. Center back 서라운드 채널을 추가한 Dolby Digital Surround EX, 게임과 같은 실시간 인코딩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Dolby Digital Live, AC3 포맷에서 비트율을 향상시키고 채널 수를 늘린 Dolby Digital Plus, HD-DVD 및 Blu-ray Disc 용 무손실 오디오를 지원하는 Dolby TrueHD 등의 확장 포맷이 있다.

***DTS (Digital Theater System)**

스티븐 스필버그의 주라기공원 영화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Dolby Digital 과 유사한 5.1 채널 방식의 멀티 채널 포맷이다. Dolby Digital에 비해 데이터 크기가 크고, 음질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 DTS사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상용 파일 포맷 : 동영상류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동영상 관련 표준 분과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진행해 왔다. 1991년 저장용 동영상을 위한 국제표준으로서 MPEG1이 정의되어 비디오 CD 및 하드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1994년 국제통신위원회(ITU)와 협력하여 전송용 동영상 규격으로서 MPEG2가 정의되어 DVD 저장용 포맷 외에 디지털 TV를 위한 전송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9년에는 웹 및 모바일 사용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그래픽 및 동영상 제작, 배포용으로 MPEG4 규격이 정의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TU와의 협력으로 개선된 영상 알고리듬이 적용된 MPEG4 Part10/AVC (ITU에서는 H.264) 포맷이 상업적으로 많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MPEG7은 알고리듬 보다는 멀티미디어컨텐트에 대한 메타 정보 표현 및 접근에 대한 표준으로 정의되었고, MPEG21에서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즉 컨텐트의 생성으로부터 전송 및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사용자 접근 모델, 지적재산권 표현 및 프로세스 모델 등을 포함한 표준이다.

***WMV (Windows Media Video)**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스트리밍 비디오 포맷 및 파일 저장용 포맷으로서, MPEG4 기반의 영상 압축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PC Windows 상의 미디어 플레이어 로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전 버전인 ASF (Active Streaming Format) 포맷의 개선된 포맷으로 볼 수 있다.

***AVI (Audio Video Interleaved)**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컨테이너 포맷 (여러 종류의 오디오 및 비디오 압축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메타 정보를 정의한 포맷)으로서, 일정량의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를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섞어 놓은 포맷이다. 최근 DivX 또는 Xvid 등 MPEG4 변종 압축 포맷의 오디오 및 비디오 압축 데이터도 이 AVI 컨테이너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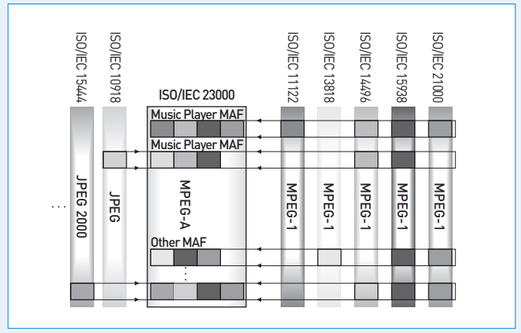
***MOV (Quicktime Movie)**

애플사가 개발한 스트리밍 비디오 포맷 및 파일 저장용 포맷이면서, 컨테이너 포맷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압축 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다.

기록물 포맷 관점에서의 기술 동향

국가 기록물의 관점에서 보면 영구 보존을 위한 전자 시청각 기록물 포맷으로서 특정 회사에 종속적인 포맷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국민 기록물 서비스 또는 기록물 유통 등의 일시적인 목적으로 사용자가 가장 접근이 용이한 활용 포맷으로는 특정 회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존 관점에서 보면 ISO/IEC 국제 표준 위원회의 표준화 활동을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ISO/IEC 내 MPEG 그룹의 주요한 기술적 이슈는 다양한 컨텐트 접속 기기를 위한 확장성(Scalability) 있는 압축 방식, Full HD (1920×1080i) 의 4배 이상되는 해상도를 가진 동영상 알고리듬, 3DTV 등의 기술들이 있으며, 그 중 MAF (MPEG Application Format) 표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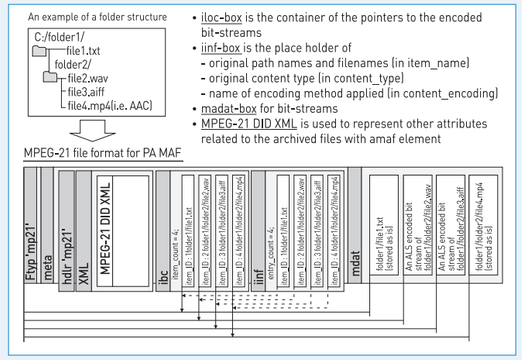
***MPEG-A (MAF : MPEG Application Format)**



근래 MPEG 에서는 너무 기술적인 측면의 여러 표준들이 정의되고 있는데 반해, 보다 시장 접근적으로 MPEG 표준 및 non-MPEG 기술들을 사용자에 적합한 형태의 서비스에 맞도록 빠르게 패키지로 표준화하는 결과물들을 ISO/IEC 23000 MPEG-A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Music Player를 위해 필요한 여러 표준을 묶어서 Music Player MAF로 정의하여, 음악 자료를 위한 MPEG1 및 MPEG4, 음악 자료 메타 정보를 위한 MPEG7, 지적 재산권 관련 MPEG21 표준 등을 포함시켜 새로운 패키징 포맷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MPEG-A 표준 중 기록물 보존 포맷과 유사한 예로 대비해 볼 것이 MPEG-A 중 Part 6 Professional Archival MAF 이다.

***MPEG-A Part 6 Professional Archival MAF**

이 MAF 포맷의 기본 목적은 디지털 파일들의 장기 보존을 위한 패키징 포맷을 정의하는 것이며, 따라서 OAIS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의 참조 모델 규격을 바탕으로 MPEG4, MPEG7, MPEG21 표준을 포함하여 NTT사 주도로 정의된 것이다. 응용 예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폴더 구조로 되어있는 미디어 파일들을 MPEG7 및 MPEG21로 패키징하여 PA MAF 파일로 정의하고 있다. 전반적인 패키징은 MPEG21 포맷을 적용하며, 각 텍스트나 미디어 파일들에 대한 메타 정보는 MPEG7, 각 미디어 파일들은 소스 파일 그대로 저장하여 패키징 되었다.



시청각 기록물의 종류

맺 음 말

앞서 전자 시청각 기록물이 다양한 생산 기기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데이터 포맷의 자료로 생산됨에 따라 현재 상용화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맷 및 ISO/IEC 중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ISO/IEC 의 표준으로 전자 시청각 기록물이 장기 보존된다면, 이 포맷으로 각종 미디어 파일들이 변환될 필요성이 부각되겠으며, 소스 파일 및 변환된 미디어 파일들에 대한 메타 정보 표준화를 위해 앞서 살펴본 MPEG-A PA MAF 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 패키징 표현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바이다.

● **필자 소개** _ 연세대 전자공학과, 한국과기원에서 전산학 석사수료하였으며, 삼성전자를 거쳐 현재 네이버시스템(주)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전자기록 보존매체 측면에서의 DVD+R과 DVD-R의 비교

김 상 국 | 국가기록원 보존복원연구과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관, 기업체 및 일반 사용자들은 기록 저장을 위해 DVD-R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 저장을 위한 용도로는 DVD+R이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DVD+R이 DVD-R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DVD+R이 DVD-R보다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광 저장매체(Optical storage media)는 적정한 용량, 휴대 및 사용의 편리성, 콘텐츠에 대한 손쉬운 접근(Accessibility)의 장점과 더불어 초창기에 비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매체중의 하나이며, 기술의 발전으로 가용 용량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광 저장매체의 사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현재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의 보존매체로서 CD(Compact Disc)와 DVD(Digital Versatile Disc)[1]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DVD를 기록 보존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오디오는 CD, 동영상은 DVD에 수록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많은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DVD가 보다 저렴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기록용으로 사용되는 DVD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국가기록원은 과거 디지털 기록을 수록하던 1998년부터 DVD-R 계열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R 계열(Series)보다는 +R계열이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금부터 기술하는 이론적 내용을 통하여 향후 기록 보존을 위한 DVD는 -R계열 보다는 +R계열의 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VD 종류

DVD는 Digital Video Disc의 약자로 처음 "비디오 기능의 강화"에 주된 목적을 두고 개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DVD는 비디오디스크보다 "다기능 디스크"로 발전하여 최근에는 Digital Versatile Disc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DVD는 사용용도와 규격을 제정한 기구에 따라 약간 다른 명칭을 붙인다.

1. DVD-ROM (DVD-Video, DVD-Audio)

DVD-ROM은 CD-ROM의 확장된 개념으로 DVD-Video와 DVD-Audio로 나눌 수 있다. 가정용 영상매체로 출발한 DVD-Video는 MPEG-II 방식의 영상 압축과 AC-3 입체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이 핵심이며 기존 매체가 할 수 없었던 대화형 진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DVD라 하면 DVD-Video를 가리키는데, 정해진 DVD-Video의 규격은 4.7GB 중 3.4GB 공간은 동영상을 위해 나머지 1.3GB는 오디오와 자막 등의 부가적인 data를 위해 할당된다.

〈표 1〉 DVD 규격별 종류

DVD Forum[2] 규격	DVD +RW Alliance[3]
- DVD-ROM : DVD-Video, DVD-Audio - DVD-R - DVD-RW - DVD-RAM	- DVD+R - DVD+RW

DVD-Audio는 기존 Audio CD를 대체할 미디어로, 가전업계 등 40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는 규격 표준화 단체 DVD포럼에서 DVD-Audio 규격 1.0 버전을 발표했다. DVD-Audio는 최고 192kHz/24비트(2채널 때)의 고음질을 수록하고, 최대 6채널까지 멀티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CD의 16비트 샘플링 주파수가 44.1KHz(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음질이 좋다)인 데 반해, 오디오 CD 대체 규격은 96kHz에 24비트이다. 이는 9만 6천분의 1초마다 음의 고저를 24비트(2의 24승)의 단계로 신호를 잘게 쪼개어 디지털 데이터화 했다는 의미다. 24비트의

1) DVD를 Digital Video Disc라고도 하는데, 이는 디지털 영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과거 아날로그 데이프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DVD는 최초 등장 배경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동영상, 데이터, 디지털 오디오 등)를 수록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DVD를 Digital Versatile Disc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2) DVD Forum은 DVD 규격의 보급촉진이나 새로운 규격의 책정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고화질의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차세대 광디스크로 소니와 필립스가 멀티미디어 컴팩트 디스크(MultiMedia Compact Disc, MMCD)를, 도시바, 파나소닉 이외의 대형 가전메이커가 SD(Super Density Disc)를 각각 개발하면서 제품화를 목표로 하였지만, 규격분립을 피하기 위해 양쪽 진영이 양보를 함으로써 1995년에 DVD 컨소시엄(Consortium)이 발족하여 양쪽 규격을 융합한 형태로 현재의 DVD 규격을 책정하게 되었다.

3) DVD+RW Alliance Forum은 1997년 보다 유연한 조직으로 DVD 포럼이 개편되었지만 멀티미디어 콤팩트 디스크를 고안한 소니와 필립스가 DVD-RAM에 반발하면서 DVD+RW 그룹을 만든 것이 DVD+RW Alliance Forum의 계기가 되었다.

음질은 인간의 가청 주파수인 20~20,000Hz를 넘어가는,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데이터화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소리로 재생해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존 오디오 CD를 능가하는 깨끗한 소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재생시간이 74분 정도로 되어 있으며, 지역별 코드 제한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2. DVD-R (DVD-Recordable)

한 번 쓴 데이터를 지울 수 없는 기억형 DVD로, 지름 8cm와 12cm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름 12cm의 디스크 한쪽 면의 기억 용량은 3.95GB이고 지름 8cm 디스크 한쪽 면의 기억용량은 1.23GB이다. 양면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있으며, DVD-ROM 장치로 데이터를 읽는다. DVD 종류 중에서 DVD-R, DVD-RAM, DVD-RW는 모두 기록이 가능한 매체로 DVD-R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복적으로 기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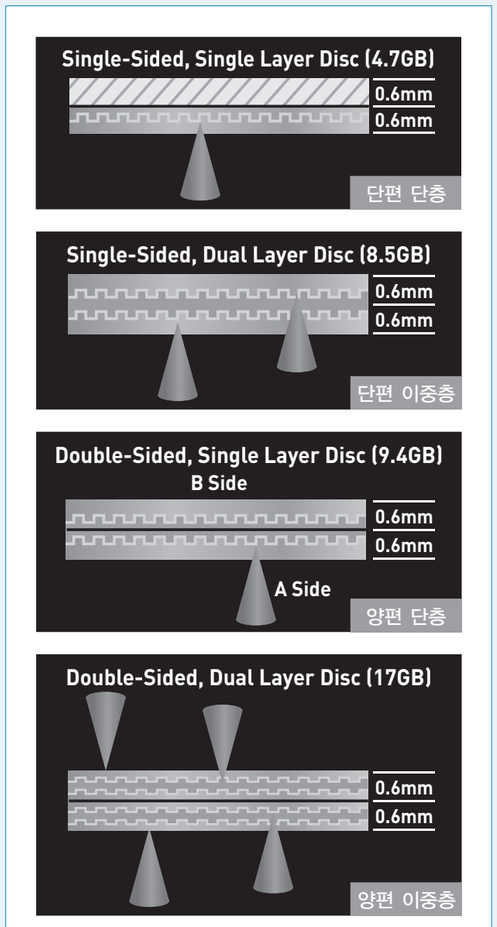
3. DVD-RW (DVD-Read & Write)

여러 번의 쓰고 지우기가 가능한 저장매체이다. 이 점에서는 DVD-RAM과 유사해보이지만 DVD-RW는 CD-R과 같이 상변환(Phase change) 화합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0회 정도까지만 기록이 가능하다. DVD-RAM의 경우 디스크 표면의 튀어나온 Land와 움푹 파인 부분인 Groove에 모두 기록하는 반면, DVD-RW는 Groove에만 기록한다. Header와 Space area가 있는 DVD-RAM에 비해 DVD-RW는 CD-RW처럼 데이터의 흐름만 저장한다. 이외에도 DVD-RAM이 650nm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DVD-RW는 635nm의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런 이유로 DVD-RAM과 DVD-RW는 미디어를 호환할 수 없으나 펌웨어 등의 교체로 호환성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4. DVD-RAM (DVD-Random Access Memory)

읽기 쓰기가 가능한 DVD로 상변화 디스크를 이용해서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다. 1회만 쓸 수 있는 DVD-R이나 여러 번 쓰고 지울 수 있는 DVD-RW에 이어서 차세대 대용량 미디어로 규격화되었다. 1997년 미국 등의 10개 社가 발표한 통일 규격은 기억용량이 한쪽 면 2.6GB, 양쪽 면 5.2GB이다. 기록 방식은 Land Groove(일본 마스시다, 도시바 등이 채용한 녹음방식)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DVD는 구조에 따라 용량이 달라지며, 국가기록원에서는 주로 단편단층(Single-Sided, Single Layer)구조의 4.7GB DVD-R을 사용하고 있다. 구조에 따른 DVD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구조에 따른 DVD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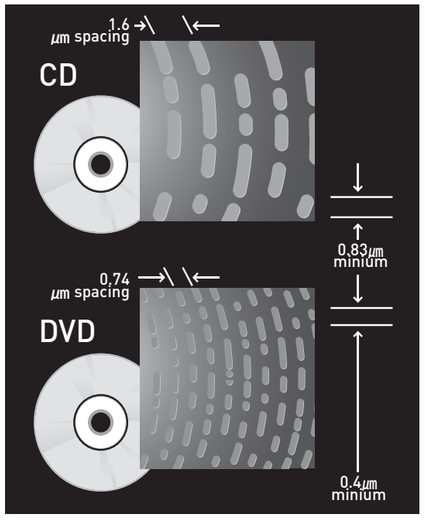
***단편단층 구조 (Single-Sided, single layer)**
1면 1층 방식의 DVD는 CD-ROM 용량의 7배인 4.7GB를 저장할 수 있다.

***단편이층 구조 (Single-Sided, Dual Layer)**
한 면을 2층 구조로 만들어서 최대 8.5G(1층 4.7G + 2층 3.8G)까지 저장할 수 디스크이다.

***양편단층 구조 (Double-Sided, Single Layer)**
1층 구조의 한 면에 4.7GB씩 양면을 이용하여 최대 9.4(4.7G+4.7G)GB를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이다. 일반 DVD 드라이브로 이 디스크의 반대쪽 면을 읽으려면 디스크를 뒤집어주어야 하지만 양면 재생이 가능한 DVD 드라이브는 뒤집지 않아도 된다.

***양편이층 구조 (Double-Sided, Dual Layer)**
2층 구조의 한 면에 8.5GB씩 양면을 이용하여 최대 17GB를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이다.

DVD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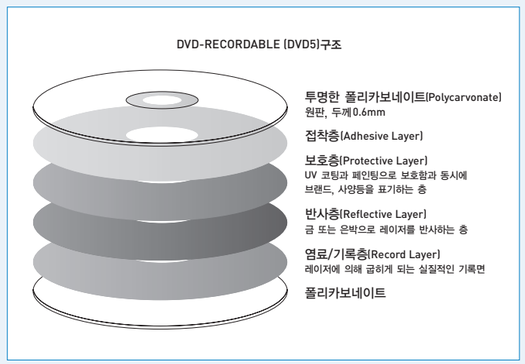
〈그림 2〉 DVD와 CD의 트랙간격

DVD의 외형은 지름이 120mm이고, 두께는 1.2mm이며 양면을 모두 사용하기 위하여 0.6mm 두께의 디스크 두장을 접합하여 만든다. 단면 단층을 사용하는 DVD와 CD의 트랙간격(Track Space or Pitch)을 비교하면 CD가 1.6㎛이고 DVD는 0.74㎛으로 절반 이하이다. 또한 Sector의 최소 크기는 CD가 0.83㎛이고 DVD는 0.4㎛으로 절반 이하이다. 결국 Track과 Sector를 종합하여 DVD의 밀도는 CD에 비하여 4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DVD Recordable

DVD recordable 디스크는 표준적인 120mm 지름의 원방형으로 〈그림 3〉과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 DVD는 0.6mm의 폴리카보네이트 원판을 2개 사용한다. 2개의 원판 사이에 기록층을 넣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며 CD처럼 윗면이 긁혀도 지장이 없는 보호 구조를 겸하고 있다. 그러나 DVD의 경우 2개의 원판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았을 경우 원판이 분리될 수 있으며, 억지로 DVD를 휘어지게 하거나 강한 열의 팽창 또는 수축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반사층은 금 또는 은을 섞어서 Laser를 반사하는 층을 형성한다. 우리가 보는 DVD의 색상은 반사층과 염료층의 색상 혼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DVD-R, +R와 같이 한번 기록 가능한 디스크는 〈그림 3〉과 같은 구조이지만 DVD-RW, DVD+RW, DVD-RAM 디스크는 기록층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보통 위 · 아래에 염료보호층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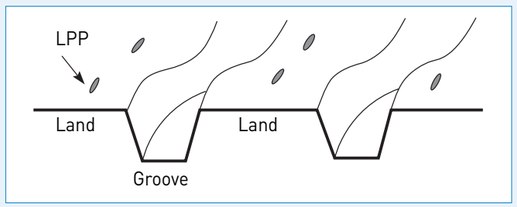


〈그림 3〉 DVD Recordable 미디어의 구조

DVD-R과 DVD+R의 차이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VD Recordable 미디어인 DVD-R과 DVD+R은 구조 및 제작방법이 동일하나, 데이터를 읽고 쓰기위한 기준점인 Addressing 방식[4]에 있어서 차이점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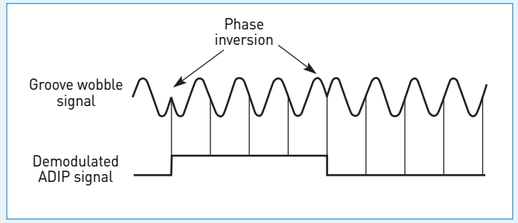
DVD-R의 Pre-Format은 〈그림 4〉와 같이 데이터(DVD에서는 이를 PIT라고 함)가 기록되는 Groove와는 별도로, Land부분에 주소인식을 위하여 디스크 제작시 PIT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를 LPP(Land Pre-Pit)이라고 한다.



〈그림 4〉 DVD-R의 LPP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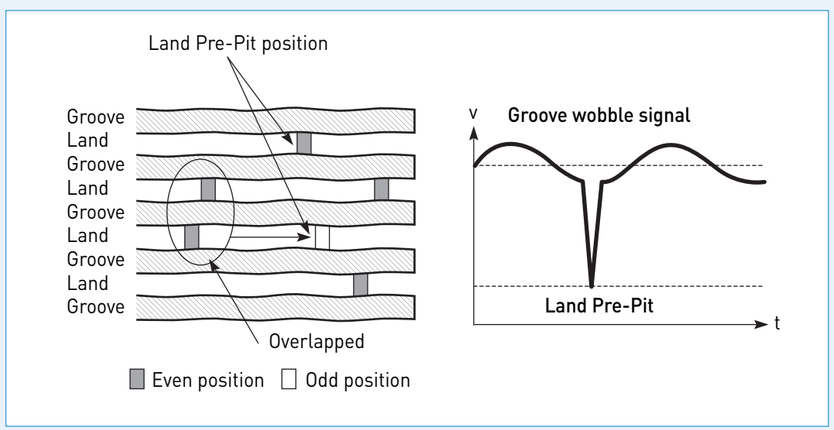
이때 LPP는 140.6kHz의 중심 주파수를 갖는 Wobble 파형을 따라 기록하게 되며 〈그림 5〉와 같이 LPP가 위치한 부분에서 신호세기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DVD+R의 Pre-Format은 〈그림 6〉과 같이 817k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Wobble 파형을 위상변조(Phase Modulation)시켜 주소를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ADIP(ADdress In Pregroove)라고 한다.



〈그림 6〉 DVD+R의 ADIP 방식

신호해석이론에 의하면 위상변조 방식이 Pre-Pit 방식보다 소음이 적고 따라서 ADIP는 LPP보다 다른 외적인 저해요소(전기 노이즈, 디스크 튕김, 초점이 맞지 않는 문제 등)들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다. 드라이브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음보다도 큰 소음은 DVD-R에 데이터를 기록함과 동시에 Pre-Pits 정보를 읽으려 할 때 생긴다. 기록용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과 정보를 읽기 위한 빔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Pre-Pits의 정보를 잘 읽을 수 없고 따라서 링킹(Linking)[5]이 정확하지 않을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림 5〉 LPP의 위치 및 신호세기

그리고 Pre-Pits 기술은 소음도 많이 나지만 디스크의 회전 속도가 일정 이상을 넘기 힘든 문제도 있다. 높은 속도에서는 Pre-Pits의 정보를 읽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DVD+R이 사용하는 위상변조기술의 경우는 안정적이다. wooble 파형 상에 Pre-Pit 정보는 오직 Pre-Pit이 있는 곳에만 있지만 위상변조의 경우에는 하나의 완전히 전도된 위상 위에는 어디든지 정보가 있는 것이다. 규격에 따르면 DVD-R의 최소 Pre-Pit은 1T(1/26.16E6 s)이고 DVD+R의 Wooble 주기는 32T여서 훨씬 정보를 감지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Pre-Pits 방식이 위상변조 방식보다 에러도 나기 쉽고 데이터를 제대로 읽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나 오 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VD-R보다는 DVD+R의 규격이 전자기록 보존매체의 용도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DVD-R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는 DVD+R보다 먼저 규격화 되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며 소량 생산되는 DVD+R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DVD+R이 DVD-R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격화 되었고 따라서 기술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DVD-R이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는 배경에는 디스크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유도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미 투자한 DVD-R의 생산시설 및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였을 것이고 이는 국가기록원 같이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 기록의 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Addressing(주소체계) : DVD드라이버의 레이저가 디스크 표면의 트랙을 따라 정확하게 디지털 데이터(0 또는 1)를 쓰거나 읽기 위해서는 광 디스크 제작 시, 드라이버가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인식(marking)을 삽입하는데 이러한 것을 Pre-format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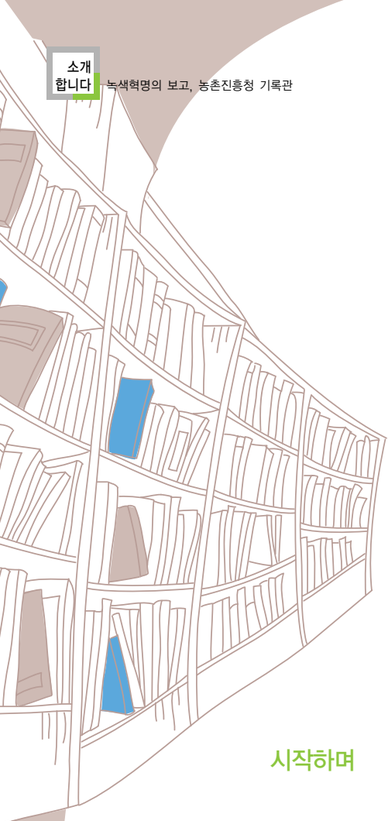
5) Linking : 데이터를 기록한 후 다음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연결하는 부분

본 보고서에서는 DVD+R의 강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차후 실제 기록과 측정을 통하여 DVD+R과 DVD-R의 비교 분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전자기록물의 보존매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ISO/IEC 10149. 1995. Information technology- Data Interchange in read only 120mm optical data disks(CD-ROM)
[2] ISO/IEC 16448. 2002. Information technology- 120mm DVD Read only disk
[3] ISO/IEC 17344. 2006. Information technology- Data Interchange on 120mm and 80mm Optical Disk using +R Format
[4] Joel Sylvester. January 2001. Reed Solomon Codes

● **필자 소개** _ 경북대에서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보존복원연구과 전자매체 보존·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녹색혁명의 보고,

농촌진흥청 기록관

이 숙 희 | 농촌진흥청 기록연구사

시작하며

농촌진흥청은 국가의 근간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촌진흥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농가보급을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1962년 개청 이래, 녹색혁명을 통해 쌀 자급을 달성하고 나아가서 백색혁명으로 채소·과일 등 농산물의 연중 생산체계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농업의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발족당시 농촌진흥청은 2개국 8개과(課), 30개과(科, 課)로 구성된 11개 시험장연구소 및 9개 지소의 규모였으나, 최근에는 1관, 3개국, 14개과(課), 86개과(科, 課)로 구성된 5개 소속기관·시험장, 출장소 등의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정원도 이 기간동안 781명에서 2,04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작지않은 규모의 국가기관으로서,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의 양도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중요 기록물들이 방치되고 있었다.

1999년 초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으로 기록관(구, 자료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04년 기록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7월 (구)도서관 2층을 개축하여 현재의 기록관으로 개관, 본격적인 기록물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다.

농촌진흥청 기록관의 설치와 운영현황

본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2004년 12월에 지하 문서고를 기록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그 이듬해 7월에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도서관 2층 건물로 개축·이전했다. 이후 2006년 2월에 〈농촌진흥청 자료관 운영규정〉을 제정함과 동시에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재정비하여 각 부서로 배포하는 등 기록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3월에는 기록관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담당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이후 본청 기록관은 꾸준히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기록물 수집과 이관을 받은 결과 67,000여 권의 종이 기록물을 보유하였고, 동시에 본청 기록관 외에도 소속기관별로 문서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서를 제외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전자기록물, 간행물, 시청각물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기록물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되, 간행물(시험연구보고서)은 도서와 함께 우리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별도관리하고, 시청각물의 경우 시청각물을 주로 생산하는 홍보담당부서(현, 대변인실)에서 별도 시청각자료실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기록관의 인력은 기록연구사와 무기계약 직원 1인으로 총2명을 두고 있고, 기타 5개의 소속기관에는 기관 대표담당자들이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모든 처리과에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소속기관의 경우 본청의 중앙집중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을 대표하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자료실



영구보존실



일반문서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관은 지상 2층에 위치하며 총면적 348.6㎡이고 영구보존실, 일반문서고, 열람실, 작업실, 행정실 등으로 구성되어 11,000여 권의 소장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각 문서고의 면적은 영구보존실 45㎡, 일반문서고 258.6㎡이고, 내부에 이동식서가 총 70개가 설치되어있다.

본청 기록관 내 소장문서는 영구보존실 702권, 일반문서는 9,468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영구보존실은 항온항습기, 가스식소화기, 온습도계 등 법정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기록물의 최대한 안전한 보존을 꾀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 마인드 제고 및 지도감독체계 강화

우리청은 2004년 기록관 설치 및 기록연구사 배치를 출발점으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시도한 바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각 처리과의 지도·감독 체계가 강화되는 등 전 직원의 업무마인드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년도의 경우 113개의 처리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을 포함하여 5회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여 기록물 정리, 전자문서 관리방법, 기록물 평가방법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기록관리 실무연구동아리를 구성하고 현재 총 8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주로 기록관리 업무의 추진방향, 기록관리 실무 및 최근 동향, 질의응답 등 업무지식을 공유하여 기록관리의 실무지식을 학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속기관의 기록물실태 관리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상세평가지침을 수립, 6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으로는 기관 보유기록물 실태점검을 포함하여, 업무인프라 구축상황, 직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참석률, 업무수행 시 법정기준 준수여부 등이 포함되며, 평가를 통해 현행 기록관리 업무 체계 개선 및 안전한 관리·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법정 기준에 충실한 기록관리제도 내실화

우리청은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법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는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그리고 각 처리과에서 보관중인 기록물의 기록관 이관을 시행하여 기록물 유실 및 훼손을 방지하였으며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존을 위한 자체 DB작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존과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직원들의 업무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기록물 평가에 있어서, 매년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 10,000여 권에 대한 기록물 평가심의를 통해 30%정도의 중요기록물을 재평가 후 폐기를 방지하였다. 지난 시절 심의없이 정리차원에서 폐기했던 관행들을 근절시키고, 매년 3단계의 심의절차를 거쳐 기록물 폐기의 중요성을 전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1차 평가에서부터 3차 평가심의회 및 기록물 파쇄현장까지 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개정 시행된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중요기록물의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는 등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속기관의 기록물의 경우 열람도가 높은 10년 이하 기록물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자체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그 생산목록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정보 공유 및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기록관 건물 및 전산장비 보안업무편람을 발간하였고, 기록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기록관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청사로서 우려되는 보안 및 재난대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009년부터는 지난해 구축된 기록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이나라 및 온나라 전자문서 이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물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기록관 내 업무참고자료 3,600권의 자체 DB사업을 통해 기록관 내 공간활용 및 등록자료의 검색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향후 전망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8년 12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기록물관리 현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당당히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지난 2004년 기록관(구, 자료관) 설치 및 자료관시스템 도입 이후 3년 만에 이룬 기적 같은 행적이었다. 이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근 10년이 지나면서, 기본적인 제도절차를 확립하고, 원칙적인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온 노력의 결과였다. 여전히 예전의 기록관리 관행과 인식은 잔존하고 있지만, 업무기록물의 철저한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의해 직원들의 기록관리 체감온도는 상승하고 있다.

2004년 겨울, 기록관 구축을 시작으로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최근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관리에 기반을 둔 기록물 관리체계 정착에 주력해 왔다. 지속적인 담당자교육,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꾸준히 내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우리청은 아직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지속적인 업무피드백을 통해 기관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추진, 업무담당자들의 실무지식 함양, 고급연구정보의 관리 및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청의 정체성 확립 및 농업과학기술의 선진화에 매진하고자 한다.

Interview



전 영 춘
농촌진흥청 기록관장

1 '08년도 "기록물관리 현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향후 기록관의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청 기록관은 2004년에 설립된 이후 예전의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과 인식은 아직 잔존하고 있지만, 업무기록물의 철저한 관리 및 직원들의 인식제고가 현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이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관 내의 기록관리 의식개혁, 인프라 구축 및 법정 업무수행을 중점 업무추진과제로 선정하여 향후 농업전문 기록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기록관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돋보이는데, 현재 기록관-농업과학도서관-대변인실에 분산된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한 별도 계획은 마련 중인지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하는 기록은 기록 자체의 중요성 외에도 유형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기록물은 현재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박물이나 시청각물의 경우 기록관 차원에서 전용서고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는 별도 보존중입니다. 우리 청의 정체성 확립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므로 추후 전용보존시설 확보 및 관리인력 확충을 통해 고급기록정보의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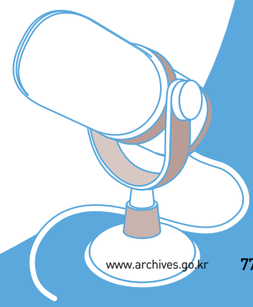
● **필자 소개** _ 명지대 기록관리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에 근무중이다.

3 다른 기관과 달리 연구직 중심의 조직 구성으로 보아 농업 전문정보의 생산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연구기록자원의 관리 방안이나 대국민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농촌진흥청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서 농업연구결과물, 농업기술정보, 영농기술, 농자재정보 등 주요 연구 자료는 국민들, 특히 농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로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기록물 중 농촌진흥사업 및 작물, 원예, 농기계 등 농업분야별 관련 동영상 자료와 사진자료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업무와 관련된 일반 행정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10년 이상 기록물을 선별하고 이를 꾸준히 DB화하여 신속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입니다.

4 처리과와 소속기관에서 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농촌진흥청은 2004년에 기록관 설치 및 기록연구사 배치를 출발점으로 본격적인 기록물 관리를 시작한 이래, 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은 매년 꾸준히 수행하고 있고, 그 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관 업무를 수행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사무실 내 보유기록물 현황파악 및 내부직원들에게 기록물 이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기록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담당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학습동아리 운영, 업무 매뉴얼 발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업무활용도 및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10년 이하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초기 공문서 체계의 성립 과정 〈2〉

– 조선 초기 인사 문서

박 준 호 |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은 조선의 행정 조직에서 사용하였던 고신(告身 ; 敎旨), 관(關), 첩정(牒呈), 첩(帖), 입안(立案)과 같은 다양한 공문서(公文書)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집에 있는 공문서 서식과 공문서의 운영 체계라 할 수 있는 행이(行移 ; 『경국대전』에서는 '용문자식' 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식에 대한 규정은 국가 행정 체계의 근간으로 상부 행정 조직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 이 규정에 따라 지방의 하부 조직 까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전의 공문서식 내용을 분석하면 당시 국가 체제의 특징과 운영상의 장 ·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한 규정은 제정 당시의 복잡한 국가 운영의 행정적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 방식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경국대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조선적(朝鮮的) 공문서 체계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를 규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현전하는 공문서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산견되는 몇몇 조선초기 공문서 자료를 통해의 특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용문자식(用文字式)을 제일 앞에 규정하고 있다. 문서 행정 용어 중에서 '용문자'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조선의 『경국대전』이 거의 유일하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이(行移)라는 말을 썼고, 우리나라도 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나 『경국대전』만 용문자라는 말을 썼다. 문자(文字)는 당시 용어로 문서(文書), 혹은 공문서(公文書)를 가리킨다. 용(用)은 사용한다는 뜻이므로, 〈용문자식〉은 문서를 사용하는 방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기관과 기관이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어떤 원칙으로 작성하며, 그 체제는 어떠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국대전』 〈용문자식〉만 규명해도 조선의 공문서 시스템은 거의 밝혀진 것과 다름없다.

『경국대전』에서 〈용문자식〉 다음에 규정한 내용은 〈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과 〈문무관오품이하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 『경국대전』 문서식의 앞부분에 규정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임명 문서의 발급이 국가 행정 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얼마나 될까? 요즘은 거의 인사 발령 문서를 만들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데, 당시는 무슨 까닭에서 이처럼 인사 문서에 정성을 들였을까. 그리고 그 규정을 이처럼 앞부분에 먼저 규정하고 있었을까.

먼저 『경국대전』에 규정된 인사 문서의 서식을 살펴보자.

1) 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敎旨
某爲某階某職者
年寶月日

2) 문무관오품이하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某曹某年某月某日奉
敎具官某爲某階某職者
年印月日
判書臣某 參判臣某 參議臣某
正郎臣某 佐郎臣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지(敎旨)"의 문서식이다. 관직을 받는 사람 이름과 받는 품계 및 관직 그리고 연호가 기재되는 교지는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간 고문서 연구의 주변으로만 인식되었다. 또한 현재적인 의미로도 인사 문서는 그리 매력적인 주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인사 문서에는 전근대적 국가 통치 체제인 왕정의 권력에 대한 첨예한 대립 구조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인사권의 행사 범위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이고, 그 권력을 상징화하는 표시가 바로 인사 문서였던 것이다.

조선 왕조가 개창된 초기에는 행정 체제를 확정하면서 인사 제도에 대한 고민이 다른 어느 부분보다 치열하였다. 그 결과가 『경국대전』 공문서식의 제일 첫 번째에 인사 문서 형식을 규정하게 된 까닭이다.

조선초기에는 인사 문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왕조의 최고 정점에 있던 국왕이 아래 사람들을 통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는 인사권을 장악하여 신하들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반면 신하들은 인사권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받아서 그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의 힘을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보이던 국왕과 신하가 제도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바로 "서경(署經)"이었다.

서경은 관리의 인사나 법령 제정 등에 대간(臺諫)의 합의를 거치는 제도이다. 국왕이 어떤 인물을 중요 요직에 임명하고 싶지만, 대간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대간에서는 해당자의 적격 여부를 포함해서 친족까지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정도로 엄격하게 서경을 적용하였다.

대간의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아무리 국왕의 명령이 있었다 한들 관직에 나아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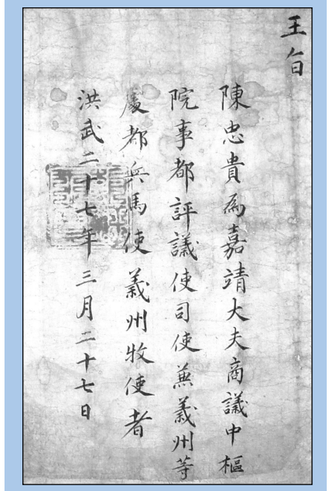

王旨
陳忠貴爲嘉靖大夫商議中樞
院事都評議使司使燕義州等
處都兵馬使義州牧使者
洪武二十七年三月二十七日

그림1 왕지(王旨)
- 68 X 43 (cm)
- 보물 제 1161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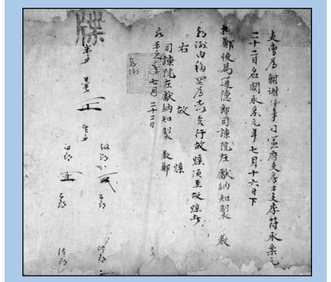


그림2 고첩(故牒)
- 44 x 50 (cm)
- 거창 초계정씨 종가 소장

수 없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서경을 통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교지"가 발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지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주무 부서인 이조나 병조에 왕명이 하달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왕명은 대간을 경유해야 한다는 행정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간의 서경은 신하된 입장에서는 국왕의 왕권을 견제할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측근 인사로 권력을 집중 시키고자 하는 국왕으로서는 대간의 서경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인사에 대한 대간의 서경은 고려시대에 더욱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에는 1품에서부터 9품까지 모든 관리의 임명에 대간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만큼 고려시대에는 국왕의 인사 권한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바뀐다. 태조(太祖)는 하급 관리의 임명은 대간의 서경을 경유하지만, 상급 관리의 경우에는 국왕의 일방적인 지시 사항으로 인사권이 시행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사에 대한 대간의 서경 범위는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국왕의 권한이 클 때는 대간의 서경 범위가 축소되었고, 국왕의 권한이 작을 때는 모든 관원의 임명에는 대간의 서경이 필요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1품에서 4품까지의 고위 관리는 왕지(王旨)라는 인사 문서를 국왕이 직접 내려서 대간의 서경을 거치지 않았고, 5품 이하 관리는 교첩(敎牒)이라고 하여 대간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경 범위의 문제는 계속 논쟁이 있었고, 1400년(정종 1)에는 고위 관리도 대간의 서경을 경유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시 고려의 서경 제도로 복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왕권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태종(太宗) 연간 1413년(태종 13)에는 다시 태조 때 제정한 방식으로 환원하였고, 1415년(태종 15)에는 서경을 하는 기간을 50일로 한정함으로써 대간의 서경권을 더욱 약화시켰다. 세종 초기에는 다시 대간의 서경 범위가 넓어졌다가 이내 4품까지는 국왕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서경 범위의 변화에 맞춰 인사 문서는 다양하게 작성되었다.

1 국왕의 인사 의지를 담은 문서 ; 왕지(그림1)

1394년(태조 3) 진충귀(陳忠貴)를 가정대부(嘉靖大夫)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도평의사사사(都評議使司使) 겸 의주등처도병마사(義州等處都兵馬使) 의주목사(義州牧使)에 임명하는 왕지이다.

가정대부(嘉靖大夫)는 2품의 품계이므로, 고위 관료인 진충귀의 관직 임명장은 국왕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왕지로 발급한 것이다. 왕지에는 국왕의 어보(御寶)만 찍혀있으므로 임명 문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대간 등의 견제가 전혀 없었다.

2 서경을 받은 관리 임명 문서 ; 고첩(그림2)

1403년(태종 3) 정전(鄭佺)을 통덕랑(通德郎 ; 종5품) 사간원(司諫院) 좌헌납(左獻納) 지제교(知製敎)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조선초기 관리 임명 절차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순서를 보면, "1403년 7월 16일 정전을 좌헌납에 임명하라는 국왕의 하비(下批)가 있음 → 1403년 7월 22일 대간의 서경을 통과함 → 1403년 7월 22일 이조(吏曹)에서 인사 문서 발급"의 순서이다. 이 과정에서 대간의 서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사헌부(司憲府) 이방(吏房) 서리(書吏) 아무개의 담당으로 공문서가 이조에 전달되었다는 기록과 "조사유이관(朝謝由移關)"이라는 서경(署經=朝謝)이 공문 전달(移關)을 경유했다는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간의 동의가 없었다면 인사 문서는 이조에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전에 국왕이 지시한 인사는 결국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왕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행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균관 대사성도 서경을 거쳐 임명 ; 관(그림3)

정전(鄭佺)이 정5품 통덕랑 시절에 서경을 받아 부임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정3품 당상관인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의 벼슬조차도 대간의 서경을 받아야 한다면 국왕의 인사권은 상당한 견제를 받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 문서는 정전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하면서 앞서 사간원 좌헌납으로 임명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경을 한 임명 문서이다. 문서가 발급되기까지의 순서는 "1413년 4월 25일 정전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하라는 국왕의 하비 → 1413년 5월 11일 대간의 서경을 통과함 → 1413년 5월 17일 이조에서 임명 문서 발급"이다.

이 문서는 정3품의 고위직 관원까지도 서경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현전하는 유일한 인사 문서 자료이다. 매우 가치가 큰 공문서이다.

4 유명무실해지는 서경 ; 교첩(그림4)

1491년(성종 22)에 발급된 인사 문서이다. 이 문서는 『경국대전』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발급된 이른바 〈문무관 5품 이하 고신〉이다. 문서에는 대간의 서경 경유 사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좌측 하단에 흐릿한 글씨로 "신십일입이준(辛十一卄二准)"이라는 기록과 본문과는 다른 관인(官印)이 하나 찍혀 있다. "신십일입이준"은 신해년(辛亥年), 곧 이 문서가 작성된 1491년을 가리키고, 십일(十一)은 문서가 발급된 달, 곧 11월을 가리키며, 입이준(卄二准)은 이 문서의 대간 서경을 마친 "22일 확인함"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기록은 "1491년 11월 22일 대간이 서경을 인준함"의 뜻인 것이다. 이조에서 문서를 1491년 10월에 발급했는데, 이 보다 한달이나 뒤에 대간의 서경이 있었던 것이다. 이전 시기에 대간의 서경을 경유한 다음에 이조에서 인사 문서를 발급한 것과는 상이하게, 이조에서 인사 문서를 발급한 다음에 대간의 서경이 있었던 것인데, 이로써 『경국대전』 체제 이후부터는 인사권에 있어서 국왕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대간의 서경권이 유명무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런 조치가 단행되었을까. 조선이라는 왕조를 국왕 중심 체제로 만든 것은 『경국대전』을 시행하였던 세조(世祖)이다. 세조 때 인사 문서의 변화는 더욱 흥미롭다.

● 필자 소개 _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문헌관리학을 전공하고 현재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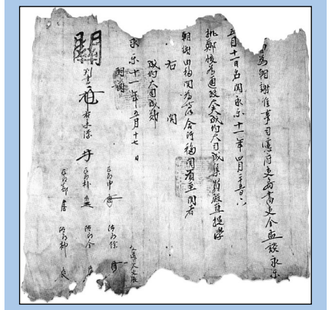


그림3 관(關)
48 x 45.9 (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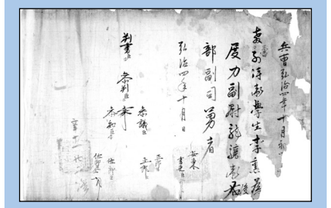


그림4 교첩(敎牒)
42 x 64 (cm)
안동 주촌 진성이씨 종가 소장

기록을 통해서 본 70년대 '문예중흥 5개년 계획,



이 영 도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4~1978년)의 수립과정과 '문예중흥선언'

1970년대 초에 수립된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은 60년대 이후 정부가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개입하는 계기가 된 경제개발계획과 동일한 기조와 정책을 문화예술분야에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지시를 통해서 수립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취임사에서 "나는 선대의 빛나는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예와 학술의 적극적인 창발(創發)로 문화한국중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1972년 예산교서(豫算敎書)에서 "정부는 문예진흥 장기계획을 세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과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사상과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공보부는 우리나라의 문예중흥 장기계획의 수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공포(법령 제2337호), 1972년 9월 29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6357호), 1972년 9월 29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규정 공포(대통령령 제6358호), 1973년 10월 1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개원하게 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예술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제정되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하여 73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이를 실행하는 제도적 기구로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20일)을 제정하고, 1973년 10월 20일 '문예중흥선언'을 발표하였다. 문예중흥선언은 박종화, 박종홍, 곽종원, 박목월, 조연현, 선우휘, 김형석 등을 기초위원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예중흥선언(1973.10.20)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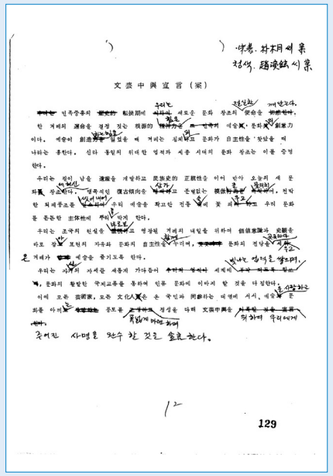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 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 시대의 문화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지향(復古指向)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고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속에 꽃 피우고 우리 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 받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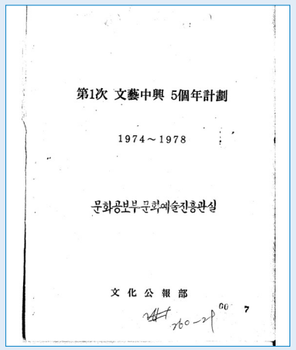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史觀)을 바로 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기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 문화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문예중흥선언문(안)(1973)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3)



전국문화예술인대회(1975년)

「문예중흥선언」은 1973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제정 행사로 중앙국립극장에서 열린 전국문화예술인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은 1973년 10월 18일에 확정되었다.



문예중흥에 관한 공개토론회

주최 : 문화공보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8.5.10 ~ 5.11)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의 내용

먼저,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은 ① 전통문화의 침체와 변질, ② 도시와 농촌문화의 현저한 격차, ③ 창작조건의 불비(不備), ④ 문화예술의 선도적 역할 미흡, ⑤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중흥을 이룩한다"라는 기조하에 ①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새 민족예술을 창조한다, ② 예술의 생활화,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③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화하여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한다를 중점목표로 하여 1974~78년까지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투자규모와 자금조달은 5개년동안 총 25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자금 조달은 정부예산 177억 원(71%), 민간투자 73억 원(29%)으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① 전통문화의 개발계획, ② 예술 진흥계획, ③ 대중문화의 창달(暢達)계획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통문화의 개발계획은 ① 민족사관 정립(민족사의 재정리, 고전종합조사 및 국역, 한국학 개발), ② 전통예능(전통예능의 개발보존, 교육강화 등), ③ 문화재개발(문화재 기초조사, 문화재 정비개발-경주 · 부여 · 공주 등 고도(古都)문화재 정화, 제주 · 영동 등 관광지역 문화재 개발, 위인선열과 전사(戰史)유적 정화, 생활민속유산 정비, 보존과학기술 개발, 문화재보호운동 강력전개)이다.

예술 진흥계획은 ① 문학분야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온 민족의 저력이나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등 현대사를 창조해 나가는 국민의 개발의지가 담겨있는 민족문학이 창조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신 한국문학전집 발간(1970년대를 사는 새 한국인의 사상과 슬기를 작품화), 작품활동지원(새마을 · 경제개발 등 소재발굴 지원, 작가기금 건립운영 등) 등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② 미술분야는 민족사화(民族史畵)의 집대성으로 국민의 민족의식을 고취(국난극복의 사실,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한 민족기록화 완성, 우수미술작품 구입 및 창작지원 등)를 계획하였으며, ③ 음악분야는 창작음악의 집중 육성(민족의 저력을 담은 민족음악 등), 국립극장 전담단체 확충, 국민합창운동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외에도 ④ 연극분야는 민족연극의 진흥, 레파토리 개발, 무대 확충 등, ⑤ 무용분야는 민속무용개발, 전문무용인 양성, 민속무용 해외공연 확충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대중문화의 창달(暢達)계획에서, ① 영화분야에서는 "올바른 민족사관이 입각해서 민족의 예지와 창조성, 국난극복의 용기를 알려주고, 80년대의 번영을 향해 땀흘려 일하는 국민에게 개발의 의지와 희망을 안겨주는 우수영화를 양산케 한다"를 목표로 하여 민족영화의 제작(국난극복, 민족의 위대성), 종합스튜디오 건설 등이 계획되었다. ② 출판분야는 출판금고 기금확충, 국민독서운동 전개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의 실적

이와 같은 계획 하에서 1974년~78년까지 추진된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의 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원별 투자실적과 분야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재원별 투자실적

(단위 : 1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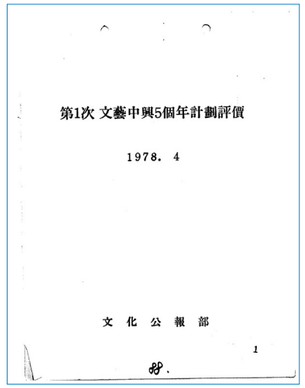
재 원 별	계 획	실 적	%
정부예산	18,052.5	31,723.7	176
일반회계	5,723.5	22,580.4	395
문화재특별회계	7,603.3	4,150.4	55
경제개발특별회계	4,725.9	4,992.9	106
민간자본	9,551.7	10,677.6	112
문화진흥기금	4,967.6	7,291.4	147
영화진흥기금	4,434.1	3,213.7	72
출판금고	150.0	172.5	115
총 계	27,604.2	42,401.3	154

분야별 투자실적

(단위 : 1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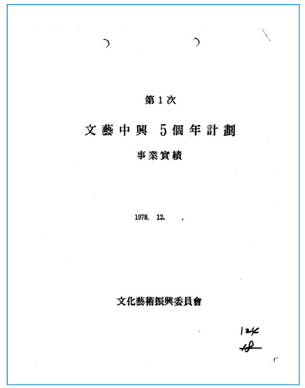
분 야	계 획	실 적	%	74년도	75년도	76년도	77년도	78년도
국학개발	1,242.5	1,561.1	126	632.0	137.4	119.6	366.3	305.8
전통예능	1,165.7	1,154.8	99	187.8	94.3	158.3	311.8	402.6
문 화 재	11,935.0	25,117.8	210	1,386.8	2,488.1	2,723.1	8,139.9	10,379.9
문 학	804.2	711.5	88	157.2	85.1	96.8	140.5	231.9
미 술	731.8	761.9	104	179.1	95.7	95.9	175.5	215.7
음 악	2,455.9	1,870.4	76	285.4	77.7	438.9	315.3	753.1
연 극	1,392.8	1,741.8	125	497.7	451.3	122.2	454.2	216.4
무 용	1,111.8	710.6	64	80.7	115.3	104.6	261.9	148.1
영 화	4,344.1	3,605.6	81	402.7	410.0	557.3	1,001.2	1,234.4
출 판	598.3	603.5	101	141.4	125.3	80.1	102.1	154.6
기반조성	1,732.0	3,296.3	190	173.4	455.2	744.3	1,009.8	913.6
기 타		1,266.0		137.2	257.9	338.9	236.9	295.1
총 계	27,604.2	42,401.3	154	4,261.4	4,793.3	5,580.0	12,514.4	15,251.2

문예진흥계획은 크게 기반조성, 민족사관 정립(국학, 전통예술, 문화재), 예술진흥(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대중문화 창달(영화, 출판)의 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1次 文藝中興5個年計劃評價

1978. 4

文 化 公 報 部


第 1 次

文藝中興 5 個年計劃

事業實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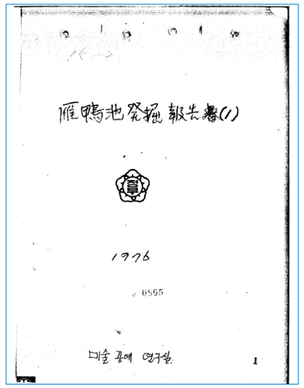
1978. 12.

文化藝術振興委員會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 평가 및 실적(1978)



국립광주박물관 전경(1979)



안압지 발굴보고서(1976)


안압지 발굴현장 및 발굴유물(1976)

당초 276억 원의 예산에서 150% 초과한 5년간 총경비 424억 원 중 민족사관정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족사관 정립분야는 계획 당시 143억 원의 예산이었으나 5년간 투자실적은 278억 원으로 총경비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문화재관리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반조성의 대표적 실적은 문화시설의 확충 부분이다. 즉, 이 시기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신축된다.
문화재 관리 부분은 국난극복과 역사적 교훈을 남긴 전사유적 및 위인선열의 유적을 보수 정화하여 국민의 정신교육 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사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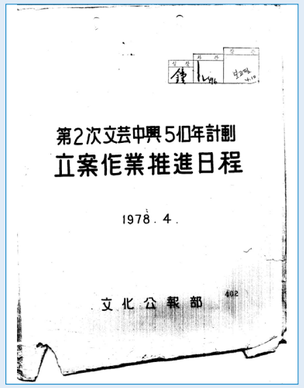
- 경주지구 사적정비 : 통일전건립, 안압지 발굴 및 정화, 천마총 발굴 및 복원, 황남대총 발굴 및 복원, 제2석굴암 조성
- 제주관광 개발 : 항몽(抗蒙) 순의비(殉義碑) 건립, 지석묘정화, 항파두리 토성보수, 대정향교 정화
- 전사유적 보수정화 : 강화도 강화산성, 충남 서산 해미읍성, 경북 문경관문, 경남 진주성, 경기 남한산성
- 위인선열 유물 · 유적 보호 정화 : 한산도 제승당, 금산 칠백의총, 아산 현충사, 강릉 오죽헌, 여주 세종대왕릉, 서울 낙성대, 부산 충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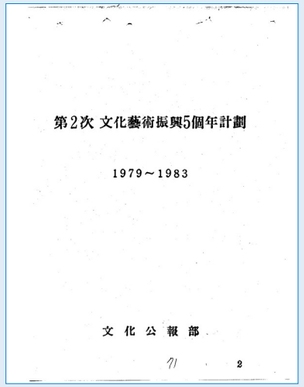
이와 같이 70년대 문화재관리사업은 호국선현과 국방유적의 강화에 중점이 주어졌다. 이는 민족의 위대성과 자긍심을 키우기 위한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난극복의 역사적 유산으로 이 시기에 보수 · 정화된 문화재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념하는 경주의 통일전,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인 서울 낙성대, 임진왜란시 왜군과 싸우다 순절한 의사의 유해를 모신 금산의 칠백의총(七百義塚), 충무공의 본영이었던 통영의 제승당, 부산의 충렬사, 강화 전적지, 제주 항몽순의비(抗蒙殉義碑), 진주성, 남한산성, 행주산성 등으로 이들은 모두 국민의 자주국방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1970년대의 문화재보수정화사업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은 경주고도(慶州古都)개발사업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수된 경주종합개발은 모두 약 125억 원이 투입된 우리나라 문화재관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었다. 이는 신라의 문화를 민족문화의 정수로 간주하고, 통일신라시기를 한국역사의 황금시대로 상정한 것이다. 또한 경주의 개발은 이 시기의 국민윤리에서 화랑도가 민족의 얼로 부각되고, 화랑도의 국가에 대한 충(忠)의 관념이 삼국통일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제2차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1979~1983년)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던 1978년 3월부터 제2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 입안 작업이 들어갔다. 1978년 4월 분과별 자문위원회 워크숍, 5월 공개토론회, 6월 장관 보고, 7 · 8월 관계부처 협의, 9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0월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확정짓게 된다.
제2차 문화예술진흥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민족문화의 전통을 연구계발, ② 전통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민족문화예술을 창조, ③ 전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고루 누리는 균형 있는 문화생활, ④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하여 인류문화발전에 기여이다. 하지만, 예산 계획에서는 전통문화개발 869억 원 중에서 고도(古都)개발, 충효국방유적 정화, 호국충효선현유적 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존관리에 790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10 · 26사태라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2차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지만, 70년대 민족문화의 중흥은 국력의 신장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즉, 60년대의 경제개발정책에서 강조된 것이 국력이었다면, 70년대 민족문화의 중흥은 경제개발의 정신적 원동력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고, 실용주의적인 경제개발과 이념적인 민족문화중흥은 국력의 신장과 조국근대화를 위한 쌍두마차로 평가되었다.

● 필자 소개
경북대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과를 거쳐 공개서비스과에서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2차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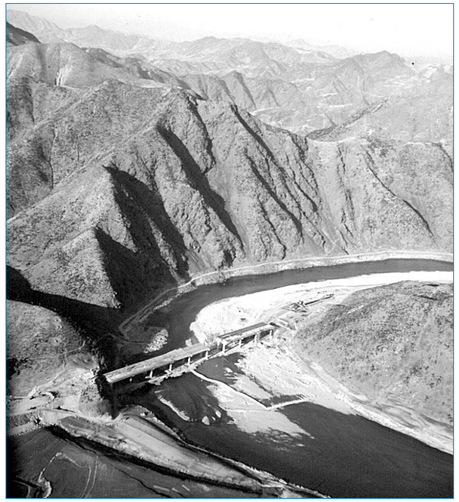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록과 기억으로 만나다



위 영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경부고속도로 건설 _ 의미 세우기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여러 부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이적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경제적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한 관심거리였으며, 역경과 위기를 극복한 국민적 자부심도 대단했다. 이 가운데 중요 기간산업이었던 도로건설도 큰 몫을 차지했음은 물론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무시할 수 없었던 강한 흔적과 기억으로 남아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항공촬영(1969), CET0070516, 금강휴게소 부근 금강대교의 모습으로, 대전-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대표적 난공사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꾸몄던 굵직한 내용들 가운데, 높은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단연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설문결과가 잘 말해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대규모의 건설공사가 오늘과 비교하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당시 연간 예산의 $\frac{1}{8}$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 인원 9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사업이었다는 사실 등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적지 않다고 본다.

우리현실 가다듬고 _ 나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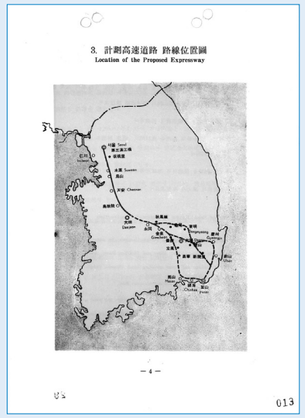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전 시기 철도교통이 대량물류·인적 수송을 담당했기 때문에, 일반 도로는 그다지 큰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통계에 따르면, 광복 당시 우리나라는 5,263㎞에 달하는 국도(國道)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포장도로는 746㎞에 불과한 극히 낮은 수치였다. 그나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가난을 벗고 국가발전을 이룩하려던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국가의 기간시설과 경제 성장을 향한 노력을 폐허로 만들었다. 전쟁 이후 재건과 부흥을 위한 노력을 계속되었지만, 가난한 저개발국의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광복 당시 도로현황(한국도로공사 30년사, 1999, 200쪽)

구 분	국 도	지 방 도	시 군 도
포 장 도	746.4	81.4	293.0
자 갈 길	4,195.4	9,231.3	6,878.3
미 개 수	321.2	684.3	1,653.5
계	5,263.0	9,997.0	8,7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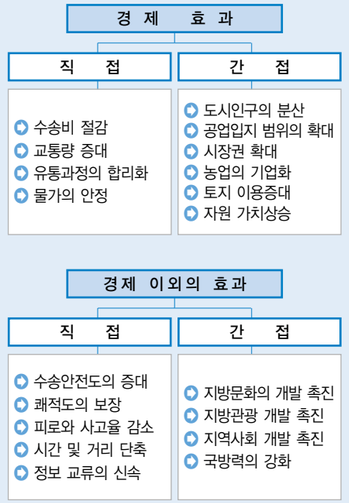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재원과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장 대대적 사업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특히 국토개발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도로건설은 매우 더뎠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조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물류수송도 철도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불균형이 여전하였기 때문에, 공로(도로), 항공, 해운 등을 대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송구조의 개혁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국가기간 도로였던 고속도로 건설이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1960년대 경제개발이 한창일 무렵이었다. 국내적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수출입은 물론 유동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물류 집산에서 중심지로의 이동은 대부분 철도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제수준의 증가에 물류의 흐름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예컨대, 1966년 화물 수송에서 철도가 81.6%를 차지한 통계는 경제발전을 체계화하고 합리적 구조로 순항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증가일로의 경제발전과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착실한 발전을 위해서도 교통망의 확충이 불가피했다.



고속도로 제작관련(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개요, 1968), BA0792061(2-1)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효과
(『건설백서』(1970), C11M30946, 90~91쪽)



경제개발이 한창일 무렵인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의 45%, 국민총생산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의 건설은 경제권의 연결이라는 목적이 큰 배경이 되었다. 특히, 수출입 화물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산과 20%에 달했던 인천지역 양대 경제권의 연계는 경제개발의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와 더불어, 농촌간의 격차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목적도 있었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직접적 동인이었던 경제개발은 다양한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정책적,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었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와 결단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국가적 핵심 기간사업으로 설정한 직접적 동기가 독일에서 받았던 깊은 인상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을 국빈 방문하였을 당시 독일의 고속도로(아우토반)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1932년에 건설된 독일 고속도로는 물적 · 인적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1960년대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기틀이었다. 독일을 방문했던 대통령이 가진 경험은 매우 낯설었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도로건설이 절실했던 당시로서는 매우 좋은 현장학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기간 고속도로 건설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내 · 외적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무난한 추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교통망의 정비와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건설로 _ 터 잡기

교통망 개선을 위한 노력은 1966년부터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66년 정부는 세계은행(IBRD)에도 「한국경제의 현황 · 장래와 수송문제」를 의뢰하였으며, 내적으로 교통망과 운수행정을 조사 · 연구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경제개발을 위해 교통망의 다양화와 확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철도 중심의 화물은 거대경제권을 연결할 수 있었지만, 전국 곳곳으로 이합집산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세계은행에서도 기존도로의 정비와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무게중심을 두었으나, 서울–인천간, 서울–수원간 고속도로 건설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세계은행에 의뢰했던 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는 차관제공을 위한 것이었으나, 세계은행은 경제적 중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차관을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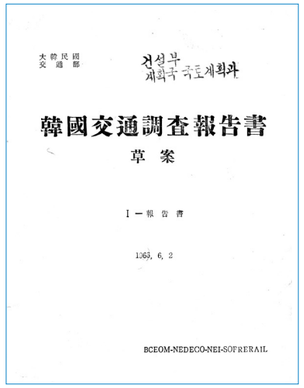
한편 1967년 6월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공로 및 공로운수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에서는 공로부분의 확장과 정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고속도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의 포화를 대처하기 위해, '기간국도의 고속도로 건설을 시급히 촉진' 해야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1966년 12월에 金元泰 무임소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제출했던 「장래교통망구성에 대한 종합 검토」에서는 철도와 도로, 항만, 해운 등 수송 전반의 현안을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도로의 건설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과 기존 도로의 대폭적인 정비로 요약된다.

당시 제6대 대통령 후보였던 박정희는 1967년 4월 29일의 서울 장충단 유세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공식화하였다. 이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경제발전에 따른 수송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서울–인천, 서울–동해안, 서울–목포, 서울–부산 사이 너비 50m 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을 추진할 것임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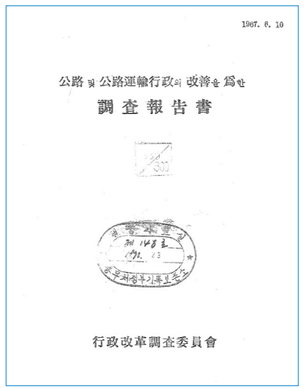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련 연표(착공 이전까지)

1965. 1.11	서울~인천 지역을 국토건설계획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
1965. 9.28	교통부, IBRD 전문가에게 한국교통조사 용역발주(1966년 6월 완료)
1966.11.14	서울~인천 특정지역 건설종합계획 공고
1967. 2.28	도로정비촉진법 제정
1967. 3.24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착공(29.5km, 삼안산업)
1967. 4.29	박대통령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구상 발표
1967. 5. 2	박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간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서울~인천, 서울~강릉, 서울~부산, 서울~목포)
1967. 5.27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기공식 거행
1967. 7.20	건설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기본계획조사 영역 발주(1967년 12월 완료)
1967. 8.10	건설부, 대국토건설계획(안) 청와대 보고
1967. 8.18	영동 · 동해고속도로 기본계획 조사 착수(1967년 12월 20일 완료)
1967. 9.23	국내 최초의 유료도로인 강변 1로 개통(제1한강교~영등포, 6.1km)
1967.11. 7	주 원 건설부장관, 당정 연석회의에서 고속도로 건설 10개년 계획 보고 박대통령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지시
1967.11.10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 및 동계획조사단 구성안을 보고
1967.11.14	정부여당 연석회의(서울~인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우선 건설)
1967.11.22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방침 보고 및 결정
1967.11.24	청와대파견단 편성
1967.11.27	건설부, 대통령에게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 제1차 시안 보고 (박정희 대통령 서울~부산간 우선 건설 지시)
1967.12. 1	건설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제2차 시안 및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계획조사단 구성안 보고
1967.12. 2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자문위원회 편성
1967.12. 5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자문위원회 작업반 편성
1967.12. 7	서울~수원간 도상선정 및 실지측량 시작
1967.12.10	서울–수원간 고속도로 현지측량 진도보고
1967.12.12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종합보고
1967.12.13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 규정 공포
1967.12.15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조사단 설치
1967.12.30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예정노선 좌우 4km이내 투기억제지역으로 확정
1968. 1. 4	건설부,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사무소 설치(부천)
1968. 1. 5	계획조사단,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구간중 제3한강교 남단~서울톨게이트 구간(7.6km)을 서울시에서 실시할 것을 의결
1968. 1.15	고속도로 표준설계 확정(도로폭 22.4m, 4차선)
1968. 1.24	건설부 · 국방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합동공사에 관한 협의각서 교환
1968. 1.29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 공사사무소 설치(건설부령 제48호)
1968. 2. 1	서울 영등포구 원지동에서 서울~수원간 착공(32.2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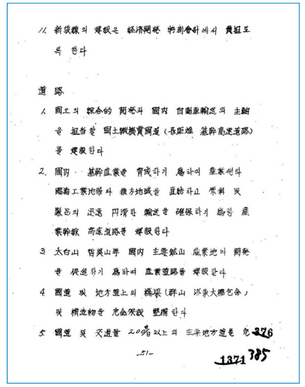
물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 박정희 후보의 장충단 유세 이후 고속도로 건설은 내 · 외부의 반대에 직면했다. '부유층의



한국교통조사보고서 초안(1966), EB01235(국토연구원)



공로 및 공로운수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1967), C12M43213



교통망 구성 방안에 대한 종합검토(1966), BG0000528(6–1)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계획조사단 현판식(1967), CET0070463(2–1)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고속도로 건설에 따르는 정책의 입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확보 및 기술행정지원안, 각 부처간의 협조 및 계획조정을 담당하였다. 산하에는 건설계획조사단을 두었고,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기본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이후 계획조사단과 더불어 현장에 공사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계획 중심의 위원회에서 실무 중심의 현장으로 옮겨졌다. 따라서 1968년 11월 이후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 추진위원회

이 조사단은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 추진위원회 산하 기구로 고속도로 건설의 현장실무를 담당했다. 1967년 12월 현판식을 공식기구로 출범하였으며, 1968년 2월 12일 건설공사 사무소가 설치될 때까지 고속도로 건설관련 타당성, 계획조사, 노선선정, 용지보상, 측량, 감독, 설계, 재원 등 업무를 담당했으며, 기술반을 중심으로 공사 사무소가 꾸려짐으로써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조사단은 크게 3개의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조사반 · 기술반 · 재경반이 그것이다.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 계획조사단



서울-수원간 고속도로 기공식(1968),
CET0065693(1-1)



수원공구 고속도로 항공촬영 2(1969),
CET0033950(2-1)

유람로를 만들려느냐', '1인당 142달러인 나라에서 그게 왜 필요하냐', '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차라리 공장을 더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등등 여론이 비등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도를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 고속도로가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건설에 비난여론이 많았다고 한다. 1967년 현재 국민 1인당 GNP가 142달러 밖에 되지 않았던 현실에서 고속도로 건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당면 시책으로 구체화하였다. 1967년 11월 14일, 정부 · 여당 연석회의에서 서울-인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선 11월 7일 건설부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했다. 인천과 부산은 대한민국 수출입의 중심 항구로 물류 수송과 조달을 담당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산과 인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은 지역 경제권을 연결하고, 개발하는 견인이 된다는 이유도 있었다. 물론 건설부에서는 1967년 8월 "대국토건설계획(안)"을 작성하여, 4대강 개발은 물론 고속도로 건설을 향한 장기계획(안)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했었다. 이와 더불어 건설부는 7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으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기본계획 조사」(12월 제출)를 맡겨, 고속도로 건설의 추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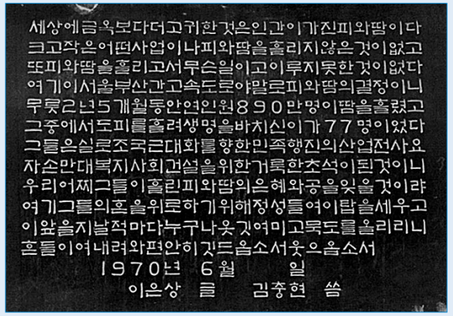
1967년 12월 15일에 '국가기간고속도로추진위원회'가 꾸려졌으며, 그 산하에 조사단이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현장을 진두지휘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난관에도 1968년 2월 1일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거행되었는데 한편 기공식이 거행 3개월 전에 이미 육군 공병단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1967년 겨울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조사단은 4가지의 노선을 두고 고민한 끝에 제3한강교 남한을 기점으로 수원-오산-천안-대전-영동-황간-김천-구미-왜관-대구-영천-경주-언양-양산-부산 동래 구서동에 이르는 428㎞의 노선을 결정하였다. 당초 330억 규모의 재원으로 시작했으나, 42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고속도로 1㎞에 1억 원이 소요된 셈이었다. 여기에는 일본의 청구권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그 비율은 매우 낮았고, 실제로는 국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재원은 국채발행과 유류세 인상 등으로 충당되었다.

일본에서 들여온 청구권 자금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1,891.5백만 원(6,893천 불)으로 전체 4.4%에 지나지 않았다. 청구권 자금은 철근류와 건설장비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즉 철판 · 형강 · 철근, 가드레일, 가드빔 파이프 등 102,437.5톤, 가드 케이블과 가드펜스 등 56,600m에 총 4,567천불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 건설장비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순직자
위령탑의 최근 모습(금강휴게소).
고속도로 건설 당시 77명이 순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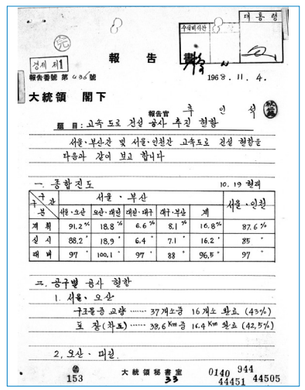
경부고속도로 희생자 위령탑 내용(1970) CET0067666(9-1)

및 유지보수장비 등 182대를 도입금액 1,076천 불, 기타 자재 및 기구 등 4종에 1,254천 불이 도입되었다.

물론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에 편입된 용지와 보상비 지불은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매수한 용지는 5,827,000평(당시기준)이었으며, 매수금액은 13억 7천5백6십7만3천 원으로, 1평당 평균 236원으로 매수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당초 토지매수와 보상비는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추진한 무리한 사업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환언하면,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집결되지 않고서는 추진될 수 없었던 대공사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총 투입인력은 연 900만 명이었으며, 77명의 희생이 뒤따랐다.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는 노산 이은상이 추모사를 지었으며,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금강휴게소 낮은 언덕 한 켠에 그날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그들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거나 노년층으로 그날의 기억을 알려주곤 한다.

경부고속도로 공사비 명세표(『건설통계편람』, 1970, 104쪽) (단위 :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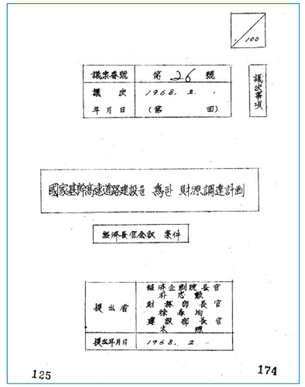
구 분		계	1968년	1969년	1970년
공 사 비	계	37,729,853	4,776,000	23,047,000	9,906,353
	서울~오산	3,306,800	3,306,800		
	오산~대전	7,984,000	1,300,000	6,684,000	
	대전~대구	16,720,353		6,814,000	9,906,353
	대구~부산	9,718,700	169,200	9,549,500	
보상비(용지매수 약 620만 평)		1,963,000	12,440,000	719,000	
조사 설계비		464,000	455,000	9,000	
차관 도입비		1,891,500	819,000	1,072,500	
외국인 용역비		86,000	63,000	23,000	
시험 장비비		44,000	35,000	9,000	
공사사무소 운영비		132,617	5,800	126,183	
부대비		468,000	159,200	243,183	65,647
장비 도입비		194,000		194,000	
합 계		42,973,000	7,557,000	254,440,000	9,972,000



고속도로 건설 공사 추진 현황(1968),
EA0006239. 서울에서 부산까지
4개 구간으로 공사 진척을 다루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은 정부 및 민간기관에 따라 그 차액이 매우 컸다.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건설부는 660억, 재무부는 330억, 서울시는 180억, 육군 공병감실은 490억, 현대건설은 280억이라는 소요 비용을 각각 마련했었다. 한편 건설부는 450억의 수정예산 비용을 올렸다. 이 예산에 박정희 대통령은 450억과 180억의 중간인 280억을 검토하여, 300억 규모로 책정하였고, 추정 10%를 더하여 330억 원으로 사업계획 예산으로 확정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예산 확정 내역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계획(1968), BA0138697



경부고속도로 전경(당재터널, 1970), CET0067691(12-1)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경부고속도로 준공식 모습(1970), CET0024998

경부고속도로에 소요된 인적, 물적, 재정 재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대규모 공사였다고 한다. 즉 총 연장 428Km, 총예산 429,73억원, 토공량 6천만㎥, 장대교 32개, 중소교량 273개(교량길이 17Km), 횡단도로 465개소, 터널 12개(터널길이 4.1Km), 인터체인지 19개소, 연인원 893만 명, 장비 152만 대, 희생자 77명이었다.

경부고속도로 투입 인력, 재원, 구조물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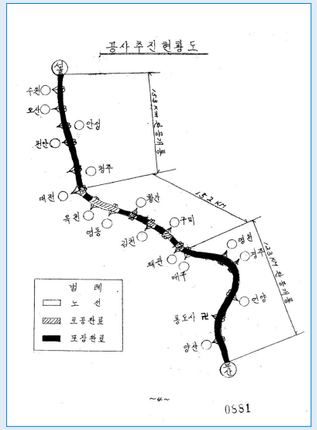
주요 터널 현황(한국도로공사 30년사, 1999, 3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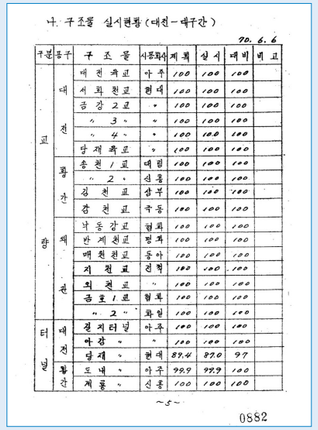
터 널 명(옛 이름)	위 치	연장(m)	공 사 기 간	시공업체
대전터널(길치터널)	대전 대덕 비래동	925	1969. 1.13~1970. 6.30	아주토건
옥천터널(당재터널)	충북 옥천 동이면 우산	1,120	1969. 9.11~1970. 6.27	현대건설
영동터널(도내터널)	충북 영동 용산면 부상	980	1969. 9.11~1970. 5.30	아주토건
경주터널(아화터널)	경북 경주 서면 도계	287	1968.12.30~1969.12.30	공영건업

공구별 시공회사(한국도로공사 30년사, 1999, 305쪽)

공 구 명	시 공 구 간	구간연장	소공구수	시공회사(군공병 포함)
수원공구	서초 양재~화성 오산	38.6Km	7	현대건설/육군제1201건공단
천안공구	화성 오산~청원 옥산	65.9Km	7	현대건설/극동건설/화일산업/삼환기업/삼안산업
대전공구	청원 옥산~옥천 청성	74.4Km	4	삼부토건/대림산업/아주토건/현대건설/육군제1202건공단
황간공구	옥천 청성~금룡 아포	54.8Km	5	아주토건/대림산업/신흥건설/삼부토건/극동건설
왜관공구	금릉 아포~대구 검단	54.9Km	6	삼안산업/협화실업/평화건업/동아건설/대한전척/흥화공작소
영천공구	대구 검단~월성 내남	73.6Km	6	파일산업/삼환기업/동아건설/공영건업/육군제1203건공단
언양공구	칠성 내남~부산 구서	58.2Km	5	대한전척/평화건업/극동건설/화일산업/육군제1203건공단
서 울 시	제3한강교~서초 양재	7.6Km	1	동아건설
계		428Km	41	16개 업체, 3개 건공단

경부고속도로의 기공(착공)과 준공은 각기 달랐다. 이는 구간별로 나누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준공한다는 명분도 있었으나, 곳곳에 어려운 공사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현황(1970), BA0139280(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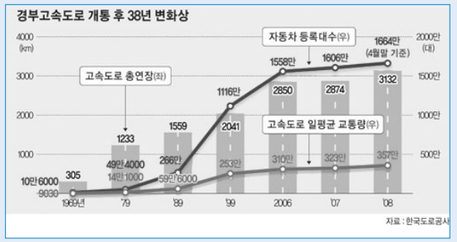
공사는 크게 보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작, 완공되었다. 먼저 제1차 착공은 서울-수원-오산 구간이었고, 제2차로 1968년 4월 3일 오산-천안-대전구간이 착공되었으며, 제3차로 대구-경주-부산간 기공식이 1968년 9월 11일에 열렸으며, 가장 어려운 구간이었던 대전-대구 구간은 1969년 1월 4일에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특히 터널과 교량 공사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매우 고난도의 작업이었으며, 많은 사람의 희생 대부분이 이러한 난공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터널과 교량은 각각 12개, 305개였으며, 이 가운데 대전-대구간 공사가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옥천터널(당시 당재터널)은 금강 교량과 연결하는 최대의 고통과 희생이 따랐다고 한다. 일례로, 그러한 어려움과 희생이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의미를 더욱 값지게 만들었다.

경부고속도로 착공 및 준공 현황

구 간 명	연 장(km)	착 공	준 공
오산 ~ 천안	37.4	1968. 4. 3	1969. 6.29
천안 ~ 대전	69.2	1968. 4. 3	1969.12.10
대구 ~ 부산	123	1968. 9.11	1969.12.29
대전 ~ 대구	152	1969. 1.13	1970. 7. 7

정부는 매주 고속도로의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하여, 국무회의 안건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과정과 문제점, 대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점검은 비교적 빠른 시일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속도로 _ 자리매김 하기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08년 8월 17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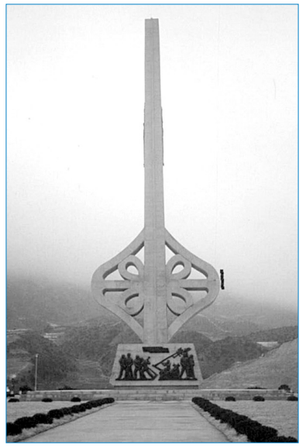
이처럼 경부고속도로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토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1970년 7월 7일 준공에 이른다. 막대한 재원과 기술, 희생의 결과는 국토개발과 생활, 유통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국가기간 사업으로, 물류의 유기적 이동과 생활권의 변화에 따라, 인구의 이동의 급속한 재편을 초래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주변개발은 토지이용과 주택개량 등의 농촌개발 효과를 가져왔으며, 도시와 농촌간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경제

… 총칼이 없을 뿐 전쟁이었다. 나는 흑자를 포기, 명에를 선택했고, 현대 임직원들은 나의 뜻을 잘 따라 주었다. 우선, 단양시멘트(주)에 보통 시멘트보다 스무 배나 빨리 굳는 조강(早强) 시멘트 생산에 전력투구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단양시멘트 외에는 조강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양에서 당재터널 현장까지 200km 가까운 거리를 수송하자면 운임만도 엄청났으나 이미 적자를 각오한 터였다. 작업조는 2개 조에서 6개조로 늘어나 500여 명의 인부들이 개미처럼 달라붙어 굴을 파들어 갔다. 문제 그대로 '돌관 작업'이었다. …

정주영, 「세계 최단시간 내 완성한 고속도로」, 133쪽.



경부고속도로 전경 5(1970), CET0067691(7-1)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개통 기념탑(1970), CET0067682(5-1)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여의도 63빌딩이 국내 건설 60년의 최고 프로젝트로 꼽혔다. 18일 대한건설협회가 건설 60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건설업체와 건설교통부, 관련 전문가 1,0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부고속도로는 387표를 얻어 토목(사회 간접자본(SOC)시설) 분야 대표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을 잇는 고속도로 1호로, 총 연장 417.4㎞다. 1968년 2월 착공, 1970년 7월 전 구간이 왕복 4차선 도로로 준공됐다. … (아래글 생략)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2007년 6월 18일자 기사

1970년 7월 7일. 청량제 같은 소식이 불볕 더위도 식었다. 단군 이래 최대 걸작품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부산에서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민은 경제개발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잘 살아 보겠다는 꿈을 싣고 달리는 '검은 비단길'이 탄생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 경부고속도라는 대동맥에서 출발한 혈관한 지방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가 거미줄 고속도로망이 구축됐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촘촘히 연결한 고속도로 위로 이제는 돈이 달리고 있다. … (아래글 생략)

'대한민국 60년, 우리생활을 바꾼 발명품 _ 고속도로'(「파이낸셜뉴스」), 2008년 8월 17일자 기사

재원 분배와 관광효과의 유발 등, 사회경제적 부가치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무렵, 먼저 준공된 경인고속도를 포함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457.5㎞로 하루 이용차량은 9,000여 대에 불과했다. 2008년에는 총 연장은 약 6배가 늘어난 3,132㎞로, 이용차량은 360여 만 대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편익은 현재 13조 5,500억 원(2008년 기준)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개통당시 1㎞당 건설 비용이 약 1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350억 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기준)으로 늘어났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히 만들어진 도로가 아닌 그 이상의 경제적 ·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생활과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다목적 건설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었음을 여실히 알려준다.

지난 60년 우리사회를 변화시킨 발명품 또는 인프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류유통과 대한민국 인적 재구성, 국토개발, 생활권의 구성, 교통의 혁명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만드는 근간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대도시로 인구와 산업집중을 가져오거나 개발위주에 편승한 투기를 조장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 부정적 평가는 경부고속도의 건설과 과정을 평가를 낮추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건설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파장에서 야기된 사회 곳곳의 다양성과 국민적 요구가 합일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가지는 국가적 상징성은 200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을 기념해서 조사했던 언론사의 설문을 통해서도 국민적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생활과 사회의 변화상에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국가적 경제개발에 발판이자 원동력이라는 국민적 정서 공유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공업대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밑그림이었다는 점도 그러하다.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주요구간 교통량 추세(『건설통계편람』, 1970), 105쪽 (단위 : 대)

구 분	1966년					1971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	계
서울~수원	604	1584	1277	883	4348	1786	3685	3166	883	9520
수원~천안	212	895	619	446	2162	647	2148	1582	446	4723
천안~대전	180	257	226	559	1222	566	636	595	559	2356
대전~김천	29	58	123	25	235	88	138	312	25	563
김천~대구	157	259	291	247	954	442	594	712	247	1995
대구~부산	79	394	470	378	1321	230	903	1148	378	2659

기록으로 _ 기억 만나보기

과거,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기록을 보여주는 곳은 국가기록원이 거의 유일하다. 물론 국토연구원, 국토해양부, 통계청 등에서 발간했던 자료와 통계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고속도로로 검색을 할 경우, 다양한 고속도로 기록물을 만날 수 있다. 즉,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호남, 남해, 구마, 88올림픽, 서해안 등등 매우 다양한 기록이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이를 위해, 주제별 · 시기별 · 유형별 검색이 이용자의 활용에 편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는 기록은 대통령문서와 일반기록물, 사진기록물, 동영상기록, 행정박물 등 유형별로 "고속도로"관련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1960년대부터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이들 기록들을 토대로 정책적, 학술적,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토종합계획", "대국토건설계획" 등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근대화를 목표로 달려왔던 시기에는 매우 익숙한 용어들이었다. 이러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사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있는 훌륭한 기록 정보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국토를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어 대규모 개발과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역사적 산물이었으며, 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멀지 않은 과거를 "기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 한울, 2007

손정목, 「경부고속도로 개통」 『현대한국을 뒤흔든 60대사건』, 동아일보, 1988.

한국교통연구원, 『교통, 발전의 발자취 100선』, 2005.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30년사』, 1998.

한국통계진흥원, 『대한민국을 즐겨라』, 2008.

건설부 · 한국도로공사,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지』, 1974.

대통령비서실,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1975.

공보부, 『고속도로 서울-부산』, 1968.

문화공보부, 『고속도로』, 1970.

『공로 및 공로운수행정에 관한 조사보고서』, 1967.

『고속도로효과조사보고서』, 1973.

『건설백서』(1970), 『교통백서』(1970), 『청구권자금백서』(경제기획원, 1976)

월간조선 엮음, 『한국현대사 119 대사건』, 조선일보, 1993.

● 필자 소개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에서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병무청 기록연구사로 살아가기

이 정 희 | 병무청 기록연구사

반평생 생활해 온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2008년 1월 11일에 병무청 기록연구사로 발령받기 전까지 나는 교육과학부 소속 국립대학에서 15년은 교육행정, 3년은 정보화, 2년은 기록관리 업무를 했다. 병무청으로 이직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아이의 교육이었다. 대전이 주는 교육적 이점으로 선뜻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곳으로 오면서 "처음처럼"이라는 글귀를 마음에 새겼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력은 당분간 접어두고 첫 직장에 발을 내딛는 기분으로 기록관 운영에 전념하기로 했다. 가끔 힘이 들어 후회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추스렸다.
대학에서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으며 유대감을 다져온 터라 기획한 업무는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면, 기록관 학칙기구화, 운영규정 제정, 공간 확보, 장비 확충, 인력 충원, 예산 반영 등….
결국, 조직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업무처리는 순조롭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그러하듯이 기관에서는 개개인의 성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대한 기계의 일개 부품일 뿐이다. 거기다 아직 처리과의 업무 파악이나, 흔히 말하는 '조직 문화'라는 것도 익히지 못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무행정 기록을 다루는 전문(Research) 기록관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병역의무 수행의 경험도 관심도 없던 나로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병무행정과 변천사에 대한 지식을 익히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나마 나의 전임자가 이루어 놓은 기록관리 기반이 있었지만, 2% 부족한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던 중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임 기관장의 기록관 방문이 있었다.
알다시피 기록관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기관장이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이 갈 만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차별화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신임 기관장의 기록관 방문을 기회삼아 평소 추구하고자 했던 기록관의 사명과 목표를 기관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병무청 개청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병무행정기록전시관 설치가 결정되었고 2010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병무청이 기획하고 있는 병무행정기록전시관은 과거 유행했던 "홍보관"이나 "역사관"처럼 기관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기관의 고유 업무와 임무수행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록물이 주인공이 된다.** 그 과정에 병무청 최초로 매뉴스크립트 수집이 이루어진다. 이에 병무청 기록전시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첫째 • • 청 창설 및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매뉴스크립트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치로부터 집대성한다. : **매뉴스크립트의 보호 및 집적**

둘째 • • 병무행정 수행과정에 산출한 기록물을 보충할 수 있는 문화 · 역사 · 정보적 가치를 지닌 매뉴스크립트를 수집하여 설명책임을 가지게 한다. : **설명책임성 및 후대 전승**

셋째 • • 수집한 매뉴스크립트를 평가하고 선별하여 행정기록물(In house archive)과 함께 스토리보드에 따라 연출함으로 우리 청이 지난 40년간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청에서 과거와 현재의 모범적인 사례는 알리고, 미흡한 사례는 번복하지 않도록 병무행정 발전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있다. : **병무행정 발전사 재정립**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에는 병무행정기록전시관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2월에 병무행정 사료기록 수집전문요원 T/F 팀을 임명(본청 및 소속기관 43명)하였다. 3월에는 수집전문요원 콜로키움을 개최(수집대상, 수집처 등 논의)하였고, 4월에는 예산반영과 공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5월에는 병무행정 사료기록 수집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목적은 보존 · 관리를 넘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개 · 활용에 있다. 이에 우리 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병무행정기록전시관 설치 사업은 간행물의 전자도서관인 도서관리시스템과 매뉴스크립트 목록을 관리해 주는 사료관리시스템, 오프라인 전시관을 웹으로 옮겨 놓은 e-병무기록전시관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고도화



단계로 기 구축한 각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검색해 주는 '병무행정기록관정보서비스(가칭)'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무행정기록전시관은 과거 병역의무수행자에게는 추억의 여행길을, 현재 병역의무대상자에게는 '끌려가는 군대'에서 적성과 시기에 맞추어 '선택하는 군대'로 인식 전환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미래의 병역자원과 국민에게는 병무청의 이미지 제고와 일상에서 잊고 사는 안보정신을 다잡는 호국관으로서 기능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 · 현직 구성원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며, 업무과정에 편의를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명 속에서 기록관은 현재의 기억과 인류 공동의 기억을 미래로 전승하는 선도자(Gate Keep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얼마 전 병무청 기록연구사로 첫돌을 넘겼다. 직장을 옮긴 후 지인들로부터 "이제 적응은 다 되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고, 앞으로 병무청 기록관이 어떤 모습으로 커 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기록관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록연구사로서의 역할과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적다보니 병무청 기록연구사로서의 삶보다 우리 청과 기록관의 숙원이자 40주년 기념사업을 홍보하는 격이 되었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대해 본다.

● **필자 소개** _ 한국 해양대를 거쳐 2008년부터 병무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해외 유학이 예전에 비해 많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록관리학은 다른 전공에 비해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외부로 눈을 돌릴 만큼 기록관리 저변이 많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뛰어난 창조는 모방에서 비롯되듯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학문을 배우는 것은 기록관리 기반을 다지고 인프라를 굳건히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자 적어본다.

U.S.A

미국의 **기록관리학 과정** 소개

권 혁 천 | 육군 소령



미국 대학의 기록관리학

미국의 대학교들 중 "기록관리학(Archival Science)"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없다. 기록관리 관련 과목을 오래전부터 개설하여 가르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정보관리학(Information Science) 또는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과정 안에 Specialty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SAA에서는 각 대학교 석사 과정에 무분별하게 개설되어 있는 Archival Studies 과정에 있어서 교육 과목과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에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를 발행하여 권고하였으나 이는 단지 참고용일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교의 특수성에 맞게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의 기록관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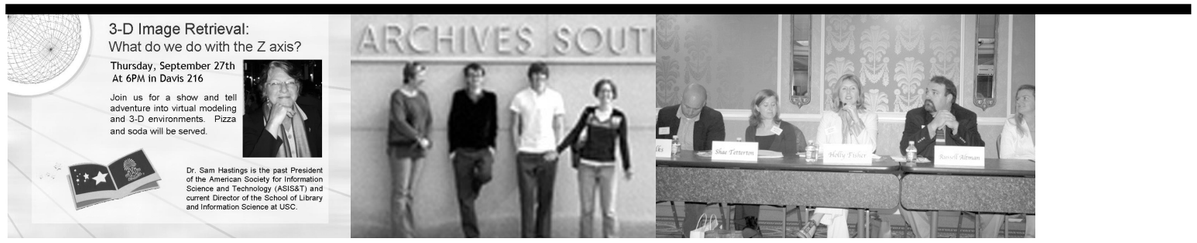
미국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University of South Carolina는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인 곳으로 전흔을 물씬 풍기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주립대학교이다.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는 14개 단과대학 중의 하나로 문헌정보학 석 ·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기록관리학은 개인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석사 프로그램은 36학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9학점은 필수 과정으로 정보관리학 개론, 정보관리학 연구방법론, 정보조직 및 검색에 대해 배운다. 나머지 27학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기록관리학 관련 과목으로는 Preservation Planning and Administration(보존 계획 및 행정),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정보 및 기록물관리), Archival Representation(기록 재현), Archival Management and Technique(기록관리 및 기술),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Retrieval(정보 조직과 검색), Digital Preservation(디지털 보존), Information Networks(정보 네트워크) 등을 배우게 된다. 수업은 주로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견학을 가기도한다. 평가는 시험을 보기 보다는 과제 및 프로젝트 등을 부여해서 일종의 논문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업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부담이 된 것은 어마어마한 독서량이었다. 과목별 최소 3권의 독후감을 작성해야 하고 수업 전 100여 페이지 분량의 Article은 학생들을 매일같이 도서관으로 향하게 하는 주범들이다.

미국에서의 정보학(Information Study)는 실용 학문으로써 논문 제출이 의무가 아니며 대신 인턴십을 통해 학생의 실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교육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턴십은 개인 선택에 따라 한 학기에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편성하고 있다. 인턴십 기관은 담당 교수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학생의 관심영역에 따라 교수가 매칭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인의 경우에는 교수에게 군 기록관리를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 요청해서 군 기지인 Fort Jackson 내에 있는 War Archives에서 인턴십을 하였다. 실습 내용은 Acquisition(수집)에서부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Information System 운용까지 기록관리 전 영역을 포함하며 본인이 원한다면 Manager와 협조하여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실습이 가능하다. 통상 무급으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기관의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통상 Davis School로 불린다



Archival Student Guild에서 주최했던 포럼, 주 아카이브 등

규모 및 활동 영역에 따라 학생이 배울 수 있는 분야는 천지차이이므로 사전 교수에게 인턴십 대상 기관을 통보받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유심히 분석하는 것이 실무적인 지식 습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학교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Guild 라고 하는 학생 자치조직을 통해서도 많은 이론을 배울 수 있다. 본인은 Archival Student Guild 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가해서 활동했는데, 동아리 활동은 보통 월 1회 정도 대강당에서 최근 현안에 부합되는 선정 후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제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교수가 추천하기도 한다. 인상 깊은 토의 주제로는 "대학교 Archives 에서의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 활용", "미 육군 기록물 관리", Digital Management System 등이었는데, 학과 예산 부족으로 강의비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자비를 들여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강연했던 중년 여성 아키비스트의 열정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있다. 학기말에는 SAA 또는 지역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주관하는 포럼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개최지역이 거리가 멀고(주로 시카고나 캘리포니아) 본인이 참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학생들의 참석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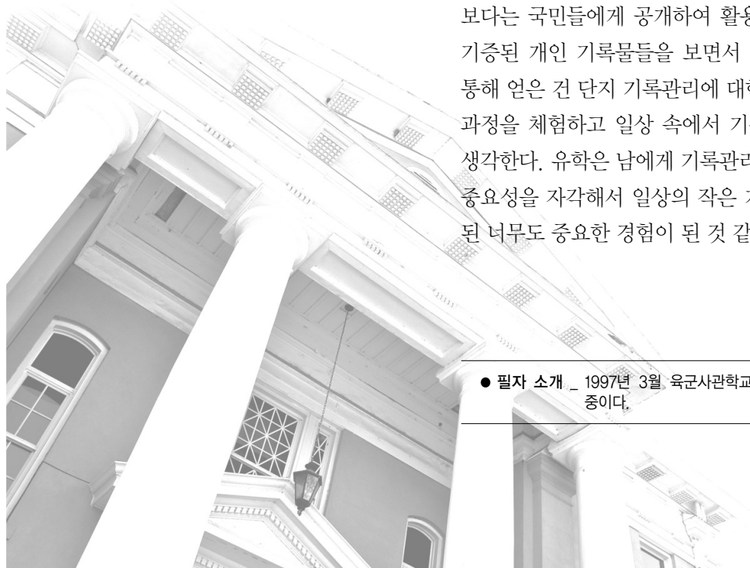
해외 유학시 고려해야 될 사항

유학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기록물관리를 배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본인도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경험자의 조언이나 관련 자료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이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어떤 대학에 기록관리학이 개설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학교가 내 관심 영역과 일치하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기록관리학이 개설되어 있는 유망한 학교를 찾으려면 U.S. News & Report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이 사이트에는 대학원 전공별 학교 랭킹이 나와 있는데, 세부 전공 중에서 "Archives and Preservation" 이나 "Information System"을 선택하면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의 서열을 알 수 있다. 각 학교 전공 홈페이지에 있는 Course Description을 읽어보면 과목별 중점 및 교육 내용을 개략적이나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학교별로 중점을 두어 육성하고자 하는 특성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똑같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Course Description을 잘 읽어보고 자기 관심 분야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학교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수 선택인 것 같다. 우리나라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정통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수가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모든 학교에서 교수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교수의 논문, 학문적 관심분야, 주요 대외 활동 등을 꼼꼼히 체크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록관리학은 학부가 없는 관계로 학문을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는 용어부터 생소한 경우가 많다. 출국 전까지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기록관리 전문 용어를 익히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자료나 강의 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하므로 영어 공부도 할 겸 수업 자료를 읽고 교수의 강의를 원격으로 미리 듣고 가는 것도 학과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다. 특히 아티클(Article)의 경우 20~30매 분량을 주당 5개 이상 읽고 토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학 준비 기간 동안 틈틈이 읽어보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 수업 관련 자료 이외에도 특별 초빙 강연이나 각종 포럼 등의 자료도 웹에 게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므로 여러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유용한 자료를 검색해 보길 추천하고 싶다.

교 훈

낯선 학문에 대한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던 미국에서 2년간의 교육은 다른 나라 기록관리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최근의 국제 기록학 동향을 알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해주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록관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가 부유하거나 국민들이 우수해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기록관리가 우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보와 증거로서 기록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회의 중에 작성된 단순한 기록일지라도 후대에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후학들에게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보존된 100여 년 전의 메모지와, 개인이나 가문에서 소장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활용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으로 아카이브에 기증된 개인 기록물들을 보면서 성숙된 기록문화에 대해 부러움을 느꼈다. 유학을 통해 얻은 건 단지 기록관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의 저변이 확산되어 온 과정을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기록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학은 남에게 기록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자각해서 일상의 작은 기록일지라도 소중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 너무도 중요한 경험이 된 것 같다.



● **필자 소개** _ 1997년 3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기록물 평가장교로 근무 중이다.

TNA(The National Archives ; 영국 국가기록원)의 2008년 핵심 성과지표는 '방문자에 대한 기록물 제공건수', '온라인 기록물 제공건수', '기록물 배달 소요시간', '전화 응대 시간'이며, 이 지표들에 대한 달성수치를 월단위로 측정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TNA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말해주며, 실제로 전체 운영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TNA의 이용자 서비스 최우선 정책은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고, 정보사용성에 있어 최우수 정부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기록물의 소장보다 접근과 활용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기록학계에서, 아래에 소개하는 TNA의 다양한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은 참고 사례가 될 듯 하다.

U.K

TNA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소개

손 용 배 | 국가기록원 사서주사



영국 국가기록원(TNA) 전경

New to Kew

TNA를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매일 'New To Kew'라는 이용자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 이것은 신규 방문자를 위해 이용자 서비스 담당부서 직원이 11시 30분부터 약 30분에 걸쳐 시설안내, 목록검색, 자료이용방법, 시설소개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신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데,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직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Thursday Lecture

매주 목요일 'Thursday Lecture'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열린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의 철도문화, 찰스 디킨스의 소설 Little Dorrit 이야기의 진실 탐험, 17세기 인구조사서격인 Hearth Tax 고찰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하여 수준 높은 교양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의는 주로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기록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흥미 있는 사건 사고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다.



New to Kew 진행 모습

Tuesday Talks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Tuesday Talks'는 TNA에 소장된 특정 기록물군(Records Group)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군 복무 기록 및 포로 기록, 세계대전 당시 상인들의 해군 작전 기록, 캐나다 아동 입양 기록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소장 기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검색 및 이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용자들에게는 TNA 소장자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주는 기회가 되며, TNA 자체로서는 소장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홍보의 기회가 된다.

Catalogue Day

TNA가 진행 중인 목록화 프로젝트(Cataloging Project)를 소개하거나 또는 목록 기능상의 중요한 변경사항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거나, 목록서비스의 내용상의 변화가 있으면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 밖에 해외기록 목록, 국방성 의료 목록, 지도 열람실의 참고색인 목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1. User Forums

이 포럼은 TNA 이용자와 주요 서비스 담당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역할을 한다. 포럼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낮 12시 2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데, 참석자들에게 뷔페식 점심식사와 차를 제공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포럼의 목적은 TNA의 이용자 서비스에 관계된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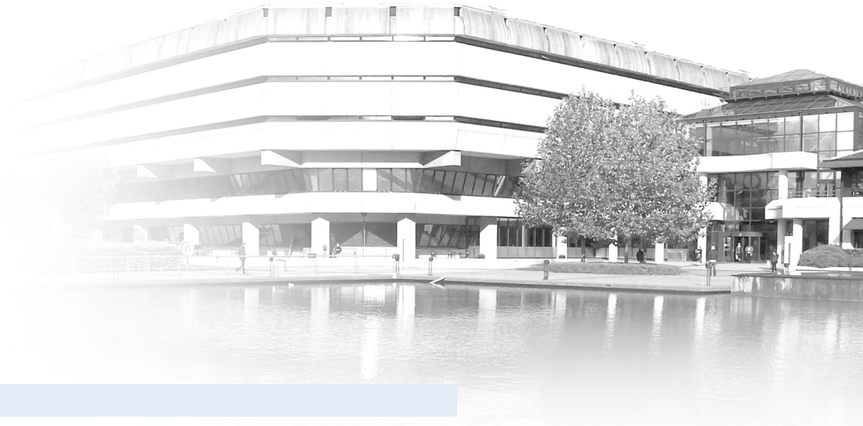


User Forum 진행 모습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보다 나은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포럼에는 TNA 원장과 담당 부장들이 참석하는데, 이들은 직접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불만을 청취하고, 직접 해명과 설득을 하기도 한다.

포럼 참석은 TNA를 방문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포럼 참석자들에게 지난 포럼의 회의록을 소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주며, 다음 포럼 일자와 주요 안건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와 의사개진을 유도하고 있다.

포럼 참석인원은 대략 30여 명 내외이며, 이들 대다수는 TNA 자문그룹 혹은 후원회로 활동하는 고정적인 이용자들로서, TNA 운영 전반에 대해 관심과 애착이 무척 많은 편이다. TNA 직원들의 참석범위는 원장과 서비스 부장 및 담당자들이며, 포럼의 사회는 이용자 서비스 부장(Head of Public Services)이 직접 진행한다.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 워크숍 KS 1&2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위한 워크숍으로, 학교에서 배운 역사적 유명 인사와 관련된 원본 기록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원본 기록들로부터 학생들의 읽기와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역사란 무엇인가?', '런던 대화재', '역사적 유명 인물', '세계2차대전' 등의 주제를 다룬다.

▶ 워크숍 KS 3&4

초등학교 3, 4학년들을 위한 워크숍으로, 모두 국가 역사교과 시험위원회의 주제와 관련된 역사 주제로 학생들은 원본 역사 기록 또는 훼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양질의 사본과 함께 공부할 기회를 제공 받는다. '형벌', '왕조의 탄생', '선전 포스터' 등의 주제를 다룬다.

▶ 워크숍 AS/A2 Level

개인 연구 및 주제별 워크숍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학생에게 실제 역사가들과 함께 역사 원본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원본 역사 기록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진학하게 하거나 또는 여가 시간에 역사공부를 계속 하도록 역사 연구에 대한 영감을 제공한다. 워크숍은 TNA 교육장에게 무료로 열리며, '인민 헌장 운동(Chartism)', '1917 러시아 혁명', '1933 독일 나치즘의 성장', '여성참정권운동', '냉전', '영국 시민전쟁' 등의 주제를 다룬다.

● **필자 소개** _ 충남대에서 문헌정보학 석사를 마치고, 현재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호주 기록관리 MOU 체결, 베트남 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 협의, '10년 국제기록엑스포 참석 협조 등을 위해 호주, 베트남으로 떠났다. 5박 7일 동안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하노이, 호치민을 거쳐 시드니, 캔버라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예정으로 총 6회, 약 29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으며, 베트남의 여름과 호주의 가을을 한꺼번에 맛본 힘든 일정이었다. 비록 힘들고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하고, 보람 있는 출장이었다고 생각된다.

Australia & Vietnam

호주, 베트남과의 국제협력

조 이 형 | 국가기록원 보건연구관



호주 국가기록원(캔버라)



베트남 기록관리국(하노이)

호주, 베트남 협력 추진 배경

호주와의 협력 추진은 한-호주 기록관리 분야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기록관리 분야의 실질적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호주를 MOU 체결 상대국으로 선택한 것은 호주가 기록관리 표준 · 전자기록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국가 중 하나로서 향후 상호 교류시 우리 원 기록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고, 아울러 '12년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총회 개최국인 호주의 국제회의 유치 · 개최 관련 경험 공유가 국제회의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원 입장에서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베트남과의 협력은 베트남 신임 기록관리국장('08. 7월 취임)이 한-베트남 MOU체결('07. 10월, 한국)이후 협력 내실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국 국가기록원장을 베트남으로 공식 초청('08. 8월)하였고, 또한 우리 원은 베트남을 베트남 전쟁 등 한국관련 기록물의 전략적 수집대상국가로 판단하고, 수집협력 기반 강화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협력

베트남 기록관리국(State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 베트남 하노이 소재)은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장은 차관보급으로 '08년 하반기에 선임된 부 띠 민 후옹(Vu Thi Minh Huong) 국장이 현재 기록관리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본국 10개 부서(4개 행정부서, 6개 전문부서), 6개 소속기관(하노이, 호치민 등 3지역에 기록보존센터 4개, 국가비밀보안보존센터 1개, 기록학교 1개 설치 ·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약 450명 수준이다.

현재 베트남은 독일, 러시아, 프랑스, 쿠바 등 유럽 국가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국제학술회의, 공동전시회, 양국간 간부급 교환프로그램 등이다.

1. 한-베트남 주요 논의 사항

베트남 측에서는 한국 국가기록원장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 한-베트남과의 교류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국가기록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베트남에서도 한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나라기록관 건립사례 벤치마킹, 기록관리법령 체계 전수, 보존복원 기술 및 보존처리 장비 등 한국의 우수한 기록관리체계를 배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 원에서는 베트남이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에 중요한 국가로서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국제기록엑스포 2010』과 관련하여 베트남 대표 기록물 전시 및 참가단 파견 등 베트남 기록관리국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베트남 기록관릭국은 앞으로도 규정과 절차 내에서 한국의 기록물 수집을 적극적으로 지원 ·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와 함께 국제엑스포 개최를 축하하고, 엑스포 행사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주었다.


한-베트남 기관장 회의(5.4, 하노이)

베트남 기록관리국 기관 연혁

- 1946년 베트남민주공화국 임시정부 명령에 따라 교육부 소속 기록 · 도서관리국(Bureau of Archives and Library) 설립
- 1962년 총리실 소속 기록관리국(Archives Department) 설립
- 1982년 국가기록보호 규정 통과에 따라 베트남 기록관리국(State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으로 개칭
- 1992년 인사위원회 소속으로 변경
- 2003년 내무부 소속으로 변경



한국 기록관리 법령 세미나(5.4, 하노이)

2. 한국 기록관리 법령 세미나

베트남은 2001년 4월 제정된 『국가기록 관리 규정(Ordinance on National Archives)』이 현재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근거법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기록관리법률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외국의 법령 및 제도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일련의 과정중에 하나로서 베트남 측이 한국 기록관리 법령 세미나를 요청한 것이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열린 세미나에는 베트남 기록관리국장을 비롯한 부국장, 베트남 기록관리 법령 제정 준비위원회 등 베트남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제공한 한국기록관리 관련법령(한국 기록관리법률 및 시행령, 대통령기록관리법률 및 시행령) 전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참여열의가 대단하였다.

주요 질의 사항으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 · 역할 · 필요성, 공공기관의 범위, 기록물 생산 및 등록의 정확한 개념, 공개 절차,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미국 대통령기록관리체계와 한국 대통령기록관리체계 차이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현황, 보존시설 장비 관련 규정, 민간단체(예 NGO 등) 기록물 관리 등 매우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법령세미나에 참석한 베트남 관계자들은 여러 외국 법령을 조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법령 내용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사례 중에 하나로서 향후 베트남 기록관리법령 제정 작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크게 활용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료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 한국 기록관리 법령 체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3. 베트남 기록관리국 주관 기록전시전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기록관리국 제2기록관리센터(호치민 소재) 주관 지역 순회 전시전 개최를 통해 베트남의 역사 및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아울러 기록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원이 추진해오고 있는 광복6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 희망기록전 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록관리기관(Archives)의 기본 기능과 추진방향은 세계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



- **전시주제 :**
  베트남 전쟁관련 기록물(호치민 관련)
- **전시장소 :**
  대통령궁내 전시 공간 / 베트남 호치민 시내
  ※ 남베트남 시기 대통령궁이 현재 관광장소로 활용 중

호주와의 협력

호주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호주 캔버라 소재)은 총리(Prime Minster)소속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으로 설치되어 있다. 기관장은 차관보급으로 로스 깁스(Ross Gibbs)원자이 현재 국가기록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원장, 부원장, 5국 17개과(팀), 7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약 410명 수준이다.

1. 한-호주 기록관리 MOU 체결

한-호주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강점은 서로 공유하고, 미흡한 점은 서로 보완함으로서 한-호주 양국 기록관리 분야의 실질적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호주 기록관리 MOU 개요〉

▶ 기본 방향

- 기록관리 선진 이론 기술 및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 공동워크숍 ·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기록관리 역량 강화
- 국제회의 유치 노하우 공유 · 상호 지원 및 국제협력 분야의 전략적 지지 기반 조성

▶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 기록물 사본 수집관련 지원
- 양국 상호방문 · 파견 등 기록관리 전문경험 공유
- 공동워크숍 · 세미나 개최 등 학술연구 활동 협력 지원
- 양국 국제회의 개최관련 경험 공유 및 적극지원 · 참여

아울러 양국 기관장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당면한 국제행사에 대한 상호 협력을 비중 있게 논의하고 상호 적극적인 지원 · 참여를 당부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12년 ICA 정기총회(Brisbane) 준비 및 참가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고, 한국은 『국제기록엑스포 2010』에 호주 대표 기록물 전시 및 참가단 파견 등 호주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2. 한국 기록보존시설(나라기록관) 신축 관련 세미나

한국의 나라기록관 건립 관련 특별 세미나도 호주 측 요청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호주는 캔버라 지역에 추가 보존시설 확충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단계에 있다. 한국 나라기록관의 건축 경험과 노하우에

호주 국가기록원 기관 연혁

- 연방국립도서관내 부서장 설치('52) → 연방기록사무소로 독립('61)
- 기관명 변경(Australian Archives), 기관장 승격(Director→Director-General)('75)
- 기록관리법(Archives Act) 제정('83)으로 호주 국가 기록원의 설치 · 운영 근거 및 연방기록물의 법적보호 계기 마련



한-호주 기록관리 MOU 체결('09. 5. 7, 캔버라)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호주 국가기록원 시드니의 지원에 있는 직원들까지 나라기록관 건축사례를 알고 있을 정도로 호주 국가기록원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한국 나라기록관 건립 주요내용 및 특징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는 호주 보존시설 신축 추진팀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성적인 관심을 보여 주었다. 호주의 주요관심사항은 한국의 향후 서고 신축 계획, 한국의 서고간 역할 · 보존분담체계, 보존서고의 항온 항습 운영 체계, 단열개념 적용, 주 에너지원(전기 · 가스), 부지 관련 사항(서울 중심부와 거리, 부지 예산 등), 화재대비 설계 반영, 전자기록물 전용관리 서고 배치, RFID를 적용한 보안관리체계, 하중 차이에 따른 구조 설계 관련사항 등이었다.

세미나에 참가한 호주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한국의 나라기록관은 최근 세계에서 지어진 보존시설 중 가장 크고 우수한 건축사례로서, 호주가 준비 중인 보존시설 신축에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세미나 발표를 통해 한국의 기록보존시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 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 중인 여러사안을 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으로도 호주 보존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 협조요청 할 경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한국 기록보존시설 관련 세미나(5. 7, 캔버라)

호주, 베트남과의 국제 협력 성과

호주와 협력 분야에서는 『한-호주 기록관리 약정(MOU)』체결을 통해 양국의 기록관리 분야 상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향후 양국간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교류와 전문적인 업무 경험 공유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양국 관련 주요 기록물의 사본 제공 협조와 국제 행사 개최 관련 상호 지원 등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과의 협력 분야에서는 '07년 『한-베트남 기록관리 약정(MOU)』체결 이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긴밀한 협력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기록물 수집 협력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베트남 기록관리체계 구축시 한국의 기록관리 기술 · 장비 · 시스템 등이 진출 할 수 있는 여지를 일부분 만들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호주와 베트남에서 한국의 법령과 보존시설 신축 사례 등 한국 기록관리에 관한 대단한 관심과 연구의지를 느낄 수 있어 한국 기록관리 우수성에 대한 인식 전환 제고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또 다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아울러 이제 한국의 기록관리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는 외국기관에서의 시각과 분위기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다.

● **필자 소개** _ 연세대 대학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표준협력과에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각급 기관 지원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록이 있는

2009년 개봉작들

김 은 경 | 영남일보 문화부 기자

'기록' 은 시공을 초월한다. 보잘 것 없는 종이 한 장의 기록이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증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적이고 폭발적인 미래를 예언하기도 한다. 기록은 표현하는 방식, 저장매체도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했다. 2009년 현재, 기록이 있는 극장가 개봉작에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노잉'(Knowing, 4월 16일 개봉)은 암호와 같은 숫자기록들로 넘쳐나는 SF 영화다. 인간 보다 뛰어난 우주 생명체의 존재 그리고 시시각각 좁혀오는 지구대종말이라는 극적 상황에서 유일한 단서는 50년전 누군가가 남긴 숫자들만 가득 적힌 종이 한 장이다.

1959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 타임캡슐에 묻는다. 그들 중 한 여자아이는 이상한 숫자만 가득 적은 채 타임캡슐에 담는다. 우주의 다른 생명체가 주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 그로부터 50년 후인 2009년, 타임캡슐 속에서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 쓰여진 종이를 발견한 캘럽은 그 종이를 MIT 교수인 아버지 테드에게 전해준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지난 50년간 발생한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숫자였음을 알게 된 테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는데….

영화가 개봉되고, 알 수 없는 숫자들로 가득한 기록 한 장은 관객들 사이에서 운명론과 구원론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인류에게 찾아올 대재앙을 암시하는 것, 그렇다면 정해진 운명 앞에서 인류는 스스로의 운명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감독은 영화의 초반에서 숙명론에 무게를 싣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확정적인 판단을 관객의 몫으로 유보하고 있다.



▲ 지구대종말을 예고한 숫자들로 운명론과 구원론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영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노잉'(Knowing, 4월 16일 개봉)

'천사와 악마'(5월 14일 개봉)는 예수의 후손이 생존해 있다는 충격적 스토리로 2006년 개봉 당시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영화 '다빈치 코드' 제작진이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천재작가 댄 브라운, '뷰티풀 마인드' 의 론 하워드 감독이 손을 잡았다. '다빈치 코드' 에서 냉철한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을 맡았던 톰 행크스가 전작과 동일 인물로 출연했다.

'다빈치 코드' 가 그러했듯 이 작품 역시 기록물이 주요 모티브가 된다. 살인 사건과 관련된 암호 해독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전작에서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자크 소니에르의 주검 곁에 가득 적힌 이해할 수 없는 암호들이 등장했다면, '천사와 악마' 에서는 지하 비밀 결사대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앰비그램이 스토리 전개의 주요 모티브가 된다. 일루미나티는 1776년에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등의 과학자

들이 결성했으나, 가톨릭 탄압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밀 결사대 모임이다.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앰비그램은 영화의 주요 장면마다 지속적으로 등장해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 앰비그램은 좌우 완벽한 대칭을 이뤄, 거꾸로 뒤집어서 보아도 똑같은 문양이 나타나거나, 완전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알 수 없는 문양, 그리고 지난 500년간 로마 가톨릭에 숨겨진 비밀은 어떤 상관 관계가 숨겨져 있는 걸까?





▲ 로마 가톨릭의 탄압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밀 결사대 일루미나티의 부활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영화 '천사와 악마'



▲ 시대에 따라 영화 속 기록의 방식도 달라진다. 휴대폰 동영상을 둘러싸고 두 남자의 쫓고 쫓는 과정을 그린 한국식 스릴러 '핸드폰'



▲ 영화 '더 리더 – 책 읽어 주는 남자'는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독일 전후세대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소통을 시도한다.



▲ 한권의 공책을 통해 소년들의 우정을 가슴 뭉클하게 그린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올해 재개봉 되어 또 한 차례 관심을 모았다.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3월 26일 개봉)는 기록물이 남녀간 소통의 매개이자, 시대적 상황을 은유하는 메타포로 작용한 사례다.
표면상 기둥 줄거리는 한 남자의 비밀스런 첫 사랑 이야기다. 10대 소년과 30대 여인의 예기치 않은 만남,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그들의 사랑 한가운데에는 책이 있었다. 관계를 가지기 전 책을 읽어 달라는 여자, '채털리 부인의 사랑' '오디세이' 등 두 사람이 읽는 책이 늘어갈수록 남자는 사랑이, 반대로 여자는 두려움이 깊어만 간다. 그리고 갑작스런 헤어짐,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을 안은 채 8년의 공백이 흐르고, 법대생이 된 남자는 우연히 재판에 참관했다가 피고인 신분의 여자를 만나게 된다.
이 영화에서 책은 소년과 여자 사이의 20여 년의 세대차를 아우르는 소통의 매개체다. 남자가 읽어주는 책속 구절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감정 흐름을 보여주고, 영화가 전개될 미래를 암시한다.
그러나 정작 감독의 의도는 다른 데 있는 듯 하다. 이 영화에서 남자와 여자는 2차 대전 후 독일 사회가 안고 있던 전쟁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각각 상징한다. 책은 두 세대 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소통의 출구였던 것. 허락되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죄의식, 동정과 연민, 사랑으로의 승화, 그 과정에서 독일 사회가 겪고 있던 옳고 그름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 펼쳐진다.

한국영화 '핸드폰'(2월 19일 개봉)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기록을 둘러싼 스릴러물이다. 휴대폰이 요즘 시대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그놈 목소리', '폰', '폰 부스' 등 휴대폰을 소재로 한 영화 역시 꾸준히 제작되는 추세다.
자신이 관리하는 여배우의 섹스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분실하고 이성을 잃은 매니저 오승민, 이를 습득하고 매니저에게 터무니없는 협상을 제안한 정체불명의 남자 정이규의 이야기가 엉성한 듯 하면서 시시각각, 그물망을 좁히며 다가온다.
'극락도 살인사건'을 만든 김한민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연기파 배우 박용우, 엄태웅의 실감나는 연기 등 영화 '핸드폰'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럿이지만, 무엇보다 기존 한국영화의 스릴러 공식을 벗어난 새로운 영화적 구성이다. 즉 영화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진다. 극 초반에는 비교적 명확하던 선과 악의 경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반전과 혼란, 복선을 겪으면서 끝내 관객조차도 어떤 인물의 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 기록물이 스토리 전개의 극적 모티브가 된 2009년 개봉작으로 이란 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추가할 수 있다. 지난 1989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청동 표범상을 수상하고 세계적 관심을 모은 작품으로, 올해 4월 재개봉 되어 새롭게 주목받았다.
이란 출신의 사실주의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이름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이 영화는 같은 반 친구의 공책을 돌려주기 위해 친구의 집을 찾아 나선 소년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담았다. 단순하면서 미학적인 구도, 간결하고 재미있는 대사, 어린이 특유의 순수하고 소박한 정서가 시대를 넘어서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준다. 특히 소년이 작은 꽃잎을 섬섬이 박아 친구에게 공책을 내미는 엔딩 장면은 오래 여운이 남는 명장면 중 하나다.



제3회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수상작

기록으로 여는 희망세상



글쓰기 부문 학생부 대상

엄마도 소녀였었다

대전 호수돈여고 2학년 최지연

'아! 엄마도 소녀였구나…….'

얼마 전 엄마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내 나이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나도 공부라는 단어에 진저리치고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한데 엄마의 잔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만 짜증을 부렸던 것이다. 결국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화가나 방안에 들어가 버렸다. 방안 침대에 누워 엄마한테 짜증을 부렸던 일에 대해 생각하다 목이 말라서 거실로 나왔을 때 거실식탁에 놓여있는 처음 보는 오래된 책을 발견하였다.

문득 호기심이 들었던 나는 그 오래된 책을 들고 다시 내방으로 돌아왔다. 책이라고 생각했던 건 알고 보니 공책이었는데 일기장인 듯 날짜순으로 쓰여 있었다. 그 일기장엔 여성스러운 글씨체로 쓰여 글쓴이가 여성임을 짐작하게 하였다. 막 직장생활 한지 얼마 안 된 듯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적어놓은 부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가족에 관한 일 등이 감성적으로 적혀있었다.

이 일기장을 읽으면서 나는 이 공책의 주인공은 20대의 젊은 여성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 공책엔 카드와 엽서가 많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일기장의 주인에게 보낸 것이 일기장을 읽어 나갔고 결국 결혼했다는 부분을 읽을 때는 작은 탄성이 일어났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사람을 하고 결혼을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두 사람이 하는 힘겨운 사랑이 특히 이 일기장의 주인공이 멋져보였다. 그러나 결혼하면 해피엔드. '불행 끝 행복 시작!' 일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결혼 초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가 끊긴 이 일기장을 덮으면서 이젠 한쪽에 몰아 놓았던 카드와 엽서를 읽기 시작했다. 카드 또는 엽서의 내용을 달콤한 사랑고백이 적혀있었는데 카드 끝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본 순간 너무 놀라 눈만 깜박였다. 잘못 본 듯 눈을 깜박이고 비비고 다시 봐도 그 글자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 "From. 사랑하는 그대에게, 돈선."

아무리 봐도 그 이름은 아빠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이 일기장이 엄마의 일기장이었다니…….

로맨스는 모를 것 같은 잔소리쟁이 엄마가 일기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내 머릿속은 공황에 빠졌었다. 일기장의 주인공과 엄마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너무 상상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일기장의 주인공이 엄마라고 밝혀지자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펴서 읽어봤다. 여성스러운 어체에 감성적인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엄마도 여자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두 번이나 이 일기장을 읽으면서 엄마의 재발견을 했다는 놀라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덮을 때 몇 장 뒤에 또 다른 일기가 쓰여 있음을 발견했다. 새로운 일기는 20대의 젊었던 엄마가 쓴 일기가 아닌 현재의 엄마가 쓴 글이었는데 오늘 엄마와 싸웠던 일에 관해 적혀 있어 깜작 놀랐다. 사춘기가 와서 걱정된다는 염려와 나에 대한 사랑이 담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날 걱정해주는 엄마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 동안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한 건 아닌지, 너무 엄마 생각은 안하고 내 생각에 맞춰 살아온 것을 깨달았다. 또 그 밖에 엄마가 쓴지 얼마 안 된 글을 읽으면서 일기장의 주인공이 엄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곧 봄이 와서 설렌다는 감성적인 지극히 소녀다운 글을 읽으며 엄마도 소녀였었고 지금도 엄마의 마음 속엔 소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 안 듣는 사춘기 딸 앞에선 강하고 억척스러운 잔소리쟁이 엄마로서 존재하지만 일기장 앞에서는 다시 감성적인 소녀로 돌아가는 것을 재발견한 나는 앞으로 엄마를 나와 다른 어른이고 무엇이든지 혼자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스럽고 감성적이고 소녀다운 엄마를 알게 되었으니까. 엄마의 일기장을 통해 또다른 모습을 알게 되어 더욱 엄마한테 친근감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아줌마들을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억척스럽고 강한 아줌마들이라도 여자이고 소녀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소녀였었던 것처럼.

글쓰기 부문 일반부 대상

칠학년 구반에서 온 편지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박은규

귀여운 새벽 까치가 목수아저씨 망치소리처럼 한바탕 소란스럽게 짖어대며 나를 깨운다. 이슬 품고 자던 풀잎은 베시시 부지런한 햇살 한줌에 샤워하며 내방을 노크해도 난 모른체 하고 야릇한 잠 속 꿈만 찾아 헤맨다.

"딩동 딩동" 초인종이 나의 고막을 실로폰처럼 때려주어도 몸은 찌뿌뚱해 선뜻 일어나지 못한다. 다시 "띵동 띵동!"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보니 젊은 우체부 아저씨가 분주한 모습으로 상큼하게 묻는다. "편지왔습니다! 박은규씨 댁인가요?". "네! 맞는데요" 휑하니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지는 우체부를 뒤로 하고 편지를 들었다. 겉봉투 '보내는 이' 란에 칠학년 구반 맹○○이라고 구불구불한 글씨가 적혀 있다. 맹씨라면 흔한 성씨가 아님에도 도대체 누구인지 뇌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빠르고 편한 세상에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든가!' 난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봉투를 뜯었다. '아! 아뿔사 그동안 잊고 있었네' 속으로 비아냥거린 내 실수가 후회의 숲길에 이미 접어들었음을 직감한다. 문득 2년전 장모님과 했던 약속이 떠오른다.

'내가 요즘 경로당에 가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글을 쓰게 되면 자네에게 편지를 보내마고…….'

'유치원에 다니던 손자가 어버이날 꽃과 예쁜 장식엽서 보내와서 기뻐 눈물 나왔는데 답장을 못쓰고 전화해서 미안하여 꼭 손자에게도 편지 답장 보내마고…….'

내 맘은 순간 봄비 맞은 초목들처럼 싱그럽게 일어난다. 잠자던 내 텅빈 편지함을 찾아오신 장모님의 사연이 애절한 아침이다. 일찍이 장모님은 외동딸로 귀엽게 자랐지만 일찍 부친 잃은 탓에 홀어머와 어렵게 살다가 큰며느리로 시집와 책보따리 짊어지고 서당 가던 남편이 눈물겹게 부러워 배웅하다 시어머니께 혹독하게 시집살이하고, 대가족 15명을 먹여 살리느라 칠십평생 고생을 해왔다. 이제 늙게나마 남편에게 글을 배우려 했는데 남편은 야속하게 폐암으로 세상을 떠서 우울증에 죽기만을 고대하며 보냈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늙게 찾아온 새싹같은 소망 하나가 경로당에 찾아들었다. 이젠 한글을 배우고 쓰며 익혀 날마다 웃으며 지내신다. 길가에서도 편지를 읽는다. 다정하고 정감있는 장모님의 음성이 귓가를 스친다. 현수막, 간판글씨 읽느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신다.



듬직한 막내 사위에게!
그간 사돈어른과 애들 데리고 잘 지냈나? 고집이 센 내 딸도 잘있고? 사실은 막내동이 손자에게 편지로 답장써야 하는데 할머니 실력이 없다고 할까봐 자네에게 편지 쓰네. 처음 쓰니까 맘과 손이 떨려서 글씨가 많이 삐뚤거려 이해하게. 구순(91세)이 넘은 자네 모친이 병원에 있다니 한번 가서 봐야할텐데 안부나 전해주게. 요즘 경로당 한글서당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 젊은 선생이 칭찬해 줘서 기쁘다네. 이제 컴퓨터도 배워야 하는데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나와서 잘 될지 모르겠네. 자네가 도와주면 좋겠네. 그래야 자네랑 잘 통하는 신식 장모 노릇하지. 난 컴퓨터보다 연필로 글씨를 쓰는게 맘이 편하고 좋다네.
지울 수가 있어서 틀려도 되니까 덜 떨리거든. 다음번에 경필대회 나가야 해서 요즘 연습 많이 하느라 바빠서 오늘은 이만 쓰겠네. 애들과 잘 지내고 그럼 가족 모두 편안하길 바라네.

2009년 ○월 ○일
해미에서 장모가

글씨는 자꾸 지워서 얼룩얼룩 조금 지저분했지만 정확한 맞춤법을 지키느라 애쓴 흔적이 날 뭉클하게 했다.

신생아 적에 철우를 목욕시켜 주던 사진도 보고 돌잔치에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시던 모습이 비디오에 담겨 엊그제인 듯 아련하다. 손자와 대청댐 분수대 앞에서 나란히 아이스크림 들고 잡수며 환하게 웃고, "난 칠학년 팔반, 너는 일학년 칠반"하며 함께 외쳤던 사진이 핸드폰에서 수국꽃처럼 풍요롭게 웃고 있다.

요즘 난 직장생활로 피곤하다고 핑계삼아 일기장은 텅 비어있고 홈피는 껌벅껌벅 빨간 신호등. 친구나 지인들이 보내 온 이메일은 무소식에 잠든지 오래다. 오직 리모콘이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안일한 게으름속에서 화로처럼 꿈만 꾸었었다. 예전에 장모님댁 냉장고가 왜 그랬는지 이젠 이해가 간다. 장모님댁 냉장고는 홀로계신 장모님의 예쁜 친구다. 형형색색 꽃으로 둔갑한 메모지는 장모님의 요리 비서이다. 새로운 요리가 나오면 해주신다고 메모해서 새댁처럼 붙여놓으신다. 막내 사위가 제일 맛있게 먹어줄 주꾸미 요리를 가운데 붙이면서 팔순의 문턱을 넘을 장모님의 펜끝 세상은 어떻게 펼쳐질까? 경필 대회에서 장원의 녹색 꿈은 이루실까? 요즘 일기와 글을 쓰신다고 소식이 왔었는데…….

'실버드림은 많고 많은데 기록의 세상을 환히 열어 주시는 장모님은 진정 코리아의 열정 스승이십니다. 저도 장모님께서 주신 기록의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품고 많은 경험을 다양한 매체와 글로 전하는 멋진 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본다.

오늘 저녁은 막걸리 사들고 찾아온 반가운 친구들처럼 까치들이 정겹게 몰려와 우렁찬 박수소리로 장모님과 나를 응원하는 것 같다.

그리기 부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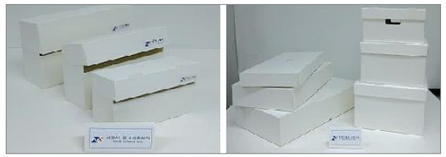
기록은 역사를 만들어요

대전 샘머리초 4학년 강수진



* 국가기록원 소식

◉ 국내 최초 기록물 보존용 골판지 개발



중요기록물이나 유물 등의 보존상자에 사용되는 골판지는 그동안 미국, 일본에서 전량 수입됐다.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가로 1m80cm 세로 1m20cm 1 장의 가격은 1만 원에서 2만 원에 달했다. 따라서 국산화로 인해 향후 5년간 기록원의 예산절감효과는 250억 원, 수입대체효과는 5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사용처는 국가기록원은 물론 750곳의 기록물관리기관과 헌법기관, 600곳의 도서관, 일반 박물관과 50곳이 넘는 특수박물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을 포함하면 기본 수요만 2,00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2차 연도인 올해 1억4,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제조기술을 보완하고 대량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제품은 국내 종이제품으로는 유일하게 기록물 보존용품 국제인증규격인 PAT(Photographic Activity Test)시험에도 통과해 해외 수출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 '장애인의 날' 관련 기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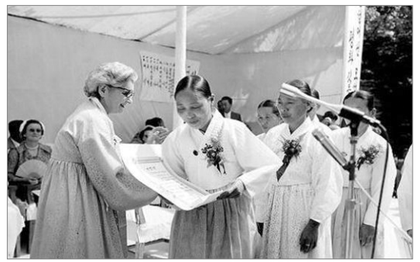
상도동 농아원의 장애인의 날 모습, 1981(국가기록원 소장)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이달의 기록코너에서 장애인의 날 관련 문서 9건, 사진과 동영상 4건의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계획' 뿐 아니라 심신장애자복지법 공포안,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 문서기록과 함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보고회의,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등 시청각 기록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 중요 웹기록 영구보존 기틀 마련

현재 공공기관의 웹기록물들은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이전 웹기록의 모습이 그대로 전승되지 않고, 때로는 홈페이지 개편작업 등으로 모든 웹기록물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등 효율적인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웹기록물들을 자동수집기(웹크롤러)로 수집 · 보존함으로써 현재의 모습을 후대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포털에서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제어 위주의 수집 방식과 달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전체를 그대로 수집, 보존하고 향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연구가 몇몇 기관을 통해 부분적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연구사업과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없어 이번 연구개발성과가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1차년도(2008년)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내에 테스트베드(시험운영장비)를 구축, 몇몇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웹기록물 자동수집기(웹크롤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어버이 날' 관련 기록 공개



1959년도 어머니날 모범 어머니에게 표창장을 주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국가기록원 소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날' 제정 기록을 '이 달의 기록' 으로 선정하고,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은 국무회의 상정안 철 등 문서 기록 5건과 시청각 기록 13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5년 '세계만방에 자랑할 만한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 사랑과 희생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8일을 '어머니 날' 로 제정하고, 나라 차원에서 어머니의 희생과 인내를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함께 치러졌다.
1950년대 '어머니 날' 은 특히 전쟁미망인으로서 ▲시부모를 모시고 자녀교육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어머니 ▲아들 3명 이상을 전쟁터로 내보낸 어머니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 등을 표창했다.
1973년 '어머니 날' 은 '어버이 날' 로 기념일 이름이 바뀌었다. 이는 효와 경로사상을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정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이때부터 부모의 앞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고 '조상에 감사를, 부모에 효도를, 어른에 존경을' 이란 공경정신이 강조됐다.

◉ 「내고장 역사찾기」 착수



전남 여천군이 민간기록물 수집활동 결과 발굴한 '여천군 화양면 민의원 선거인명부(1958년)'

국가기록원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 시 · 도, 230개 시 · 군 · 구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금년 6월부터 「내고장 역사찾기」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이 총괄하며, 전국의 지자체별 기록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금년도에는 지자체별 역대 단체장 기록, 6~70년대의 4H나 새마을운동 기록 등 역사연혁에 관한 기록물의 발굴 · 수집부터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 기록물은 표준 목록관리 S/W에 입력하여 전국의 지방기록을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의

* 국가기록원 소식

미취업자 약 10명을 선발하여 작업반을 편성한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연인원 약 30만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각 지방의 개인, 문중, 학교를 비롯한 각종 단체 등에는 내고장 역사규명에 필요한 많은 기록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 고장 역사찾기 사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지자체별 역사연혁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 및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를 위한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서비스 개시



어린이들에게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을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 한다.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은 △우리의 소중한 기록문화 △조선왕조실록이란? △실록은 어떻게 만들고, 관리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공부방 등 네 가지 메뉴로 구성됐다.
첫 번째 메뉴에서는 '훈민정음' '승정원일기'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기록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두 번째 메뉴에서는 조선시대 왕 옆에서 그날그날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사관' 과 이로 인해 탄생된 '조선왕조실록' 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세 번째 메뉴에서는 실록의 편찬 과정 및 보관방법 · 관리에 대해 서비스 한다. 마지막 메뉴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한 재미있는 내용과 어린이 과거시험 및 용어사전이 제공된다.

◉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집행이사회, 한국 유치 확정

알제리 타만하셋에서 5월 27~28일 이틀간 열린 2009년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집행이사회에서 '2010년 ICA 집행이사회' 한국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 국제기록관리협의회) 집행이사회는 세계 각국 기록관리기관 대표와 지역지부 회장 등 24개국 30여 명의 핵심 간부로 구성된 회의체로, 세계 기록관리 분야 공동 협력사업, 정기총회 · 연례회의 개최지 결정 등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 ·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CA 집행이사회 한국 개최를 통해 국제 기록관리 핵심 인사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과 역량을 홍보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의 기록관리 선진국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CA 집행이사진은 '국제기록문화엑스포 2010' 개막식에 참가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기록전시관, 산업전시관 등 전시시설을 둘러보며 한국의 우수한 기록문화와 기록관리 발전상을 직접 체험한다. 아울러 '국제기록문화엑스포 2010' 개최 기념 국제포럼에 발표자로 참여, 각국 기록관리 현황과 최신 국제적 동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시청각기록물 위 · 변조 방지기술 개발

국가기록원이 개발한 기술은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검색을 위한 얼굴인식기능(MPEG-7의 Visual Descriptors 활용)기술 ▲음성지문인식기술을 활용한 음성 위 · 변조방지기술 ▲시청각기록물의 음질 · 화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잡음제거 및 영상필터링 기술이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해외기술에 의존해왔던 전자시청각기록물의 장기보존, 위 · 변조 방지, 진본성 보장기술 확보와 시간 · 장소제약 없이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토종기술개발에 노력해온 결과다.
국가기록원이 개발한 전자시청각기록물 검색기술 및 위 · 변조 방지기술과 더불어 국제표준인 ISO/IEC 15938인 MPEG-7과 ISO/IEC 21000인 MPEG-21을 바탕으로 시청각기록물의 장기보존 메타데이터와 포맷표준을 제시,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 영구보존관리에 적용될 예정이다.

◉ 설립 40주년 기념 기록관리 국제학술회의 개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성남시 소재 나라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 설립 40주년 기념 기록관리 국제학술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세계 10여 개국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기록관리 표준과 전자기록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기록관리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된다.
3일 진행될 기록관리 표준 포럼은 전자기록관리 분야에서 모범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의 표준 전문가들을 초청, 기록관리 국제표준화 동향, 실제 운영사례 파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표준화 현황을 점검하였고, 4~5일 양일간 진행되는 전자기록 장기보존 국제세미나는 전자기록 장기보존에 대한 국제연구 프로젝트인 '인터파레스 3(InterPARES 3/IP3)' 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연구팀 대표와 연구자(10개국 16명)가 참석해 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 및 진본성 유지라는 주제로 그간 연구한 주요 성과와 각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다.

◉ 전시시설 쉬는 토요일에도 개방

국가기록원은 모든 전시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매월 휴무토요일(2 · 4주 토요일)에도 개방 운영한다. 이는 국민 친화적 기록문화의 확산과 평일 전시관 관람이 어려운 학생과 직장인들의 관람 편의를 위한 것으로,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전국의 5개 전시관을 전시관을 찾아 평일(09:00~18:00)처럼 관람 할 수 있다.

▶ 전시관 관람 문의 및 안내부서

- **대전본원(국가기록전시관)** : 042-481-6785, 6379
- **부산(기록문화전시관)** : 역사기록관(051-550-8093)
- **성남(국가기록 · 대통령기록전시관)** : 나라기록관(031-750-2033), 대통령기록관(031-750-2117)

* 국내 기록관리 소식

◉ '북간도에 세운 이상향, 명동촌' 전 개최

1899년 2월 함경북도 종성에서 두만강을 건너 낯선 땅 북간도로 이주했던 142명의 한인들은 '명동(동쪽을 밝힌다)촌' 을 조성했다. 이들 이주한인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사진전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렸다. '북간도에 세운 이상향, 명동촌' 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에는 60여 점의 북간도 명동촌 관련 사진기록이 나온다.



간도 명동여학교 졸업기념사진



1928년 북간도 한인들의 회갑잔치

낯선 땅에서 겨레의 고유 문화를 지켜가며 명동학교와 명동교회를 세워 민족교육의 요람을 꾸미고, 북간도 전역에서 한인들을 위한 교육 및 독립운동을 펼친 명동촌은 '간도문화의 발상지' 로 평가된다. 1920년대 빛바랜 사진 속에 담긴 함경도식 가옥, 돌잔치 및 회갑잔치, 졸업식 사진 속 우리 선조들의 모습은 풋풋하고 정겹다.

◉ 전북대박물관 '기록과 인간' 주제 박물관대학 개최

전북대박물관이 4월~6월까지 '기록과 인간' 을 주제로 제3기 박물관대학을 열었다. 1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박물관대학은 '조선왕조실록' 을 지켜낸 기록 보존의 본향인 전북의 정체성을 되돌아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	일 자	강 의 내 용	강 사
1	4. 8	선사시대 삶의 풍경-암각화	**송화섭**(전주대학교 교수)
2	4.15	그림으로 그려낸 고구려의 꿈과 삶-고대 고분벽화	**조법종**(우석대학교 교수)
3	4.22	돌에 새긴 희망-고대 금석문(광개토대왕, 중원고구려비, 단양적성비 등)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4	4.29	나무에 남긴 고대인의 생활상-목간(木簡)	**윤선태**(동국대학교 교수)
5	5. 6	미륵사지의 비밀-사리장엄구를 통해 본 창건이야기와 백제불교	**조경철**(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6		답사(고대 기록문화유산의 길)	
7	5.13	불심으로 피어난 호국 정신-고려 팔만대장경, 목판	**남권희**(경북대학교 교수)
8	5.20	기록의 나라-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궤	**오항녕**(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9	5.27	낱장의 기억, 삶의 기록들-조선시대 고문서	**김현영**(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0	6. 3	입에서 입으로, 기억의 역사-구술기록	**함한희**(전북대학교 교수)
11		답사(조선왕조실록의 수호)	
12	6.10	민중의 소리, 사라진 역사-현대 기록관리 현황과 과제	**곽건홍**(한남대 교수)

특히 이번 박물관 대학은 최근에 발견된 미륵사지 사리봉안기 등을 비롯해 백제시대 목간(木簡),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목판인쇄 및 구술기록 등을 통해 인간의 삶 속에 투영된 기록과 기록을 통한 삶의 복원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월 8일 개강해 6월 10일까지 이어진 강좌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기록으로 본 우리네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았다. 이와 함께 2회의 기록문화유산 답사도 진행되어 우리 기록문화의 생생한 현장까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 또 다른 '부산의 기억' 문화공간 개관

1876년 개항 이후 부산에는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 꽤 남아있는데 새로 개관한 동아대학교 박물관도 그 중 하나이다.



동아대학교 박물관

새로 조성되는 동아대 박물관은 '임시수도 정부청사' 로 잘 알려진 곳이다. 좌우대칭의 'ㄷ' 자형 르네상스 양식의 붉은 벽돌건물은 1925년 경남도청으로 건립됐다가 한국전쟁 때는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이후 다시 경남도청으로 사용됐으며 1983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부산지방법원, 지방검찰청 본관으로 사용됐다.
동아대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 건물과 일대 부지를 2002년 매입한 뒤 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4년여에 걸쳐 리노베이션을 실시했다. 80여 년간 세 차례 이상 증·개축되면서 건물은 'ㅁ' 자로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마룻바닥이 콘크리트바닥으로 바뀌는 등 심하게 변형됐다. 다행히 원본설계도가 남아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초기형태로 건물을 복원하였다.

◉ 기상청, 100년간 기상자료 이관

기상청은 1904~2003년까지 과거 100년 동안 기상자료 74,000여 권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 이로써 지난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보관돼온 기상자료 153,000여 권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진데 이어 모두 227,000여 권의 자료가 이관됐다.
이관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1985년 8월15일 대구의 최고기온이 33.9라고 나타난 기온기록지 등 기록과 관측야장, 일기상통계표, 기상레이더 자료 등이다. 이같은 자료에는 기상청이 1904년 목포 임시관측소가 설치된 이후 기상상황부터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전후 현재까지 과거 100년간 우리나라의 기상 역사가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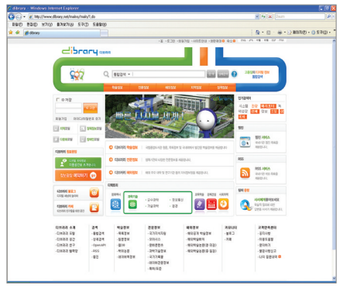
* 국내 기록관리 소식

◉ 경기교육청, 전국 교육자치단체 처음으로 기록관 개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자치단체 처음으로 전산시스템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직속기관으로 개원한다. 정보기록원은 연면적 5,597㎡의 지상 6층 규모로 3부 5담당 총 72명으로 운영된다. 기록원은 전산시스템 통합관리실, 사이버 침해대응센타, 기록물 보존 서고, 행정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
기록원 개원으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문서 등 정보자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며 고품질, 고보안성의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매년 증가하는 사이버 해킹에 신속하게 대응,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도 확보하게 된다.

◉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국립디지털도서관)이 개관되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시대를 선도할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정보와 인간이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으로 특히 온라인 서비스 공간인 '디브러리(Dibrary) 포털(www.dibrary.net)'과 오프라인서비스 공간인 '정보광장'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지하 5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8천14㎡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3층에는 메인 로비와 함께 다국어정보실, 전시실, 대회의실이 위치해 있고, 지하 2층에는 디지털열람실, 미디어센터, 도움누리터, 복합상영관, 세미나실 등이, 지하 1층에는 디지털북카페를 비롯해 본관과 연결하는 지식의 길 등이 위치해 있다.
또 '디브러리 포털(www.dibrary.net)'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 및 지역기관 375개 기관, 정부기관 70개 기관, 다문화기관 17개 기관, 장애인관련기관 9개 기관 등 국내 총 471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기존의 민간 포털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디브러리 포털'을 통해 학술정보, 전문정보, 해외정보 등 총 1억 1,600만 건의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책정보, 지역정보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 대전시 출범 60년 기념사진 및 기록전 개최



대전의 변화상과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대전시청 2층 로비에서 마련되었다. 시민공모전 입상작과 사진기자협회 수집 자료, 시청 자료 등 사진과 기록물 370여 점이 전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1940년대 인동시장의 모습에서부터 1950년대 대전천변 판자촌, 한국전 당시 갑천변 미군의 모습 등 사진과 1966년 '대전시 택지조성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까지 대전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도우미들이 입었던 유니폼과 기념주화, 책자 등과 주민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변천사 등도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에서 전시했던 '국가기록특별전 대한민국'의 기록물도 전시돼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 해외 기록관리 소식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6월 9일 국제 기록의 날 축하

국제 기록의 날은 전세계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 자국의 기록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날로서, 2008년 처음 제정되었다. 2002년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연례회의에서 설립일인 1948년 6월 9일을 국제 기록의 날로 지정하여 전세계적으로 기념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의결하고 2004년 비엔나 총회에서 이를 재결의함에 따라, ICA의 설립을 후원한 바 있는 국제기구인 UNESCO는 2008년 6월 9일 ICA 설립 60주년을 맞아 국제 기록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 헝가리, 세네갈 등의 국가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의 국제 기록의 날 홍보 포스터(2009)

국제 기록의 날은 주요 정책권자에게는 효과적인 기록관리가 올바른 통치, 행정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이전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기록 보존 기관을 방문하도록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U.S.A.

국가기록관리청(NARA), 설립 75주년 기념행사 펼쳐

1934년 6월 19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가기록관리청법에 서명함에 따라 국가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가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9년 6월 19일 설립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미 국가기록관리청(NARA)은 공식 75주년 기념 웹페이지를 개설(http://www.archives.gov/75th/)하고, 국가기록관리청 75년 발전사를 보여주는 온라인 사진전, 국가기록관리청 건물 사진으로 제작한 월페이퍼 제공, 일반 이용자의 이용담 투고 접수·수록 등의 온라인 행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오프라인 행사를 다각적으로 개최하였다.

- 20009. 6. 5~26. : 워싱턴 소재 국가기록관리청에서 「자유의 헌장」 보존, 국가기록관리청 건물의 역사와 의미, 입법부 기록물 연구에서 의외의 발견 등에 대하여 차례로 전문가 강좌 개최
- 2009. 6. 13. : 아틀랜타 소재 국가기록관리청-동남지역센터(2010. 9.~ 2011. 2.에는 캔자스 시 소재 국가기록관리청-중부평야지역센터)에서 「기록된 권리 : 시민권 운동 유산」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 2009. 6. 19. : 국가기록관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퇴직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국가기록관리청 생일 축하 파티 개최
- 2009. 6. 24. : 설립기념 정오 강좌 시리즈의 일환으로 미 하원의원이자 역사가인 로버트 레미니 박사를 초청, 저서인 「미국의 짧은 역사」에 대한 강좌 개최
- 2009. 6. 25. : 설립기념 정오 영화 시리즈의 일환으로 "저장고에서: 정치선전, 설득, 홍보(From the Vaults: Propaganda, Persuasion & Promotion)" 상영

위의 행사 및 온라인 행사는 설립 75주년 기념 웹사이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 및 업데이트 된다.

United Kingdom

국가기록원(TNA), 국가기록물 수집·보존에 대한 전략 공포

국가기록원(TNA)은 2009년 5월 6일에 「연간계획 2009~2010」을 발표하고, 이어 6월 1일에 국가기록물 수집·보존에 대한 전략을 최종 공포하였다.
연간계획 2009~2010은 '09~'10년에 걸친 국가기록원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밝히고, 그 필요성과 임무 적합성을 설명한 후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이어 발표한 국가기록물 수집·보존 전략은 국가기록원이 보존하여야 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기록유산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핵심 주요 스포츠 및 문화 행사, 개인, 지역사회, 일반대중, 민간 및 자선기관의 삶을 기록하여 올바른 장소에 보존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존하여 널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국가기록원은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본 전략이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가기록원, '웹아카이빙의 현재와 미래' 관련 신규 연구프로젝트 실시

국가기록원(TNA)은 2009년 5월 21일, 보존된 웹사이트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영국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JISC :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의 자금 지원과 영국 웹아카이빙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현재 웹아카이브가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와 "영국 내 온라인 콘텐츠의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가치와 연구 가치 정의" 및 "웹 아카이브를 수집하는 다양한 기관과 각 기관의 관심사 조사" 가 주 내용이다.
본 연구는 2009년 7월 말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국가기록원 또는 영국 웹아카이빙 컨소시엄 웹사이트를 통해 2009년 8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China

"1949년 당안" 시리즈 영상·전자책 인터넷 출시

국가당안국·중앙당안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서 〈공화국의 걸음-1949년 당안〉이라는 FLASH 영상과 전자책을 2009년 1월 1일에 국가당안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였다. 특히 시나(新浪)·써우후(搜狐)·중화(中華)·펑황(鳳凰) 등 수십 개의 사이트에서 이 소식을 소개하자, 수 많은 네티즌 댓글들이 올라와 인터넷상에 기록 열풍을 일으켰다.
2008년 12월 19일에 전국 당안국장 및 관장 회의상에서 양동권(국가당안국장)은 "전국 기록 관련 기관 등은 '신중국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각종 기록물 전시 및 선전과 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더불어 국가당안국 홈사이트에서 전문 주제 〈공화국의 걸음-1949년 당안〉을 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당안국과 관련부서에서는 중앙당안관과 여러 당안관의 소장 기록물 중 1949년에 발생한 52개 중대 사건 기록물을 선별하였다. 각각의 중요 사건을 하나의 전문

* 해외 기록관리 소식

컬렉션으로 하여 관련된 여러 문서, 사진, 영상, 녹음, 간행물 등을 포괄한 기록물을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옛 중국의 폐허에서 어떻게 건립 · 성장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출처 _ 중국당안보 2009. 1. 12]

'수리부(水利部)[1]' 수리공정당안[2] 관리 업무 강화지시

중국 수리부는 당중앙 · 국무원에서 대대적인 재원을 투자한 수리기반시설 건설과 관련 건설 공정의 완성과 동시에 완정(完整)성, 정확성, 체계성을 갖춘 수리공정 기록물관리 업무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관련 법령 · 정책과 《수리공정건설항목당안관리규정(水利工程建設項目檔案管理規定)》에 의거한 《통지(通知)[3]》를 하달하였다.

《통지》는 각급 '수행정(水行政)' 주관부서의 고위간부 중에서 공정당안 업무를 분명하게 담당하고, 관련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도 공정당안 업무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리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일반 사업체 역시 '공정당안' 관리를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각 실행부서 또한 규정을 준수하고 동시에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체결된 계약 및 협상, 실시된 검사, 감리, 평가, 검수 등 업무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공정당안'에 구체적인 요구 및 검사 결과와 현황에 대해서 제시하고, 기록물관리업무와 공정건설 진행 상황도 일치하여야 한다.

공정당안은 관련 규범에 의해서 엄격한 검수 과정이 요구되는데, 검수주관 기관 또한 《수리공정건설항목당안험수관리판법(水利工程建項目檔案驗收管理辦法)》의 요구를 성실 준수하였는지 엄격하게 검수하고, 모든 기록물도 각 항목에 부합되지 않으면 검수에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울러 《통지》에서는 각 부서의 직제범위 내에 공정당안업무의 관리 부서를 분명하게 하고,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구체화하도록 요구하였다. 동시에 각 기관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자체조사 현황을 수리부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수리부는 각 기관에서 보고된 상황을 근거로 하여 국가 또는 지역 기록물관리기관에게 중요 건설사업 및 기타 성(省) · 시(市) 및 유역기구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다.

[출처 _ 중국당안보 2009. 3. 27]

Japan

연구기록의 아카이브즈
– 연구과정의 검증과 새로운 정보자원화를 위하여

일본 아카이브즈 학회(The 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는 2009년 2월 29일에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아카이브즈 연구계(國文學研究資料館アーカイブズ研究系)와 「연구기록의 아카이브즈-연구과정의 검증과 새로운 정보자원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공동연구회를 가졌다.

이 연구회는 연구의 최종 성과물인 논문이나 도서를 수집 · 정리 · 보존이라는 측면보다 연구과정, 혹은 연구 소재가 되는 사회조사 관련 데이터나 연구 활동 지원 학회 등의 활동 기록, 문서 등의 수집 · 정리 · 보존을 아카이브즈의 한 역할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의로서 연구 과정이나 성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연구에 쓰인 경비를 제공하는 정부나 민간기간 등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는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인문과학 등 각 영역의 연구기록 아카이브즈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아카이브즈의 역할, 연구기록에 관한 아카이브즈의 담당 기관, 더 나아가 공문서나 개인 문서 등을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는 아카이브즈 세계의 확대에 대한 고찰 기회를 제공하는 실험의 장이라 밝히고 있다.



일본 아카이브즈 학회 2009년도 대회 개최

2009년 4월 25~26일 일본 아카이브즈 학회 대회가 일본 학습원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회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 총 8명의 연구자가 자유 주제 연구발표를 수행하였다. 「ISO TC/ SC11 Archives/Records Management의 기록관리 표준의 진행, 특징 및 과제-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메타데이터 활용이 과제」와 「박물관 아카이브즈 확립을 목표로-일본에 필요한 박물관 아카이브즈상에 대한 제안」, 「일본 입법부 아카이브즈의 현상과 과제」등의 주제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둘째 날에는 「Archives Japan 50-아카이브즈학으로 본질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일본 최초의 아카이브즈인 야마구치현(山口縣) 문서관 설립으로부터 50년의 그 반세기를 아카이브즈학의 시점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방의 현립 문서관이나 대학 문서관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발표를 한 후 전체 참가자들과의 토론회가 벌어졌다.

[참고]

상세 발표주제는 http://www.jsas.info/modules/news 참조

「공문서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71회 국회에 제출

지난해 2008년 2월, 후쿠다(福田) 전 총리가 공문서담당대신을 임명하고 "공문서 관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총 12회의 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시간을 꿰뚫는 기록으로서의 공문서 관리 방식- 국가차원의 사업으로서 임하다」라는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11월 4일 아소총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에서 법안을 기초하여 2009년 3월 3일 제171회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이관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전문가 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에서 이 법률안을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관련 학계가 향후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참고]

「공문서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http://www.cao.go.jp/houan/171/171-2anbun.pdf 참조

영미 소식 : 이주현(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중국 소식 : 이창주(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일본 소식 : 이윤경(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1 '수리부(水利部)'는 중국에서 수자원업무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관련 법규를 제정 · 관장한다. 수자원(지표수, 지하수, 및 대기중 수분까지 포함)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해 전국의 수자원 개발허가와 수자원관련 증세 제도까지 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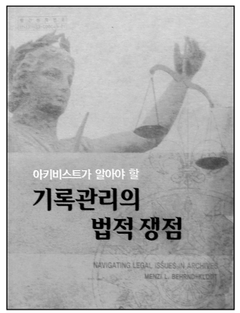
2 공정당안(工程檔案)이란 복수 부처가 관련되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 제안 · 입안 · 심사 · 비준 · 실리조사 · 설계 · 시공 · 생산준비 · 감리 및 사업관리 중 생산된 일반기록물, 도면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3 통지(通知)란 특정한 대상에게 문서로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관련된 사항을 물건으로 전달하여 그 대상으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알리고, 집행하도록 하는 공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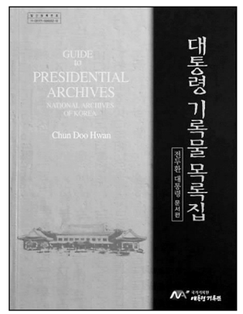
국가기록원 발간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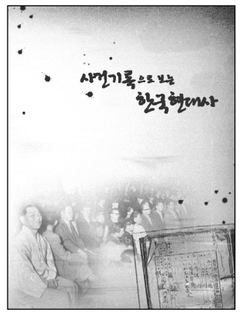


2



3

4



1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Ⅱ

이번 해제집은 지난해 발간된 『일제시기 건축도면 Ⅰ- 학교편』에 이은 두 번째 자료집으로, 총설, 유형별 각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국사 · 경주박물관 등 39개 건축물의 주요도면 333매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도면 생산기관의 연혁과 건축도면의 건축사 및 역사적 의의 등을 함께 담고 있어 근대건축사 및 관련분야 학술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아키비스트가 알아야 할 기록관리의 법적 쟁점

이 책은 공적 · 사적 기관, 사업 · 회사, 종교, 학교/학문, 역사학계, 박물관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의 고용인, 자문가,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소개하여,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접근 이해하기 쉽게 썼다.

3 전두환 전 대통령 기록물 목록집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대통령 비서실과 각급 기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받은 문서 1만 6천여 건의 목록이 수록돼 있다.

4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이 책은 1950 · 60년대 한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중요 기록물이 국민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시대상을 조망하고 있는 지를 보여 줄 것이다.

1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저자 : 에밀 부르다네 | 역자 : 정진국 | 출판 : 글항아리
발행일 : 2009년 5월 6일 | ISBN : 9788996215578

프랑스의 고고학자이자 대한제국의 철도와 광산개발 기술자문이었던 저자가 1900년부터 4년간 머물며 그려낸 한국 기록이다. 조선인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풍습, 자연과 환경, 제도와 문물, 공연 소개까지 희귀하고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담아내었다. 20세기 프랑스에서 나온 조선 관련서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힌 베스트셀러로, 조선인을 '불결'하고 '악취'가 난다거나 무속에 대한 의존성을 꼬집는 등 서양의 눈으로 본 동양에 대한 편견도 있지만 일제의 침탈로 망국의 기운이 감도는 대한제국의 모습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인들의 생활사를 재치 있게 스케치하였다.

2 페이퍼로드 기행

저자 : 편일평 | 출판 : MBC프로덕션
발행일 : 2009년 3월 16일 | ISBN : 9788996047872

이 책은 기록의 매개체로 탄생한 종이가 이동했던 페이퍼로드를 따라가는 문화인류학적 탐구보고서이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종이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종이의 원류를 찾고, 그 원류에서 다시 종이라는 문명이 어떻게 파생되고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막과 초원을 지나 중국에서부터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각 나라에서의 종이 발달 과정을 밀도 있게 탐구하였다.

3 정조어찰첩

역자 : 동아시아학술원 | 출판 : 성균관대출판부
발행일 : 2009년 5월 20일 | ISBN : 9788979868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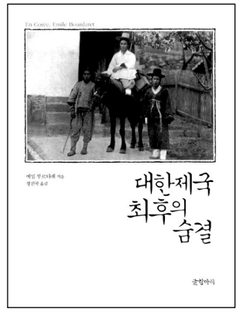
4년여에 걸쳐 정조가 심환지에게 발송한 297통의 편지 모음이다. 기왕에 알려진 정조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인간적인 성격이나 고민, 일상모습 만이 아니라 병력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조정의 신하들에 대한 평이나 어떤 문제에 생각도 솔직하게 제시되어 있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그리고 『홍재전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조실록'이라고 할 수 있다.

4 디지털시대의 문헌정보학 연구

저자 : 김태승 外 | 출판 : 한국도서관협회
발행일 : 2009년 2월 15일 | ISBN : 9788976781215

이 책은 특정 학문의 연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정보원이 총 망라된 가이드북이다. 관련 분야의 정보원을 자료의 형태나 특성별로 체계화시킨 출판물은 그 분야 연구자의 연구 시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연구 업무 자체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 현장의 실무자와 대학생 계층에게도 여러 가지 학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길잡이가 된다는 점 또한 이 책의 미덕이 아닐까 한다.

1



2



3



4



기록관리 발전 제안 공모

■ **공모주제 :**

기록관리제도의 발전방안

기록관리정책에 대한 발전 제안

기타 기록문화–서비스 관련 발전방안 등

■ **공모대상 :**

기록관리 유관학과(역사학, 문헌정보학과 등)에 재학 중인 대학 · 대학원생

기록관리 실무영역에 있는 민간 및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기타 기록관리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등

* 2인 이상 공동 제안 가능

■ **시상내역 :**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1편 : 상장과 부상(5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 수 상(국가기록원장상) 2편 : 상장과 부상(3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장 려 상(국가기록원장상) 3편 : 상장과 부상(2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 심사결과 해당 수상작이 없는 경우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모기간 : 2009.6.10~8.9(2개월)**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chives.go.kr)를 참조하세요

■ **원고 모집**

국가기록원 계간지 「기록인IN」은 독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록 · 문화계 소식과 현장에서의 느낀 소감 · 제안 등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기록인IN」 편집담당자
전화 : 042–481–6382 팩스 : 042–487–6371 이메일 : kbn1004@mopas.go.kr

기록인 IN

2009 SUMMER + Vol. 07
기록인(IN)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계간 정보지입니다.

• **편집위원회**
김창수 / 기록정보서비스부장(위원장)
한승섭 / 기록편찬문화과장
김형국 / 표준협력과
김영선 / 기록편찬문화과
유환석 / 공개서비스과
이강수 / 경제기록관리과
고종오 / 기록정보화과
조이형 / 표준협력과
최찬호 /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
이주현 / 표준협력과

• **편집실**
김병남 / 기록편찬문화과
김재훈 / 기록편찬문화과
김연아 / 기록편찬문화과
이수진 / 기록편찬문화과